



11

1992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2. 11호

(루게 541)



◆◆◆◆◆◆◆◆◆◆

차 례

◆◆◆◆◆◆◆◆◆◆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4
꽃다발	7
수령님 꽃피우신 인민의 강산	7
위대한 회고속에 빛나는 영상 (외 1 편)	8
매덕령	8
봉선화 꽃뭉침에	9
오가산	10
태천호의 봄	13
명언해설	14
길들여진 호랑이	15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 드리는 헌시	18
사회주의 본보기나라	18
은혜로운 생명수	19
세번째 위인을 맞다	21
명제해설	23
급행렬차	24
조선의 넋과 기상이 내려치는 작품을	25

내용과 형식에서 새로운 혁신을!.....	25
문필전사된 영예안고.....	25
아, 푸른 하늘.....	26
초인종소리	35
말로 하지 않은 효성.....	37
문학예술혁명의 새로운 양양을 추동하는 불멸의 기치.....	40
평론과 서사시에 대한 견해	47
내 고향의 밤.....	59
사랑의 권리	60
축복받은 날에 부른 노래.....	62
그립던 땅에서 (2).....	63
나무모기르기공의 마음	65
어서 오세요	66
생활의 흐름	72
아물수 없는 상처.....	77
소원	79
기다리는 품	79
어머니의 웨침 (외 1 편).....	79
진리는 어디에 있느냐.....	80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오늘 우리 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를 모시고 혁명하는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억세게 싸워나가고있다.

당과 수령을 믿고 따르려는 우리 인민들의 존경과 신뢰의 정이 오늘처럼 뜨겁고 확고부동하며 숭고한 높이에서 발현된 때는 일찍이 없었다.

우리 작가들은 비상히 높아진 우리 인민들의 사상정신세계와 오늘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기 위한 문학작품을 더 훌륭히 창작하는것은 주체형의 혁명가들을 키우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주체형의 혁명가의 제일 생명이다. 혁명가들은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여야 수령의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에서 언제나 승리할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운명을 수령에게 전적으로 의탁하고 혁명의 한길에서 끝까지 충직하게 싸워나갈수 있다.

우리 인민들속에서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는것은 모든 사람들이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혁명하는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끝없이 빛내어나가도록 힘있게 이끌어주는 중요한 창작사업이다.

지금 우리 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에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 사회주의가 제일 좋다는 철석의 신념을 가지고 당과 수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를 더 잘 건설하겠다는 드팀없는 의지로 맞서고있다.

우리 작가들이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형상한 작품을 더 훌륭히 창작해낼 때 우리 인민의 이러한 신념과 의지를 더욱 확고부동한것으로 다져나갈수있으며 우리 식 사회주의를 승승장구하게 하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체득시키기 위한 문학작품창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당과 수령의 사상과 리론의 위대성, 령도의 위대성, 사상정신적 풍모의 위대성을 형상적으로 격조높이 구가하는 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문학예술작품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위대한 사상가, 탁월한 정치가, 천재

적인 전략가로서의 우리 수령님의 높은 권위를 깊이 인식시키며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존경심과 흥미의 정을 키워주는데 힘을 넣어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는 사상리론적예지와 령도풍모에 있어서 뛰어난 천품을 지니고계시는 걸출한 위인이시다.

력사에는 남다른 품격과 자질로 하여 이름을 날린 위인이 적지 않았지만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처럼 뛰어난 품격과 자질을 겸비한 위인은 일찍이 없었다.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시야말로 인류가 낳은 위인중의 위인이시라는것을 숭고한 형상으로 펼쳐보여주어야 한다.

우리의 모든 문학작품들에서는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를 지니신 위대한 사상리론가를 모시고 있기에 우리 혁명과 건설이 지난날에도 그러했지만 앞으로도 사소한 편향도 없이 곧바른 승리의 길로 전진할수 있다는 신심이 깊이있게 우리나라와야 한다. 이와 함께 당과 수령의 령도가 가장 현명하고 과학적인 령도이기에 언제나 백전백승한다는 사상이 굽어쳐야 한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가장 숭고한 덕성을 지니신 인민의 위대한 아버지를 모시고 살기에 끝없이 보람차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있다는것을 자나깨나 잊지 말도록 비상한 감화력으로 이끌어주는 풍만한 화폭을 펼쳐놓아야 한다.

수령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주체문학건설의 기본의 기본이다. 우리 작가들은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을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우리 작가들이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을 첫째가는 과업으로 틀어쥐고나가야 우리 식 사회주의를 튼튼히 옹호고수하고 주체사상화위업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

오늘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수령의 위대성과 업적을 깊이 체득시키는 사업을 더욱 실속있게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더욱 진공적으로 벌릴것을 요구하고있다.

수령의 위대성과 업적을 선전하는데서 문학예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시기 우리 작가들은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형상한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하여 당과 수령의 위대성으로 인민들을 교양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우리 작가들은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데서 이룩한 성과를 튼튼히 고수하고 빛내어나가야 한다.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 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는 크지만 조금도 자만할 근거가 없다.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 데서는 아직 새롭게 탐구하고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많다.

우리 작가들은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 기수로서 시대와 역사 앞에 지닌 영예로운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 데서 우리 작가들이 새롭게 탐구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는 풍만하고 감동적인 사실적 자료에 기초하여 다양한 형식의 수령형상작품을 더 훌륭하게 창작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기초하여 작품을 창작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나서는 새로운 탐구분야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형상하는 혁명영화작은 회고록에 기초하여 영화를 만드는 것으로써 새 출발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은 우리 혁명의 만년재부이며 더없이 귀중한 혁명의 교과서이다.

지금 우리 인민들뿐 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회고록을 읽고 수령님의 위대성과 업적에 대하여 더욱 탄복해하며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존경과 흠모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있다.

우리 문학은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기초하여 수령형상작품창작에서 새 출발을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에 기초하여 수령형상문학에서 새로운 일대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작가들이 회고록 학습을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회고록에 대한 작가들의 학습은 혁명의 원리를 깊이 체득하며 혁명하는 원칙과 방법을 배울 뿐 아니라 조국과 민족과 인민과 혁명동지를 사랑하는 숭고한 정신을 따라배우는 것으로 되어야 하며 이에 그치지 말고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다 바쳐오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생활적으로 깊이 파악하며 자기의 완전한 녀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회고록에 담겨진 위인중의 위인이시며 불세출의 영웅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에 대한 실로 감동깊은 사연들을 문학적형상으로 창조할 수 있는 튼튼한 사상정신적기초가 마련되게 된다.

이와 함께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위대성을 전설화하여 사람들을 교양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비범한 예지와 천재적인 지략으로 류레없이 간고한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혁명력사에는 세인을 놀래우는 전설같은 이야기가 수없이 엮여져 있다.

우리 작가들은 우리 혁명의 갈피마다에 뜨겁게 스며있는 당과 수령의 위대성과 뛰어난 품모에 대한 전설적 이야기들을 적극 수집정리하여 우리 인민들의 혁명적수령관 형성과 당과 수령에 대한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끝없는 존경과 흠모심을 더욱 뜨겁고 두텁게 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수령형상문학이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새 출발을 하자면 반드시 수령, 당, 대중의 3위1체의 원칙에서 당과 대중의 련관속에서 수령형상을 창조하여야 한다.

로동계급의 수령을 3위1체의 견지에서 보고 그리는가 못그리는가 하는데 따라 수령의 형상을 격이 있게 그려낼 수도 있고 그려내지 못할 수도 있다. 3위1체의 립장과 관점에 설 때에는 수령을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인 관계속에서 보면서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중심으로 형상하게 된다.

그러나 3위1체의 관점과 립장에 서지 못할 때에는 수령을 당과 대중과 동떨어져있는 개인으로 형상하게 되며 따라서 사회정치적생명체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응당한 높이에서 형상할 수 없게 된다.

오직 수령을 3위1체의 견지에서 보고 그려야 탁월한 사상과 세련된 령도예술로 혁명의 참모부인 당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단합시키며 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익을 가장 철저히 옹호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으로 당과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통일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인민의 위대한 수령으로 깊이있게 형상할 수 있다.

수령을 3위1체의 관계에서 형상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언제나 인민속에서 활동하는 수령의 품모를 그리는 것이다.

우리 수령님은 한평생을 오로지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익을 가장 철저히 옹호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신 인민의 위대한 어버이이시다. 수령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반세기가 훨씬 넘는 장구한 기간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혁명의 험난한 길을 헤쳐 오시였으며 수억만리 현지지도의 길을 이으시며 인민들속에 계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는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이민위천》**, **《이신위민》**의 리념을 좌우명으로 삼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그대로 체현하시고 인민을 하늘같이 여기고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것을 확고부동한 생활신조로, 인생관으로 하시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고 계신다.

우리 작가들은 3위1체의 원칙에서 언제나 인민과 고락을 같이하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빛나는 활동과 숭고한 품모를 깊이있게 그려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한평생을 쉬임없이 이어가시는 현지도의 로정에 깃든 잇을 수 없는 사연을 감명깊게 형상하는것이다.

그런데 일부 작품에 그려진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지도에 대한 이야기는 회상기를 읽는것보다 감동을 주지 못하고있다. 이렇게 되는것은 작가가 현지도에 깃든 수령님의 높은 뜻과 그것이 가지는 의의를 심장으로 느끼지못한채 글을 쓰는것과 많이 관련되어있다. 현지도내용에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거리를 잡았다고하여도 거기에 깃든 수령의 인간적품모를 심장으로 느끼지 못하면 사실자료의 라렬에 그칠 수밖에 없다.

작가들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우리 인민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하여주려고 잠시의 휴식도 없이 인민을 찾으시여 수만리길을 이어가신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크나큰 로고와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심장으로 체득하고 감동깊은 형상을 창조하여야 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잘 형상하여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는것은 우리 세대작가들이 지닌 가장 영예롭고 책임적인 과업이다.

이 과업을 후대에게 넘겨줄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형상하는 사업은 직접적인 목격자와 체험자가 살고있는 우리 대에 다 완성해놓아야 한다. 이것은 시대의 요구이며 지상의 과업이다.

로동계급의 수령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수령형상창작집단뿐아니라 모든 창작집단과 작가의 공동의 임무이며 전당적, 전사회적 과제이다.

모든 창작기관들에서는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 작가의 창작열의를 적극 계발시키며 취재조건과 창작조건을 잘 보장해주고 전사회적으로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고무해주도록하여야 한다.

수령을 형상하는 작품은 사람들에게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인식시키고 그들을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도록 교양하는데서 힘있는 무기로, 혁명의 교과서로 된다.

수령을 형상하는 문학에서 풍년이 들어야 문학계에 풍년이 든다.

모든 작가들은 이 세상 그 어떤 작가도 지녀본적이 없는 수령형상문학의 새로운 경지의 영예로운 개척자, 그 담당자로 된 최상의 영예와 긍지를 안고 수령형상문학건설에서 새로운 일대 전환을 일으켜나아가야 한다.

꽃다발

-도이쉴란드의 녀류작가 루이저 린저를 대신하여-

박창화

풀잎에 맺힌 이슬방울들에
눈부신 해빛이 곱게 아롱져
백두산자락의 푸르른 등판은
그대로 온통
청보석 홍보석인듯

다치면 떨어질가봐
떨구면 부서질가봐
조심조심 꽃을 찾아 발걸음 옮길 때
아, 이 백두에서
아득히 흘러간 소녀시절을 되찾은 마음

함께 산책을 하시는 주석님께선
내 등뒤에서 인자하신 미소를 지으시고
때마침 불어오는
백두의 유정한 바람은
그분의 옷자락에 어리광치는데

시간이 흘러가는지
세상이 돌아가는지
무아경속에 나비처럼 꽃에만 흘러
달려가단 앓고
앓았다간 달려가고...

어느새 줍에 버는 꽃송이들
하늘나리꽃이며 동자꽃
큰금매화며 담자리참꽃...
백두산자락의 꽃들이 하도 향기로워
주석님께 그 꽃을 삼가 드렸어라

소박한 그 꽃다발을 받아들고
한참이나 향기를 맡아보시며
아버지처럼 환히 웃으시던 그 모습을
천만리 떠난들 잊을수 있으랴
목숨이 다한들 잊을수 있으랴

그날부터 내 마음속엔
백두의 꽃송이들 사시절 피어나고
낮이나 밤이나
내 가슴속엔
그리움이 향기되어 넘치고있나니

돌꽃과 달구지풀꽃
진달래와 두메양귀비꽃...
빛갈도 향기도 저마끔 다르지만
꽃들은 하나같이
그분의 만수무강을 바라는 나의 소원

주체의 해발을 안고
김일성 주석님의 품에 뿌리를 내린
시대의 꽃으로
불게 피어난 이 몸!

아, 그분께 드린 꽃다발은
백두의 이슬처럼 맑은 나의 진정
백두의 노을처럼 붉은
나의 마음
나의 심장이었어라

가사

수령님 꽃피주신 인민의 강산

한정규

명승의 내 나라 산마다 푸른 숲은
언제부터 인민의 기쁨으로 설레는가
수령님 문수봉에 첫나무 심으신
해방의 그 봄날에 시작되었네
아 시작되었네

절승의 내 나라 강마다 맑은 물은
언제부터 인민의 행복 싣고 흐르는가
수령님 보통강에 첫삽을 뜨신

건국의 그 봄날에 시작되었네
아 시작되었네

내 나라 푸른 산 옥같은 강물은
인민 위해 바치신 어버이은정일세
수령님 그 사랑 길이 전하며
인민의 제일강산 세상에 빛나네
아, 세상에 빛나네

《삼촌이 이처럼 법정에서 당당하게 처신할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은 혁명에 대한 신념과 충실성이었다고 생각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중에서-

위대한 회고속에 빛나는 영상 외 1편

리룡현

수의를 입으셨어도 몇몇한 모습
고문의 흔적은 량볼에 력력해도
두눈엔 이글이글 타는 불

어버이수령님의 회고록
뜨거운 그 갈피에 남아
참된 충신의 의리를 전하는
김형권동지의 영생하는 모습이어

조용히 그 모습 우러르면
헤쳐넘은 험한 령이
눈앞에 일어서고
장군님 따르는 그 한길로
겨레를 부르던 그 목소리
이 심장 울려주누나

그 타는 눈빛 마주하니
일제의 머리우에 불을 지르며
파발리에 울리던 그 총성 들려오고

고문도 단두대도 이겨넘은
그 의지 이 가슴에 새겨지노라

그 불길이 무서워
역사철사로 결박하고
그 불을 끄자고
담높은 감옥도 쌓았건만

꺾이지 않은 의지
버리지 않은 신념
장군님 위한 한생을
변함없이 이어간 투사여

오, 세기와 더불어
위대한 력사의 회고속에 남아
그날의 모습으로 살아있는 모습이어
태어나고 태어나는 수천만 세대들앞에
오늘도 앞서 걷는 불굴의 삶이어

매덕령

그 하루밤을 모시자고
매덕령은 그 높은 마루에
주막집을 세웠던가

김형권선생님께서
경찰서앞도 빼앗이 지나
품고오신 정 쏟으시려
인민들의 마음속에 들리신
매덕령, 혁명의 집이어

그 언제였던가
여기 매덕령에 주막집이 생긴것은
고개가 하도 높아
쉬여가라고 생겼던가
기다리는 세월이 하도 길어
이 마루에 철자리 뒀던가

한숨과 눈물만이 찼던 가슴들에
희망의 불씨를 달아주던 선생님의 말씀
누구나 뭉쳐서 싸워야 한다신 그 음성
창호지를 울릴 때
고개 높던 매덕령아
너도 고개를 숙였던가

오가는 바람 세차고
들리는 길손 그칠새 없었어도
그날밤처럼 주막집이어
너는 그 작은 방에
생의 환희가 가득찼던적 있었던가

오, 매덕령 매덕령
너는 그날의 환희를 언제나 주자고
오늘도 우리 가슴에 솟아있구나
누리에 불는 불이 타오른 봉화대마냥!

《리관린은 그 당시 우리 나라에서 처녀의 몸으로 백두산을 넘나든 첫 녀성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중에서-

봉선화 꽃뭉음에

림성희

애국의 넋이 어린 렬사의 묘비에

이 꽃뭉음 드리노라

장하게 앞서간 언니앞인듯

이 마음도 속삭이며

그대 다름아닌 조선의 딸이었기에

이 꽃을 사랑했더라

수집은 녀성의 세계가 담겨진

봉선화 봉선화를

묘비를 감돌며

소박한 꽃향기 풍기는데

꽃속에 어리누나

그대 아름답던 처녀시절의 모습이

빨간명기 드리운 함초롬한 쌍태머리

버들웁튼 시내가에 남몰래 비쳐보던 그 어여쁨이

뜨락을 그리안고 소박하게 핀 봉선화로

손끝을 물들이던 그 순결함이

감도는 향기속에 그 모습 바뀌누나

부드럽던 그 손에 총을 쥐고

눈바람도 칼바람도 맞받아

격전장을 오르내리던 용맹스런 모습이

그렇게도 곱게 어울리는 조선옷을

남아의 군복으로 바뀌임을 때

그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살결처럼 깨끗하던 하얀 고무신을

독립군의 지하족으로 바뀌신을 때

그대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고향집 울밑의 처량한 봉선화꽃잎에

자신만이 아닌 수난많은 녀성들의 얼굴이 보여와

봉건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드넓은 조국의 대지에 피고싶던 마음

날마다 망울지는 꿈은 컸건만

나라잃은 슬픔은 또 얼마나 컸거나

하기에 빼앗긴 꿈도 희망도

조국을 찾는 그 길에 있음을

남먼저 자각한 렬녀의 삶이어

녀성의 아름다움도

청춘의 귀중함도

조국광복성전에 바친 삶

애국충정의 그 길에서

오늘도 나를 부르는 리관린투사여

륙혈포를 차고 백두를 넘나든 녀결의 삶

수령님의 회고속에 빛나게 살아

세기와 더불어 조국의 추억속에

민족의 아름다운 향기 더해주나니

오! 우리 혁명의 첫 기슭에서

오늘도 아름다운 한송이 꽃처럼 피어웃는

그대앞에

이 꽃뭉음 소중히 없노라

그대 고향집 떠날 때 그리안고 못놓던

그 향기도 함께 엮어,

이 마음의 꽃송이도 함께 엮어

삼가 그앞에 정히 없노라

본 편집부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지명을 따라 련속기행의 길에 오른 작가 조동서, 황용국, 한웅빈, 손광영의 작품들을 이번호부터 편집한다. 앞으로 편집부에서는 이런 주제의 다양한 작품들을 많이 편집하려고 한다.

오가산

1. 오가산 령길

오가산은 숲의 바다를 떠이고 화평군과 김형직군의 경계선에 솟아있는 해발 1,227미터의 산이다. 동북쪽으로 내려가면 김형직군의 월란리를 거쳐 포평에 이르고 서남쪽으로 내려면 가림리를 거쳐 화평읍에 이르게 된다.

우리는 가림리를 지나 애립마을을 거쳐 오가산 령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수선거리는 숲을 랑옆에 거느린 령길이 우리를 이끌어갔다. 숲에 고요한 서늘한 대기와 쟁쟁한 새소리, 금시 토끼며 노루 등 숲의 주인들이 뛰어나올듯만싶은 심심산속의 령길이었다. 길에는 정적이 드리워있었다. 그 어떤 숨업한 사색이 담긴듯한 정적속에 하얀 사적비가 서있었다.

《이 길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1923년 음력 정월 말 《배움의 천리길》을 걸으실 때와 1925년 1월 《광복의 천리길》을 걸으실 때 지나가신 길입니다.》

우리를 안내해가는 강사는 하늘중천으로 잇닿은 듯 아득히 뻗어올라간 령길을 가리키며 말했다.

《1925년 1월 아버지께서 또다시 왜놈경찰에 체포되셨다는 비보를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제놈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를 안고 기어 일제를 쳐부시고 조국을 광복하리라는 맹세를 다지시며 이 령길을 오르시였습니다.》

열네살 어리신 나이에 강도 일본제국주의에 선전포고로 되는 조국광복의 결심을 다지시며 오르시였던 《광복의 천리길》의 오가산 령길... 정월의 찬바람이 휘몰아치는 1월의 령길은 얼마나 험하였을것인가.

좁은 소로길은 눈과 얼음에 덮여있었으며 잎떨어진 앙상한 나무가지들은 추위에 몸부림치고있었으리라. 그날에 이 령길을 돌아오르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가슴은 얼마나 쓰리고 아프시였으랴.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시였다.

《나는 이렇게 두해를 보내다가 창덕학교 졸업을 몇달 앞둔 어느날 외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또다시 일제경찰에 체포되셨다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하늘이 무너져내리는것 같았다. 나는 무서운 분노와 적개심에 휩싸였다. 칠팔에서도 만경대에서도 어른들은 사색이 되어 내 얼굴만 지켜보았다.

나는 아버지의 원수, 우리 일가의 원수, 조선민족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사생결단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다지고 떠날 차비를 하였다.

...
내가 고향을 떠날 때 사립문밖까지 따라나오면서 내 손을 쓸어주고 옷깃을 여며주고 눈보라를 걱정해주며 눈물짓던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이 눈앞에 삼삼히 떠올라 발걸음을 옮길수가 없었다.》

눈보라와 추위에 묻혀있었을 그날의 험난한 령

길,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광복을 위하여 장장 20여년을 헤쳐와야 했던 험난한 시련의 길, 혈전의 길의 시작이었다!...

썩- 소리가 우리의 귀전을 스쳤다. 령길옆의 물황철나무와 신갈나무, 잣나무들이 설레이는 소리였다. 그 소리에 귀기울이면 혹시 그날의 설한 풍소리가 들려오지는 않을까.

하나 우리의 랑옆에서는 한껏 푸르른 여름의 록음이 혼풍에 설레이고있었다. 길가에서는 땀두름과 마타리, 고사리들이 옷깃을 스치며 한들거리고 머리우에서는 물황철나무와 신갈나무, 잣나무와 분비, 가문비나무의 혼성림이 한여름의 노래를 부르고있었다. 길설에서는 불꽃처럼 빨간 산딸기가 길손들을 유혹하였고 비탈우에서는 머루, 다래덩굴이 자기의 매혹적인 열매를 자랑하고있었다.

따뜻한 대기는 버섯냄새와 땀두름의 독특한 향기, 향긋한 송진냄새로 가득찼다.

오가산은 길은 록음, 여름의 향기, 맑은 대기, 푸른 하늘로 자기의 풍만한 아름다움을 자랑하고있었다. 그 모든 아름다움과 풍만함이 왜 그리도 우리의 가슴을 두드렸던지... 수십년전의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길을 걸으실 때는 왜 그토록 엄혹한 추위만이 여기에 깃들었던가.

한포기의 풀이라도 푸른 잎사귀를 흔들어 수령님을 맞이하고 바래주었더라면, 한송이 꽃이라도 피어있었더라면, 한알의 산딸기라도 무르익어있었더라면!

하나 수령님께서서는 눈보라와 추위만이 깃들어 있을 때 이 령길을 넘으시였다. 자연의 모든것이 추위에 웅크리고 추위에 떨던 그때에 넘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리신 나이에 걸으시였던 오가산의 령길, 그것은 그시절 이 나라의 속도였다. 압제의 쇠사슬에 얽혀 모든것을 잃고 신음하던 1920년대 조선의 속도였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길을 걸으시였던것이 아닌가. 조선의 설음, 조선의 분노처럼 얽힌 숲과 덩불속의 오가산령길을 넘으며 정월의 찬바람에 몸부림치는 숲의 설레임에서 이 나라인민의 신음소리를 들으시였다. 슬픔과 분노를, 광복의 굳은 결의로 다지시며 이 령길을 넘으시였다. 앞에서는 이 나라 북변의 강 압록강, 이 나라의 마지막 기슭이 수령님을 기다리고있었다.

《여기가 령마루입니다. 저 길로 내려가면 월란리를 거쳐 포평나루터에 이르게 됩니다.》

강사의 말은 우리의 가슴을 쿵-하고 울리는것 같았다. 뽕안 운무에 휩싸인 산발너머에서 거세찬 물소리를 울리고있을 포평나루터, 썩-하는 숲의 설레임소리가 우리에게는 포평나루터의 거세찬 물결소리처럼 들렸다. 그소리속에서는 1925년의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강을 건느시며 부르셨던 《압록강의 노래》의 구슬픈 선율이 들려오는듯싶었다.

일천구백 십구년 삼월 일일은
이 내 몸이 압록강을 건너 날일세
년년이 이날은 돌아오리니
내 목적을 이루고서야 돌아가리라

압록강의 푸른 물아 조국산천아
고향땅에 돌아갈 날 과연 언젠가
죽어도 잊지 못할 소원이 있어
내 나라를 찾고서야 돌아가리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그때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시였다.

《나는 설음과 비분을 안고 조국산천을 몇번이고 돌아보았다.

조선아, 조선아, 나는 너를 떠난다. 너를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몸이지만 너를 찾으려고 압록강을 건넌다. 압록강만 건넌다면 남의 나라 땅이다. 그러나 남의 땅에 간들 내 너를 잊을소나. 조선아, 나를 기다려다오.》

나를 기다려다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광복의 천리길》 걸음마다에 남기신 이 나라 강산, 이 나라 인민과의 약속이였고 맹세였다. 이 오가산의 기나긴 령길 굽이마다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다시신 그날의 맹세가 깃들어있다. …

우리의 발앞에 조그마한 돌이 놓여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섣뚱집어던질수 없었다. 마치도 그들이 그날에도 이자리에 있었을듯만싶은 심정때문이였다. 오가산에 있는 모든것이 력사에 불멸할 천리길의 증전자처럼 보였다. 그것은 진실이다.

오가산, 해발 1,227미터의 오가산, 이나라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오가산.

오가산이 누구에게나 알려진 산으로 된것은 산이 높아서도, 천연원시림을 품고있어서도 아니다. 여기 화평땅에만도 그보다 더 높은 산은 무척 많다. 1,700여미터의 사랑봉, 1,500여미터의 백삼봉, 1,400여미터의 국망봉…무수히 많다. 허나 사람들은 그 높은산들은 몰라도 오가산은 알고있다.

오가산은 《배움의 천리길》, 《광복의천리길》을 걸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자욱으로 하여 그 모든 높은 산들의 절정우에 올라섰다.

너무도 어린신 나이에 단신으로 걸으신 전설같은 《배움의 천리길》, 《광복의 천리길》에 솟아있는 오가산!

2. 오가산 전설

《가야 할 천리중에 500리이상은 무인지경이나 다름없는 험산준령이였다. 그 험한 산악들을 단신으로 넘는다것이 험치 않았다.

후창에서부터 강계에 이르는 길 량옆의 수림들에서는 대낮에도 맹수들이 어슬렁거리였다. …》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회고록《세기와 더불어》에서 《배움의 천리길》을 걸으시던 때를 회상하신 한 구절이다.

오가산은 참으로 험산 준령이였다. 길옆의 우거진 숲에서는 금시 맹수들이 튀어나올것 같기도 하였다.

우리는 수령님께서 걸으신 《배움의 천리길》로 정을 따라 령길을 내려오고있었다. 그런데 령길은 아무리 걸어도 끝이 없었다. 거의 내려왔는가하여 살펴보면 우리는 아직 령의 중턱에 매여달려있었다. 발바닥이 아프며 화끈거리오기 시작하

였다.

이 길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열두살 어린신 나이에 조국과 인민 앞에 지닌 의무를 자각하며 걸으시였던것이다. 그때는 이 길이 길이라기보다 사람의 발자취를 겨우 찾아볼수 있는 소로길이였을것이다. 머리우에는 음침한 숲이 드리우고 발 밑에서는 가파로운 비탈길이 걸음걸음을 지체시켰을것이다.

그때의 일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회상하시였다.

《오가산령은 하루종일 넘었다. 아무리 걸어도 고개가 끝이 나지 않고 새 고개가 연방 나타나곤 하였다.

오가산령을 넘고나니 발이 다 부르렀다. 다행히도 그 령밑에서 어떤 로인이 나를 붙들고 앉아 발바닥에 성냥으로 딱총을 놔주었다.》

조선을 알아야 한다고 하신 아버님의 말씀을 새기며 돈냥이나 있는 집자식들은 물론 공부해보겠다는 사람들이 찾아가던 외국으로가 아니라 감감한 비운이 드리운 조선으로 《배움의 천리길》을 걸으신 위대한 수령님, 모두가 외국행을 할 때 조선행을 하신 위대한 수령님… 그날의 그 시각을 오늘의 오가산도 기억하고있을것이다. …

숲속에서 들리는 소란스러운 기척에 우리는 생각에서 깨어나 걸음을 멈추었다. 햇빛조차 스며들지 못할 숲의 음영으로 보아서는 진짜 큼직한 산짐승이라도 튀어나올것 같았다.

그런데 진작 숲에서 나온것은 머리가 하얗게 센 로인이였다. 머리만이 아니라 수염도 눈섭도 새하였다.

우리에게는 그가 마치 회고록의 글줄에서 나온 로인인듯이 느껴졌다. 그토록 우리의 모든 상념은 회고록의 글줄을 더듬고있었던것이다.

알고보니 그는 이 오가산밑에서 한생을 보낸 로인이었는데 지금은 약초를 캐고있다는것이였다.

우리는 그에게 오가산에 대해 이야기해줄기를 청했다. 한생을 여기서 살았으니 오가산을 손금보듯이 알고있을것이였다.

그런데 로인은 머리를 저었다.

《오가산에 있는 나무나 약초야 나한테 들어서 뭇하겠소! 애림에 내려가면 그런걸 연구하는 선생들이 가득하다오.》

애림에 있는 식물원본원을 말하는것이였다.

《그것보다 이 오가산에 있는 전설이나 내 이야기합시다.》

하고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건 지금부터 저의 70년전에 있던일이외다. 그때로 말하면 음력으로 정월그믐이 갓 지난 때였지요.》

…월란리쪽의 오가산턱밑 마을에서 경사가 났다. 대대로 숲을 구어 생계를 이어온 박서방네 아들의 잔치준비로 온 마을이 떠들썩했다. 온 마을이래야 불과 서너집밖에 안되는 손바닥만한 마을이었으나 어떻게든 하나의 마을이였다.

지짐을 부치고 떡도 찼다. 내남없이 눈물겨운 가난에 짓밟혀 지냈지만 조되박도 모으고 농마가루도 뽀고 산짐승을 잡아다 잔치음식을 준비했다. 잔치전날 저녁 박서방네 집에서는 마을사람들이 모여앉아 신부를 데려올 일에 대하여 의논을 했다.

신부는 오가산 령너머에 있었는데 신랑이 가서

큰 상을 받으려면 새벽일찌기 떠나야 했다. 그런데 오가산에는 사나운 산짐승들이 많아서 새벽 일찌기 넘기 어려웠다. 대낮에도 맹수들이 거침 없이 나타나는바람에 대어섯명씩 무리를 짓지 않고는 넘을수 없었다. 그런데 마을에는 신랑과 함께 떠날 사람이 한명밖에 없었다. 그 한명이라는 것도 신랑의 아버지였다. 세집중에서 한집은 갖 열병을 앓고나서 겨우 운신이나 하는 정도였고 다른 한집은 처서관에 가서 다리가 부러져 돌아와있었다.

《별수 없지, 낮에 떠나야지. 낮에는 좀 낫겠지.》

《낮에 떠나면 밤에 들어설텐데 잔치는 언제 하겠소?》

《낮에도 그렇지, 두사람이야 어떻게 가겠소?》

《차라리 며칠 미루지 않겠소? 며칠이면 나도 걸을수 있고 저 사람도 다리에 힘이 좀 들텐데.》

그러나 신랑의 아버지는 머리를 흔들었다.

《잔치라는게 인륜대사인데 그렇게 미룰수가 있소? 불문공직하구 래일아침엔 떠나야겠소.》

그는 한번 말하면 기어이 그대로 하는 사람이였다. 그것으로 《마을》에서도 존경을 받았고 좌상대접도 받았다.

사람들은 한숨을 쉬며 흠뻑 젖어졌다.

아버지와 아들은 이튿날을 위하여 일찍 잠들었다. 녀인들은 잔치음식을 준비하느라 부엌에서 달그락거리고있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오가산마루쪽에서 따웅-하는 호랑이 울음소리가 천둥소리마냥 터져올랐다. 그 소리에 문지방이 흔들리고 부엌에서 자곤자곤 그릇들이 박산났다. 갑작 놀란 아낙네들의 손에서 그릇들이 떨어졌던 것이다.

신랑과 신랑의 아버지도 깨어났다. 밤이 깊어 갈수록 호랑이는 더 무섭게 따웅-거렸다. 찌렁찌렁 산울림을 일으키며 호웅을 치는것이 집안에서 있는 사람들도 가슴이 떨리게 했다. 오가산밑에서 수십년 살아온 그들도 이런 요란한 호랑이소리를 들어본적이였었다. 오가산에 몇백년 묵은 황소만한 호랑이가 있다더니 아마 령마루를 오르내리며 무서운 기상을 보이는것같았다.

《어이구, 저게 잔치를 하지 말라고 저러는게 아니요?》

《호랑이 소리라는건 하늘이 내는 소리라고도 했다우.》

호랑이 소리는 동틀무렵에야 잦아들었다.

아버지와 아들은 일찌기 길을 떠났다. 온 마을이 바래왔다. 신랑의 어머니는 다시는 못볼듯싶은 아들을 눈물로 바래왔고 마을사람들도 한숨속에 바래왔다. 범이 없을 때도 한두사람이 넘기는 무서운 령길에 호랑이까지 나타났으니 어찌 무사할수 있으랴. 호랑이란 더우기 첫날 신랑을 물어가기 좋아한다고 하지 않는가.

신랑과 아버지의 불안은 더 컸다. 한결음 한결음을 불안과 공포 속에 내짚으며 령길을 톱아올랐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령을 절반나마 오르도록 짐승의 소리조차 들을수 없었다. 어느때에는 굽이마다에서 송냥이무리의 울음소리, 여우의 울음소리를 들어야 했던 령길이였다. 그런데 이날은 못짐승 하나 없었다.

앞에서 걸어가던 신랑이 문득 놀래여 말했다.

《아버지, 누가 벌써 령을 넘어갔구만요.》

《뭐?》

눈우에는 한줄기 발자국이 령마루에로 곧바로 찍혀있었다.

누가 이른새벽에 혼자서 이 령을 넘었을까. 여럿이서도 공포와 불안 없이는 넘을수 없는 이 령을 똑같은 간격으로 찍혀있는 발자국은 조그마한 두려움이나 불안도 없이 령을 올랐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 발자국의 임자는 장수임에 틀림없다.》

하고 신랑의 아버지가 말했다.

《그렇지 않고야 이 령길을 새벽에 단신으로 넘을수 있느냐, 못짐승들이 왜 한마리도 보이지 않겠느냐. 장수가 지나가니 모두 숨어버린게지.》

아버지와 아들은 그 발자국을 따라 령을 넘었다.

아버지와 아들은 령밑에 있는 첫집에 들러 물어보았다.

《새벽에 이 령을 넘는분을 보셨는가요?》

그집의 아낙네는 령을 넘어온 사람이 없었다고 대답했다. 방금전에 열두어살되어보이는 소년이 집앞으로 지나가는것을 보았을뿐이라고 했다.

《그럴수가 없는데? 분명히 장수가 넘었을텐데.》

하고 그는 지난밤의 호랑이소리와 이상하게 짐승 한마리 볼수 없었던 령길 그리고 령길에 찍혀있던 발자국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그때 옷방문이 열리며 그 집의 로인이 나왔다.

《웁거니! 자네말이 옳네. 그분이 장수였구만! 하늘이 낸 장수였어!》

《예?》

《내 오늘 새벽에 오가산령을 올라다보느라니 이상하게 오색채운이 서린것같지 않겠나. 늙은게 눈이 잘못됐다 했더니 바로 그분이 령을 넘어올 때였구만. 틀림없네, 그러니 오가산 호랑이가 못짐승들을 찾느라고 밤새껏 호웅을 떨쳤구만.》

그 소문을 들은 마을사람들은 모두 하늘이 낸 장수를 먼발치에서라도 보겠다고 달려나왔다. 그러나 방금 지나갔다는 장수의 모습은 찾아볼수 없었다. 한줄기 발자국만이 남신면 유화리쪽으로 아득히 뻗어갔을뿐이였다.

《그럴테지!》

로인은 머리를 끄덕거렸다.

《그런분들의 걸음을 범인의 걸음으로야 따를수가 없지. 이 나라에 이제는 대통운이 트려는가보네.》

모두들 눈우로 뻗어간 발자국이 사라진곳을 지켜보며 서있었다. 그쪽에서는 눈보라가 일고있었다. 그러나 한참 지켜보느라니 그것은 눈보라가 아니라 오색채운이 피어오르는것이였다. 한겨울에 때아닌 오색채운이 피어오른 날, 그날은 바로 1923년 음력으로 2월초였다.

우리는 로인과 헤어져 령을 내리며 생각했다. 이제 앞으로 이 오가산의 불멸할 길우에서는 얼마나 많은 전설이 생겨날것인가 하고...

3. 오늘의 오가산

《우리 오가산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사적과 함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영광의 사적도 가지고있습니다.》

우리와 동행한 군당의 전명훈부부장은 긍지높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1964년 9월 몸소 오가산령에 오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동무들이 이 오가산 령길이 어떤 길인지 아는가고 물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오가산령을 휴식하기 좋은 장소로만 생각하여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강도일제에게 빼앗긴 나라와 인민을 구원하실 굳은 맹세를 다지시며 이 오가산령길을 넘으시였다고 감회깊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걸으신 천리길로정은 이 세상 력사에 그류레를 찾아볼수 없는 불멸의 로정이라고 강조하시였다. ...

《그때부터 오가산의 새 력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 그 옛날 원시림만 무성하고 사나운 산짐승들이 옥실거리던 오가산령, 화전민과 처서군의 탄식소리 구슬피 울리던 이 오가산령길에 행복의 노래소리가 울리고 온 나라의 마음들이 찾아오게 된것도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자욱우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충성과 효성의 자욱이 새겨진 때부터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오가산은 후대들에게 영원한 재부로 물려줄 자연보호구로, 천연원시림이 우거지고 온갖 동식물이 풍성히 자라는 1,700여정보의 대자연박물관으로 되였다.

어찌 그뿐이라.

《우리 오가산에서는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시기의 혁명적구호문헌들이 수집점이나 발굴되었습니다.》

전명훈동무는 혁명적구호문헌들을 발굴하던 때의 감동이 되살아나는듯 흥분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이 오가산에서 구호문헌을 처음으로 찾아냈을 때 우리는 모두 만세를 불렀습니다. 가림리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은 이 기쁜소식을 자기 농장사람들에게 알리려 30리길을 단숨에 뛰어갔지요. 참 그때일을 생각하면!...》

전명훈동무는 어떤 말도 적당치 않다는듯 머리를 흔들었다. 오가산에서 발굴된 혁명적구호문헌들은 참으로 격동적인것이였다.

《백두산 김대장은 조선의 항일명장 세계의 위인》

《백두산 너장수 조선의 항일너장군 왜놈군사처부신다》, 이처럼 오가산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를 높이 칭송한 구호문헌을 비롯하여 18개의 구호나무가 발견되었고 숙영지집자리에서 12종에 65점의 유물이 발견되였다.

오가산!

굽이굽이 령길을 걸을수록 이 길이 어떤 길인가를 잘 알아야 한다고 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이 심장깊이에 마디마디 새겨지는 오가산.

《백무의 천리길》, 《광복의 천리길》로정과 혁명적구호문헌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적으로 온 산이 그대로 혁명사적지를 이루고 천태만상의 동식물상으로 대자연박물관을 이루고있는 오가산!

오가산은 이 나라의 북부내륙지대의 산이지만 오늘에 와서는 온 나라 인민의 마음속에 자리잡고있다고 해야 할것이다.

볼수록 더 보고싶고 떠나고싶지 않은 오가산, 허나 다음의 로정이 우리를 재촉하고있었다. ...

래천호의 봄

김창규

하늘빛 가깝게 비껴서인가
무성한 푸른숲 비껴서인가
손잡그면 푸른 물이 들듯
푸르고 푸른 래천호

날새만 날아지나던 저 바위들에
화갈은 러객선 어깨를 겨루고
고기때 처절씩 꼬리치는데
귀기울이면 타빈의 동음소리 들리는듯

우리 수령님
불모의 골짜기로
속절없이 흐르던 강물에도
은정의 해발을 비쳐주시여
칠색무지개 너도 뿌리내렸느냐
그 은정이 목이 메여
힌구름 너도 호반을 못떠나느냐

둘러보면
기슭엔 온갖 꽃 피여...
기슭에 다가서면 고기때 마중오는데
아니보고 못떠날 충충기암들

끌리는 이 마음
기암에 울릴가
렬차같은 때목우에 실어나볼가
이 굽이 저 굽이 돌고돌아도
끝없이 펼쳐지는 신비경

지난날 불모의 험산에
온갖 꽃 피여 골벌떼 날아들고
그물에 한가득 고기풍년드니
래천호 너는 인민의 웃음을 한껏안은
사랑의 호수

네 자랑
은빛송전선이 전하고
네 노래
하늘땅이 맞붙은 황금물결이 부르리

네 조국은 그 어디를 가나
너처럼 행복이 꽃피나고
마을로 흐르는 젖줄기처럼
조국은 너의 호반에 사랑을 더해
행복만을 가득채워주느냐

《자본가들은 돈을 모으는 재미가 별재미라고 하지만 나한테는 동지를 모으는 재미가 최상의 락이고 재미였다. 동지 한명을 얻을 때의 희열을 어찌 황금덩이 하나를 얻을 때의 기쁨에 비길수 있겠는가. 동지를 얻기 위한 나의 투쟁은 이렇게 화성의속에서부터 첫 발자국을 떴었다. 그때부터 나는 한생을 동지를 얻는 일에 바치였다.》

김일성

명언해설

우리 당의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던 위대한 전환기,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기 위한 화성의속에서의 력사적인 나날에 대하여 회고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이 말씀에는 얼마나 심원한 뜻이 담겨져있는가.

동지를 모으는것이 최상의 락이고 한생을 동지를 얻는 일에 바치였다는 위대한 신념!

참으로 그것은 세계의 중심에 선 인간을 발견하시고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하는 인간의 지위와 역할을 완벽하게 밝힌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만이 밝히실수 있는 혁명의 진리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화성의속에서 늘 선진적인 서적을 탐독하시면서 뜻을 같이 하고 생사를 같이 할수 있다고 생각되는 대상들을 한사람, 한사람씩 만나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아무리 정당하고 훌륭한 목적을 가진 사람도 생사를 같이 할수 있는 동지들이 없다면 원대한 뜻을 이룰수 없다고 하신 김형직선생님의 말씀을 늘 명심하시였다.

조선혁명의 새 시원이 열리던 1920년대는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싸워온 인민대중의 간고한 투쟁력사에서 일찌기 볼수 없었던 새롭고 가장 높은수준에 이른 동지적관계가 이룩되고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동지애가 혁명의 대지에 튼튼히 뿌리내리기 시작한 영광의 년대였다.

혁명의 길에 손잡아 세워주시고 생사운명을 같이 할 가장 귀중한 혁명동지로 여기시고 끝없는 사랑과 믿음을 주신 위

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민족의 구성으로, 혁명의 태양으로 우리러모신 위대한 수령님께 자신의 운명과 혁명의 전도를 전적으로 의탁하고 깨끗한 충성의 한마음을 다바친 청년공산주의자들,

조선혁명의 앞길이 열리고 초석이 마련되던 이 영광의 년대에 위대한 수령님과 혁명전사들 사이에 맺어진 혁명동지의 한없는 사랑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동지로 뭉쳐 싸워온 로동계급의 투쟁력사에서 류례없는 고결한 사랑이었으며 집단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며 살아온 인류력사에서 참다운 인간관계의 절정을 이루는 숭고한 관계였다.

로동계급이 독자적인 사회정치적력량으로 력사무대에 등장한 그때로부터 동지라는 말은 사상과 견해, 립장이 같고 계급적처지와 투쟁목적에서 완전히 일치한 로동계급의 전위투사, 공산주의혁명가라는 새로운 뜻을 담고 긍지높이 울리게 되었다.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력사의 새 시대를 개척하여온 조선혁명!

천만의 심장이 하나로 고동치게 하고 천만의 대오를 하나의 기치밑에 불러세우는 혁명동지의 한없는 사랑,

그것이 없이는 결심품고나선 혁명의 길에서 살수도 싸울수도 없고 정치적생명을 빛내일수도 없는 혁명적동지애.

그것만 있으면 백만대군도 두렵지 않고 절해고도에 홀로 남아도 불사신처럼 단란을 이겨낼수 있으며 결전장에서, 교수대에서 혁명의 밝은 래일을 눈동자에 담은채 웃으며 갈수

있는 혁명가들의 고귀한 그 신념,

그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류례없이 간고한 항일의 나날에 우리혁명전사들에게 안겨주신 혁명적동지애였다.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를 수령으로 모신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안은 청년공산주의자들의 대오가 조선혁명의 첫 기슭을 떠나던 때로부터 반세기가 넘는 오랜 세월이 흘렀다.

이 길은 참으로 장구하고도 간고한 길이였으며 풍부한 경험과 업적, 사상정신적풍모 등 모든 령역에서 귀중한 혁명적재부가 마련된 영광에 찬 로정이었다.

일찌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혁명전사들의 심장깊이 심어주시였으며 혁명의 폭풍우를 헤치고 시련의 언덕을 넘어오는 나날에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량심과 의리, 지조의 대서사시를 엮게 한 이 동지애의 숭고한 정신은 오늘 우리 당에 의하여 조선혁명의 억년 변치 않을 전통으로, 시대적인 감정, 전인민적인 관계로 튼튼히 고수되고 끊임없이 확대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 그리고 우리 인민들이 동지적사랑이 흘러넘치는 하나의 혈맥으로 잇닿아있는 이 사상의지적이며 혈연적인 통일속에 바로 백전백승하는 강철의 당, 우리당의 불패의 힘이 있고 위대한 수령님을 어버이로 모시고 온 겨레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우리 사회의 무궁무진한 활력과 전도양양한 우리 혁명의 광명한 미래가 있다.

길들여진 호랑이

백두산말랭이에 올라서서 천하를 굽어보면 하늘의 천궁에 올라감이 별다른게 아니요 바로 백두산천지에 오름이 승천하는게 아닐가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

백두산말기에 몸을 가누며 한참 섰노라면 온갖 거룩한 환상과 신비감에 사로잡혀 더더욱 백두산을 우러러 몸과 마음을 끊이지 않을수 없게 한다.

백두산을 삼지연쪽에서가 아니라 멀리 에돌아서 북쪽에서 바라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호호망망 무연한 수림우에 우뚝 솟은 백두산은 마치 흰룡좌처럼 보인다고 한다.

그 말을 듣고나면 그 룡좌에 만리 푸른 대공을 배경으로 거연히 앉아 천하를 굽어보는 거인의 형상이 눈앞에 떠오른다.

정말 세상만물을 다 창조해냈다는 조물주가 앉았던 산이 아닐가! 그래서 백두산이 것처럼 신령스러운 산으로 된걸가?

해방전 사람들은 정말로 그 룡좌에 거인이 앉아서 천하의 만가지 일을 다 내려다보고있다고 믿고있었다.

일제의 강점하에서 초근목피로 끼니를 에우면서도 사람들은 가상적인 그 거인 의 존재를 기정사실화했고 거인에 대한 분분한 이야기로 긴밤을 보내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마침내 언제부터인가는 그 거인이 다름아닌 백두산대장수 **김일성** 장군님이시라는데 생각을 모으게 되었다고 한다.

즉 오래전부터 백두산 대장수님께서서는 조선땅에서 감행하는 왜놈들의 꼴스런 지랄에 천벌을 예고하며 이 룡좌에 앉아 기회를 버리고계셨다는 것이었다.

어느날 백두산의 거인 **김일성** 장군님께서서는 룡좌에 앉으시여 왜놈들과 싸우던 독립군들이 모두 포위에 들어 전멸할 위험에 처하게 된것을 내려다보시게 되자 더는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시여 번개창을 틀어진 수만의 천병을 거느리시고 백두산을 내리시었다는것이다.

그때에는 안개가 자오록이 끼여 누구도 그 광경을 보지는 못하고 다만 쿵쿵하는 퇴성소리만을 들었을뿐인데 그것은 마치 전설에 나오는 천제환인의 아들 환웅이 지상에 래도하는 행차소리보다 더요란했다는것이다.

상술한것에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가 하나 전해오는데 그것은 장군님께서 백두산에 척 걸터앉아 계시자 산의 신령이라고 하면서 위세를 돋구던 호랑이가 갑자기 양처럼 순하게 길들여졌다는 이야기이다.

어느날 장군님께서서는 부하 한명을 거느리시고

《일행천리》, 《야행천리》술법을 쓰시여 2천리 장 백산을 하루낮과 밤사이에 날아지나 다음날 한낮때쯤에는 백두산마루에 오르셨다.

룡결이라고 부르는 장군님의 부하는 난생처음 보는 백두산의 여름이 펼쳐놓은 황홀경에 온 정신을 빼앗겨 모든것을 감감 잊은채 사방을 두릿거렸다.

원래 그는 장군님의 부하로 들어오기전에 황해도 재령벌래생으로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으니 기껏 주변의 야산들을 돌아보았을뿐이었다.

더구나 산우에 큰 호수가 있고 그 호반에 만병초며 담자리참꽃, 금매화들이 꽃잔단을 펴놓은것처럼 피어난 백두산의 이런 절경은 난생처음 감취하는터였다.

하얀 눈을 점점이 노란빛으로 물들이며 방긋방긋 웃는 만병초며 해빛에 물들어 보라빛으로도 감빛으로도 보이는 양떼같이 금실금실 흐르는 부드러운 안개며 수리날 발돋움하며 올라자너머 밖을 내다보는 아씨같이 커다란 바위돌우로 물줄기들이 솟구쳤다 꺼지군하는 갈혈천이며 미처 이름도 모를 산새들의 온갖 노래소리...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에 옷깃을 날리며 기분이 뚝뚝 여기저기의 꽃을 꺾기도 하고 눈을 한웅큼 쥐어서는 달아오른 얼굴을 문다지기도 하는 룡결이를 장군님께서서는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었다.

룡결이는 동심세계로 되돌아간듯 연해연방 《야! -야!-》 하며 탄성을 질렀다.

그 소리에 놀라서인지 떨기나무숲속에서 부시락거리던 작은 짐승이 요리조리 내빼는것이 보였다.

자세히 보니 산토끼였다.

재빛의 산토끼를 보게 되자 룡결은 이번엔 자기가 달속의 계수나무동산에 올라온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정말 별천지요 지상의 황홀경이었다. 주단처럼 흰눈우에 펼쳐진 호함진 꽃의 동산이였고 아름다운 꽃잎과 푸른 잎새들이 조화를 이루며 흐트러진 풍만한 빛의 눈부신 세계였다. 사계절이 자기의 재간을 뽐내며 가꾼 산상이였고 하늘과 땅도 자기의 권세와 힘으로 차지하지 못한 금단의 성스러운 명마루였다.

산토끼가 달아나 숨은 산비탈 저아래로는 사슴이며 노루떼가 꾸역꾸역 몰려드는것이 보였다.

오월의 눈얼음도 활고 내물도 마시며 다가오는 사슴떼들을 바라보던 룡결은 이상한 예감에 번쩍 정신을 차렸다. 갑자기 마술에라도 걸린듯 돌조각처럼 굳어져 산정을 응시하고있는 짐승들의 겁기어린 눈길에서 미상불 룡결은 무슨 예감이 들

어 뒤로 몸을 돌려 산마루를 바라보았다.

순간 그는 전율했다.

저도 모르게 악! 소리쳤다. 소리가 입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누가 뒤에서 우악스런 손으로 그의 입을 틀어막은것처럼 신음소리조차 낼수 없었다. 그자신이 굳어진채로 바라보고만 있었다,

볼수록 가슴을 옥죄이는 놀라운 광경이었다.

황소만한 호랑이가 새끼 한마리를 데리고 장군님께서 앉아 땀을 들이시는 왼쪽후면으로 어슬렁 어슬렁 다가가고있지 않는가. 더욱 놀라운것은 장군님의 무릎에 고양이만한 새끼호랑이 한마리가 안겨져있는것이였다.

보내 어미호랑이는 새끼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다가 장군님의 품에 안겨져있는 자기 새끼를 발견한 모양이였다.

그놈은 짐짓 오만상을 찡그리며 성난듯 그러면서도 조심스럽게 한걸음, 한걸음 다가갔다.

거리는 점점 좁혀졌다. 선보, 아니 열댓보가량으로 각일각 줄어졌다. 그러나 장군님께서서는 아무기척도 느끼지 못하신듯 여전히 호랑이새끼를 무릎위에 올려놓고 두 앞다리를 마주쳐 짹짹도 치게 하시고 혹은 자신의 옆에 나란히 앉히기도 하시며 애무해주고계시였다.

언뜻 보면 어느 화창한 봄날, 햇빛넘치는 토방에 앉아 고양이를 놀리는것처럼 께 목가적이고도 평화로운 광경이였다.

어미호랑이는 꼭뒤까지 성이 치미는지 시뻘건 혀로 이발을 문다지며 덮칠듯한 자세로 서있었다. 어룡어룡하게 간 검은줄무늬들과 몇백년 묵은 구렁이처럼 굵직한 꼬리로 하여 그놈은 퍼그나 위엄스러워보였다.

룡결은 눈앞에 벌어진 일이 너무도 엄청난것이여서 감히 소리도 치지 못하고 오히려 매복전에서처럼 뿔은 숨을 죽여가며 어깨에서 총을 벗어 들고 그놈을 겨냥하였다.

그러면서 장군님께 이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작은 기침소리를 냈다.

문득 장군님께서서는 새끼호랑이에게서 눈길을 떼시고 말뚝처럼 서있는 룡결이에게 시선을 주시였다.

룡결의 땀이 내뻘 얼굴에서 그 어떤 심각한 사연을 읽으신 장군님께서서는 무중 시선을 옆으로 돌리시였다.

순간 장군님의 시선과 부딪친 호랑이의 두눈에선 번쩍 섬광이 이는듯했다.

이어서 《따웅!-》 하고 산을 깨치듯 요란한 부르짖음소리가 들려왔다.

하나 그것은 경악의 부르짖음이었다.

장군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정면으로 마주하게되자 그이의 호협한 기상에 호랑이는 움찔을 못하고 벌린 입도 다물지 못한채 그런듯 그자리에 머리숙이고 서있었다.

마치 웅당한 꾸중을 듣는 아이처럼 몽롱한 두

앞발을 모아붙이고 대가리를 조아리였다.

장군님 품에 안겼던 새끼호랑이가 어미를 따라온 자기 형제의 대가리를 앞발로 툭 치더니 만나서 기쁘다는듯 서로 이발과 이발을 마주치며 노는 모양이 퍼그나 앙증스러웠다.

장군님께서서는 호랑이새끼 두마리를 각각 한팔에 안으시고 우는 애를 달래듯 흔들어주시였다.

그 모습을 띄여보며 어미호랑이는 계속 머리를 깃수긋한채 장군님에게로 한치한치 다가갔다.

저도 아마 그런 애무를 받고싶은 모양이였다.

하나 만일 영문을 모르는 사람이 이것을 보았다면 아마 호랑이와 사람이 서로 옥버르며 기회를 탐내는것 같이 볼것이다.

룡결이가 그러했다. 그는 긴장한채로 절걱 총에 장탄을 했다. 그리고는 소리쳤다.

《장군님!》

룡결은 술진 눈섭으로 하여 더욱 이글거려보이는 두눈을 똑바로 부릅뜨고 호랑이에게로 접근해갔다.

그 모양을 바라보시던 장군님께서서는 웃음을 못 참으시겠는지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시여 《하하하》 하고 호탕한 웃음을 터뜨리시였다.

그 웃음소리는 온 산판을 찌렁찌렁 울리였다.

부쩍부쩍 산은 하늘높이 키를 솟구고 숲도 와-와- 하고 장군님의 웃음소리에 맞춰 설레이며 우썩우썩 일어나는것 같았다.

《룡결동무, 총을 내리고 어서 올라오시오. 하하하.》

룡결은 태연하신 장군님의 말씀에 어느정도 마음이 놓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사람을 몰라보는 무지한 산짐승이 어떤 거치른 행동을 하거나 않을가하여 경계의 빛을 지우지 않은채 그이가 계시는곳으로 올라왔다.

하나 룡결의 걱정은 괜한것이였다. 어미호랑이는 장군님의 폭소에 귀가 뻗는지 아니면 얼이 빠져버렸는지 두눈을 꼭 감고 부동의 자세로 서서 도적숨을 들이쉬고있었다.

룡결이는 호랑이와 맞다는 사람의 놀란 표정은 여러번 목격하였지만 그토록 사나운 짐승을 손 한번 대지 않고 큰소리도 침이 없이 꼼짝 못하게 하는것을 보기는 이번이 처음이였다.

자세히 보니 갓누른 금종이에 먹물을 묻힌 큼직한 대북으로 휘갈겨쓰듯 번듯한 이마에 새겨진 임금왕(王)자는 산중대왕다운 위엄과 기상이 맥맥히 넘쳐흐르게 하였다.

장군님께서서는 호랑이의 이마며 목덜미며 훌쩍 꺼진 배허벅을 부드러이 내리끌어주시였다.

그러자 호랑이의 온몸은 황금빛 윤기로 더욱 빛났고 몸매도 더욱 날렵해보였으며 앙권 발톱 또한 산을 동강내는 네개의 방망이처럼 서슬푸르렀다.

《호랑아! 이젠 어서 새끼를 데리고 가거라.》

장군님의 이 말씀에 호랑이는 머리를 끄덕였

다.

흡사 선생의 말을 알아들은 총명한 제자와도 같았다.

어미호랑이는 새끼들을 량옆에 나란히 데리고 산을 내렸다. 몇번이고 뒤를 돌아보는것을 보면 마치도 부모의 슬하를 떠나기 싫어하는 자식같이도 보였고 네죽지를 펴고 천방지축 산발을 타고 날아넘으며 《파웅!》하는것을 보면 마치도 지상에 권선징악을 이룩하고자 령을 받고 내려가는 전국의 사자인듯도 했다.

저 멀리 산발너머로 가뭇 호랑이들은 사라져버렸다.

《히야-》

룡결은 장군님을 우러러보았다.

조종의 성스러운 령봉인 백두산은 옷자락을 기 폭처럼 휘날리시며 거연히 서계시는 장군님의 모습과 너무나도 자벌하게 어울렸다.

그후에도 룡결은 장군님의 호위병으로서 늘 그 이와 함께 다녔다.

그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백두산정에서 산중의 왕인 호랑이를 별별 떼게 하시고 용악스런 맹수를 집짐승처럼 순하게 길들이시는 장군님에 대한 이야기를 즐겨하곤하였다.

그는 들려주기만 한것이 아니라 자기의 청중들로부터 길들여진 호랑이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다.

그중엔 공작원의 뒤를 따라 몰래 근거리로 기여들려고 하던 밀정을 호랑이가 불쑥 나타나 물어갔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정신을 잃고 쓰러진 유격대원을 호랑이가 꼬리에 물을 묻혀가지고와서 그것으로 이마를 쓸어주어 깨워주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또 다른 이야기들은 유격대원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이따금씩 죽은 메돼지와 노루를 비롯한 산짐승들이 놓여지곤했는데 그 소행의 임자가 바로 호랑이라는것이였다.

길들여진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는 백두산부근에서뿐아니라 수백리나 실히 떨어져있는 로혹산과 액목, 산동툰에서도 많이 창조되어 전해졌다.

로혹산부근의 인민들속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다.

로혹산에는 예로부터 호랑이들이 많았는데 그 호랑이들은 사납고 포악하기로 유명하였다고 한다.

그래 부근마을들에서는 호환이 심하여 그 피해를 막심하였다.

왜놈들과 지주, 토호놈들의 학정에 못이겨 쫓겨 들어온 가난한 이곳 산골마을사람들은 설상가상으로 호환마저 겹치다보니 살림형편은 가물에 수수잎 마르듯 쪼여만 갔고 가슴속엔 까만 재만이 가득차다고 한다.

집안의 큰 재산인 돼지와 양을 물어가는가 하면 사람들에게까지 달려들어 피해를 입히니 호랑이에 대한 원한과 공포는 하늘에 닿았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겼다.

로혹산의 사나운 호랑이들이 착하게 길들여진 것이였다.

이런 말이 처음 나돌게 된것은 로혹산부근의 어느 한 마을에 들이닥쳐 갓은 악한짓을 다하던 왜놈들이 봉변을 당한후부터라고 한다.

왜놈들은 유격대를 《토벌》한다고 마을에 틀고 앉아서 농가의 개와 돼지, 지어는 목숨처럼 여기는 소까지 잡아먹고 재산을 약탈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그래서 마을사람들은 그놈들을 두고 《개토벌대》, 《돼지토벌대》라고 욕을 하며 물러가길 바랬으나 좀처럼 떠날 심사가 아니였다.

그런데 어느날밤 왜놈들의 천막이 갈가마귀 끓듯 법석하더니 아직 채 날도 밝지 않았는데 후줄근해서 모두 줄레줄레 꿈무늬를 빼는것이였다.

후에 알고보니 그날밤 갑자기 호랑이떼가 왜놈들에게 달려들어 《토벌》대장을 비롯한 악질적인 놈들만 열댓놈 물어갔다는것이였다.

그리고 언젠가 한번은 로혹산주변을 개싸다니듯하던 《정안군》놈들이 수림속을 지나다가 되게 혼쭐이 났다고 한다.

이놈들은 붉은 천에 《정안군》이라고 쓴 완장을 왼팔에 두르고 다녔는데 숲에 들어서자마자 어디 서인지 호랑이가 나타나 장교든 졸병이든 가리지 않고 왜놈이라고 생긴 놈들만 골라 물어갔다는것이다.

당시 피뢰 《만주국》의 직속부대이며 위만군가운데서도 가장 악질적인 부대인 이 《정안군》내에는 일본놈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

그래서 《정안군》놈들은 저들이 호환을 입는게 일본놈들때문이라고 하면서 어디로 가든 왜놈들과 함께 다니는것을 매우 꺼리였다.

더우기는 숲속을 걸어가며 그놈들과 말하는것을 제일 싫어했다고 한다.

어떤 경우에는 로골적으로 질시하며 일본사람들은 저들의 《천황폐하》를 위해서보다도 호랑이 밥이되는것을 더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조선과 만주로 건너온 작자들이라고 야유까지 하였다고 한다.

하여튼간에 인민들이 제일 미워하는놈들만 마대안의 썩은 감자 속아내듯 꼭꼭 골라가며 물어가니 모두들 이것은 김일성장군님께서 호랑이들을 왜놈을 미워하게 길들이시여 온 천하에 놓아보내신것이라고 하면서 매우 통쾌해하였다고 한다.

김우경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헌시

양리 아뎡더우

백두산에 메아리치는 그 이름 **김정일**
세계만방에 높이 올리는 그 이름
그이는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탁월한
령도자
조선청년들의 영명하신 스승이시여라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시는 그이
더좋은 미래를 안아오시려는 그이의 위업
불멸하여라
평화를 위하여 싸우는 세계청년들
그이의 사상 따라배우고
그이따라 확신성있게 나아가거니
경애하는 수령님의 주체위업을 빛나게 이어
가시는 **김정일**동지

그이는 조선의 태양이시여라

세계의 각광을 받으시는 그이
그 무엇도 그이의 숭고한 위업 가로막지 못하리

그이는 창조의 영재
견결한 평화투사
어린이들의 자애로운 아버지
새 세대들은 그이의 위대한 사상만을 따라
배우리
영원히 빛나는 태양따라 나아가리
(필자는 베닌 문화, 청년 및 체육성 청년
문화회관 관장임)

사회주의 본보기나라

힐베르도 싸빠따 이싸사

세기의 년대를 넘으며
인류가 바라던 참된 삶
그 삶을 지켜
수많은 사람들
목숨도 청춘도 서슴없이 바쳤어라

우리는 보았노라
조선에서 참된 삶이 꽃피고있음을!
모든것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며
어린이들은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려 누리는 삶을!

누구나 일자리걱정 먹을걱정 모르고
부패와 타락 범죄가 없는 나라
날에 날마다 창조와 건설의 마치소리
높이 울리고
젊음과 기백이 약동하는 나라!

모두가 뜨거운 조국애와
참된 삶에 대한 긍지
래일에 대한 희망과 낙관에 넘쳐
향토성따라 힘차게 나아간다

아! 여기가 바로 진정한 사회주의
그처럼 모대기고 찾고 바라던
참된 삶이 꽃피는
주체의 나라 조선이이라

그렇다!
조선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본보기나라!
모두가 서로 돕고 이끌며
행복을 창조해나가는
사회주의대가정이여라

(필자는 조선통일지지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지역위원회 서기장임)

《우리의 문학예술은 시대와 함께 전진하는 혁명적문학예술로 되어야 하며 현실보다 앞서나가면서 대중을 혁명과 건설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당의 위력한 사상적무기로 되어야 합니다.》

김정일

위대한 업적

은혜로운 생명수

1978년도 다 저물어가는 12월말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전국 작가들의 강습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하루강습을 마친 작가들이서관에 돌아와 자리에 누우려고 할 때였다.

당중앙위원회 한 일군이서관으로 달려와 작가들에게 감격적인 소식을 전하였다.

그 일군은 옷매무시를 바로 하더니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장편소설 《생명수》를 친히 읽어주시고 높은 치하의 말씀을 주시었다고 말하였다.

뜻밖의 소식에 접한 작가들은 격동되는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 그 장편소설을 쓴 작가는 너무도 큰 충격에 한순간 심장이 다 멎는듯하였다.

잠시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하신 말씀이 전달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장편소설 《생명수》는 청년들에 대한 계급교양과 사회주의 애국주의교양에 좋은 책이라고 하시면서 이 소설은 전후시기 우리 인민들이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어지돈관개공사를 다그치는데 대하여 형상한 아주 좋은 소설이라고 하시었다. 그러시고 수령님께서 장편소설 《생명수》에는 당시의 심각한 계급투쟁과 오랜 인테리를 쟁취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문제들이 잘 반영되었다고 교시하시었다고 말씀하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좋은 작품을 써서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린 작가를 평가해줄데 대한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베풀어주시었다.

작가는 모든것이 꿈만같았다.

참으로 한가슴에 받아안기에

는 너무도 벅찬 영광이며 행복이었다.

장편소설 《생명수》가 세상에 나올수있게 된것은 전적으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주체적인 문예리론으로 창작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따랐이 이끌어주신 결과가 아니였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이께서는 이모든 성과를 고스란히 작가에게 안겨주시고 위대한 수령님께 그 책을 삼가올리시여 이처럼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지닐수 있도록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는것이였다.

작가는 온밤 끓어오르는 격정을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생명수》의 창작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았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장편소설 《생명수》를 창작하기 시작한것은 그때로부터 10여년전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1969년 12월 5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청소년들을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을 가지고 널리 교양할데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작품의 소재들까지 환히 밝혀주시었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난날 물이 없어 눈에 눈석임물과 비물을 받아넣고 농사를 짓고 물이 고여있는 동안에는 큰 벌판에 물이 차서 사람들이 장보러 갈때에도 합지를 타고 다녔고 학생들이 학교에도 합지를 타고 다니던 그곳 사람들이 오늘을 어지돈관개의 덕분으로 고생을 하지않고 농사를 지어 잘살수 있게 되었다고 가르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작가를 무한히 흥분시켰으며 창작으로 힘있게 추동하였다.

봉산벌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은혜로운 사랑의 력사를 온 세상에 소리높이 전해야겠다는 창작적결의로 작가의 심장은 고동쳤다.

하지만 창작은 그의 생각과 달랐다. 작가가 몇해를 두고 고심하던끝에 겨우 써놓은 《생명수》의 초고는 심중한 결함으로 하여 읽는 사람들을 몹시 실망케 하였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생산기술적문제에 파묻혀 인간들이 살아나지 못했다.》, 《사회주의건설을 취급한 선행한 작품들의 류형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소설이 《재미없다》고 하였다.

초고가 이렇게 되자 누구나 소설의 운명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시하지않을수 없었다.

번민과 모대김으로 달이 가고 해가 바뀌는 가운데 작가의 가슴은 생명수를 기다리는 메마른 땅처럼 갈라터지는듯하였다.

바로 이런 때 작가의 타들어가는 가슴에 열정과 탐구의 생명수를 부어주신분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시였다.

작가는 1972년 9월초에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를 모시고 진행된 어느 한 회의에서 종자에 관한 그이의 독창적인 리론을 받아안게 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최근에 나오는 소설들과 시들을 보면 작품에 이야기거리리는 있는것 같은데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지 못하고있는것은 다 종자를 바로 선택하여 쥐지 못하였기때문이라고 하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은 작가의 캄캄한 앞길에 밝은 향로를 비쳐준 등대였으며 타드는 가슴에 활력을 부어준 생명수였다.

소설의 초고가 가지고있는 기본결함이 바로 작품의 핵을

이루는 종자를 옮겨 심지 못한 데 있었다.

순간 작가의 눈앞에는 전후의 그날 봉산벌 백성보를 거쳐 청계골 막바지에까지 찾아오시여 어지돈관개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이 우렁이 안겨왔고 푸른 물결 넘실넘실 파도치는 서호호가 펼쳐졌다.

그다음은 어제날 봉산벌농민들의 가공한 정상이 떠올랐다.

조금만 비가 와도 온 벌이 물에 잠겨 옆집에 다니는것조차 합지를 타고다니야 하고 홍수가 나면 구들에 차오르는 물을 피하여 지붕에 올라가 풍로에 끼니를 굶어먹어야 했으며 그러다가 한밤중에 집이 무너지면 억울하게 목숨을 잃던 봉산벌사람들, 논판의 고지랑물을 먹고 토질병에 걸려 병신이 되거나 한생을 병고속에 시달리다가 한많은 세상을 등진 사람들, 왕가물이 들 때면 백성보의 물을 두고 동척(일제의《동양척식회사》)놈들과 물싸움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

작가의 눈앞에는 차마 눈뜨고 볼수없는 가슴아픈 어제날의 봉산벌이 흘러갔다.

봉산벌농민들의 물에 대한 소원을 누구보다 깊이 헤아려 보신분은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하기에 수령님께서 황금으로 언제를 쌓는 한이 있더라도 하루빨리 봉산벌농민들에게 생명수를 보내주어 그들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주자고 힘있게 선언하시였다.

작가는 격동된 심정을 안고 혼자 부르짖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가르치신 종자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장편소설 《생명수》는 하늘도 임금도 주지 못한 생명수를 봉산벌사람들에게주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사랑의 서사시로 되어야 한다.

종자를 찾아낸 작가의 머리속에는 벌써 종자를 형상으로 꽃피우기 위한 등장인물들과 구성체계, 장면들까지 환히 떠

올랐다.

작가는 새로운 환희를 안고 막혔던 물목이 터지듯 단숨에 소설을 써나갔다.

1977년 여름 장편소설 《생명수》의 초판이 나왔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당과 국가 사업으로 것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친히 초판을 보아주시고 작품을 완성하기 위한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작품전반에서 설명적인 요소들을 대담하게 버리며 형상의 밀도를 강화하고 집중시킴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감동적으로 그릴수 있는 원칙적인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은 문학작품에서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감동적으로 그릴수 있게 하는 새로운 방도를 밝혀준것으로서 작품의 사상에술적길을 더욱 높일수 있게 하는 강령적지침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또한 주인공의 형상을 높이기 위하여 봉산벌농민들이 홍수때문에 겪는 비참한 운명을 주인공의 운명선과 련관시켜 보여주는 장면들을 설정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작가는 그때 초판에서 농민들의 물에 대한 갈망을 일면적으로 강조하려고 한데로부터 홍수와 같이 물이 많다는 인상을 주는 장면을 화폭으로 주는 것을 극력 피했던것이다.

그러다나니 물가난에 못지않게 홍수가 빚어낸 봉산벌 수중촌사람들의 비참한 생활전경을 예술적화폭으로 깊이있게 보여줄수 없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세심한 가르치심을 받고 작가는 대성이의 누이동생 순실을 설정한데 이어 그들 노누이가 큰물이 났을 때 봉숙이네 집에서 합지배를 타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다가 합지배가 뒤집혀 순실이가 빠지는 장면을 새로 보충하여넣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작품의 종자에 담겨져있는 문제의 절박성과 심오성을 더욱 부각하고

그것을 실현해나가는 주인공의 열렬한 사상적지향과 그 성격의 생활적바탕을 보다 더 뚜렷하게 보여줄수 있게 되었던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밖에도 주인공의 형상을 높일수 있는 여러가지 요소들에 대하여 세심히 밝혀주심으로써 장편소설 《생명수》의 초판이 가지고있는 결함과 부족점들을 철저히 극복해나가게 하시였다.

소설의 초판에는 주인공 박대성이 언제건설장에서 달아난 남성우를 데리러 그의 집으로 찾아갔을 때 그를 설복교양하는것으로만 그려져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소설초판을 보시고 남성우의 준비정도로 보아 원칙적인 비판을 주어 그가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도록 형상대안을 세워주심으로써 주인공의 품격을 더욱 높일수 있도록 하여주시였다.

이렇듯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세심한 지도가 계시였기에 장편소설 《생명수》는 시대의 명작으로 태어날수 있었다.

그런데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장편소설 《생명수》가 완성된 다음 위대한 수령님께 올려 높은 평가를 받도록 하여주시고 그후에도 청년들이 이 소설을 다 보도록 책의 부수도 늘여주시고 신문과 방송에도 내보내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을뿐아니라 작가에게 대를 두고 길이 전할 귀중한 사랑의 선물까지 안겨주시였다.

사람들은 메마른 땅을 적서주는 물을 생명수라고 한다.

그것은 물이 없이는 모든 생물이 살아갈수 없기때문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작가들에게 베풀어주신 한량없는 사랑과 세심한 지도는 만물을 소생시키는 생명수처럼 힘을 주고 지혜를 주고 열정을 주는 은혜로운 생명수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부여하시는 은혜로운 생명수를 자양으로 하기에 소설문학은 더욱 찬란히 꽃피고있는것이다.

세번째 위인을 맞다

걸음마를 떼면서부터 아버지, 어머니의 뒤를 쫓는 송아지처럼 졸졸 따라다니던 문호는 여덟 살잡히던 해에 인민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남달리 머리가 총명하고 탐구심이 강했던 문호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알았고 둘을 알려주면 셋을 이해하여 인민학교 1학년에 벌써 2학년 교재를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하였다. 그리하여 문호는 학교적으로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생으로 평가되었으며 날마다 칭찬받는 재미에 더더욱 열성을 내었다.

그의 배움의 나날은 미국놈들이 일으킨 전쟁으로 잠시 중단되게 되었다.

그래서 문호는 하는수 없이 집에서 혼자 공부도 하고 또 부모님들의 일손을 돕기도 하였다.

하지만 미국놈의 비행기성화에 거의 집안에 들어박혀있었고 밖에 나와서는 버릇처럼 하늘만 쳐다보았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산골에서는 물론 강계에 나가서도 본적이 없는 승용차 한대가 집앞에 와뒀더니 두세명의 군관들이 내려 아버지와 몇마디 말을 주고받은 다음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만나고서는 인차 돌아가는 것이었다. 이런 일이 있던 다음날 저녁에는 여러대의 승용차가 집앞에 와 뒀어서더니 문호또래의 아이들과 함께 여러 사람들이 마당으로 들어섰다.

문호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서둘러 문을 열고 마중하자 류달리 영특하게 생긴 한 소년이 성큼 앞으로 나서며 남뉘는 인사를 하였다.

다부진 몸매에 새털처럼 빛나는 안광, 온 트락이 환해지는 밝은 미소, 정말 첫눈에 벌써 남다른 느낌이 드는 인상이었다.

그 소년이 인사를 하자 다른 학생들도 뒤따라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적적하여 오금이 쭈서나던 문호는 갑자기 제포레 동무들이 많이 생겨 몹시 기뻐했다.

문호는 날이 밝자마자 밖으로 뛰어나갔다.

어제 저녁에 볼 때는 미처 몰랐었는데 아침에 보니 승용차들은 금시 물에서 건져낸것처럼 반들 반들한게 자기 얼굴이 거울보다 더 잘 비치는 것이었다.

호기심이 잔뜩 동한 문호는 저도 모르게 한걸음두걸음 다가가서 조심히 만져보다가 성차지 않아 차안에 들어가보려고 문손잡이를 잡고 무작정 당기려 할 때였다.

언제 일어났는지 어제 저녁에 류다른 인상을 주던 그 소년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아침운동

을 하다가 문호에게로 다가왔다.

문호는 못할것을 하다 들킨것처럼 얼굴이 빨개져 황급히 뒤로 물러났다.

그러자 그 소년은 너그러운 웃음을 지으며

《이런 차를 처음 보지? 자 우리 함께 타보자.》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다정했던지 대번에 마음이 끌린 문호는 신발을 벗고 차에 오르려고 하였다.

이때도 그 소년은 가볍게 웃으며 신을 신고 타고 된다고 하였다.

멋적은 생각이 들어 빙그레 웃고난 문호는 더 수기를 굽으며 차에 올랐다.

차에 올라 의자에 앉으니 온몸이 폭 빠지는게 정말 할머니가 아침마다 이불을 겹 때 그우에 올라타고 《말타기》놀음을 하던것보다 더 좋았다.

이것저것 만져보면서 기뻐 어쩔줄 모르는 문호를 만족스럽게 바라보던 그 소년은 다정히 문호의 손을 잡으며 이제 전쟁이 끝나면 평양에 가서 이런 차를 실컷 타자고 정겹게 말하였다.

바로 이때였다.

저 멀리에서 우렁우렁하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이어 시커먼 미국놈의 비행기들이 나타났다.

문호가 무서워서 차에서 바빠 내리려는데 그 소년은 한참동안 비행기를 노려보다가 침착하게 말하였다.

《집내지 말어. 저 미국놈의 비행기가 여기는 폭격 못해. 어제까지는 했어도 오늘부터는 어렵잖아.》

차에서 내려 집으로 뛰어들어온 문호는 문에 붙은 조그만 창경으로 밖을 주시하였다.

그런데 그 학생은 조금도 서두르지 않고 차에서 내리더니 피하기는커녕 손채양을 하고 달려드는 미국놈들의 비행기를 쏘아보는 것이었다.

눈에서는 불이 필필 이는것 같았다.

(저러다가 기총사격을 하면 어쩔려고? ...)

문호가 속이 한줄만해서 하늘을 울려다볼 때였다.

갑자기 산봉우리쪽에서 짙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골짜기입구를 꽉 막았다.

그러자 제세상처럼 날아오던 선두비행기가 기겁하여 갈팡질팡하더니 황급히 기수를 돌려 꿈무니를 빼는 것이었다.

뒤따르던 비행기도 폭탄을 되는데로 집어던지고는 서둘러 뺄소니를 쳤다.

전에는 산기슭에서 풀을 뜯고있는 황소 한마리를 보고도 검질기게 달라붙곤하던 악착스런 비행기들이었는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저놈의 비행기들이 왜 도망쳤을가?)
머리를 기웃거리며 밖으로 나온 문호는 그 소년에게로 다가갔다.

그제서야 도망치는 미국놈의 비행기들에서 눈길을 돌린 그 소년은 결연히 말하였다.

《갑쟁이같은것들, 다시 기여들었다봐라.》

(아니, 그러면 그놈의 비행기들이 저 소년이 무서워 꿈무늬를 뺏단말인가?)

문호의 의문은 다음날부터 완전히 없어졌다.

한것은 그 소년의 말대로 그 다음날부터는 미국놈의 비행기들이 얼씬도 못하였기때문이었다.

(야, 정말 미국놈의 비행기들이 그 눈길을 보고 도망쳤구나.)

큰것을 발견한 문호는 그달음으로 마을아이들에게 달려가 그날에 보고들은 이야기를 신이 나서 해주었다.

그때부터 문호네 동네아이들은 저도 모르게 그 소년을 《우리 대장》이라 부르며 군사놀이를 하였고 선생님처럼 따라다니며 재미나는 이야기도 듣고 공부도 배웠다.

아이들만이 아니었다.

문호가 보기에도 세상리치에 밝고 무슨 일에서나 막히는것이 없는 그 소년을 자기 아버지, 어머니뿐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도 남다르게 대하는것이 눈에 알렸다.

날이 갈수록 문호의 머리속에는 과연 저 소년이 누구일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 그에게 직접 물어보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그는 빙그레 웃기만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문호는 비로소 그 소년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다.

문호가 아버지를 도와 당콩을 따고있을 때였다. 마가울 피약벌에 바짝 마른 당콩고투리는 여문 당콩알을 뺏아놓곤하였다.

아버지는 장대우에 높이 달린 당콩을 따고 문호는 그밑에서 주어모으는데

《수고하십니다.》하며 《우리 대장》이 다가와 인사를 하는것이였다.

아버지는 《아, 여길 다 어떻게 나오셨습니까?》하며 반가와 어쩔줄을 몰라하였다.

《우리 대장》은 자기도 좀 해보자고 하면서 들쭉에 박힌 당콩알을 한알두알 주어모으기 시작하였다. 당황한 아버지는 이제는 다 했으니 그만두시라고 하면서 문호더러 빨리 거두어가지고 가라고 재촉하였다.

그러나 《우리 대장》은 아직도 많다고 하면서 들각달쭉새기에 떨어진 마지막 한알까지 말끔히 주어내는것이였다. 이것을 본 아버지는 《우리 대장》에게 다가가서 그까짓 한두알 흘리면 뭐라는가고 어서 그만두시라고 재삼 만류하였다.

그러자 《우리 대장》은 허리를 펴더니 당콩알을 쥐었던 손을 펴보이시였다.

《아닙니다. 한알이 있어야 두알이 있고 그것이 여러알 모여서 한줌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를 작게 생각하면 큰것을 버리게 됩니다.》라고 하면서 쥐고있던 당콩을 그릇에 담은것이였다.

너무나도 큰뜻이 담긴 그 말에 한동안 어리둥절하였던 아버지의 눈에는 감동의 빛이 어렸다.

그날저녁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아버지는 어린 문호를 불러앉히였다.

《문호야, 내 한생 농사를 지으면서 한알이 그렇게 귀중한줄을 다는 몰랐구나. 아무렴, 모든 농사는 한알로부터 시작되구말구. 과시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슬기를 이으신분이 다르긴 다르구나. 문호야, 그분이 바로 하늘에서 우리 집에 세번째로 내려오신 위인이시란다.》

(아, 그랬었구나. 그런데 나는 왜 하늘에서 내려오신 위인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문호는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만족스런 눈길로 문호를 바라보던 아버지는 어느때없이 감심어린 표정을 지으며 자랑에 넘쳐 말하였다.

《문호야! 명심해들거라. 우리 가문은 3대를 내려오면서 이 집에서 김형직선생님과 백두산녀장수님을 맞이했구 이번에 또 세번째 위인을 맞이하는 영광을 지녔구나.》

너의 증조할아버지가 하늘의 계시를 받았은즉 이분들은 하늘이 낸 위인들이 분명하구나.》

어린 문호의 가슴은 이름할수 없는 격정으로 세차게 끓어번졌다.

3대를 이어가며 《위인들을 맞이한 집》 손자답게 《우리 대장》을 잘 모시리라는 결심이 문호의 가슴속에 넘쳐났다.

아버지도 문호의 결심을 알아차렸는지 그를 가슴에 꼭 껴안아주며 말하였다.

《문호야, 아버지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님이 충정의 마음을 가지고 이 집에서 하늘이 내린 이 나라 위인들을 맞이한것처럼 너도 위대한 장군님과 《우리 대장》을 더 잘 받들어모시고 충성을 다해야 한다. 그게 바로 하늘의 뜻이고 만백성의 뜻이란다.》

문호의 가슴에는 조상의 뜻, 만민의 뜻대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더 잘 받들어가리라는 결심이 더욱 굳게 다져졌다.

오늘도 설매골에는 《하늘의 계시를 받은 집》이 그대로 보존되어있어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민족수난의 시기 우리 인민이 얼마나 나라를 구하고 만백성을 안아줄 위인을 목마르게 기다려왔는가를 가슴뜨겁게 느끼게 한다.

김우경

《철학적인것과 생활적인것의 통일을 이룩하는것은 작품의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철학과 문학은 원래 깊이 련관되어있다. 물론 철학과 문학은 서로 다르지만 다같이 사람에게 세계관과 인생관을 준다는 의미에서 련관성을 가지게 된다.》

김정일

명제해설

문학에서 철학적인것은 생활적인것을 떠나서 존재할수 없다.

문학에서는 세계의 지배자이며 개조자인 인간과 그 활동의 전모를 그려내야 하는것만큼 어차피 인간이 세계를 어떤 눈으로 보는가, 인간과 사회와 자연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문제를 반영하지 않을수 없다.

문학이 세계관적인 문제, 인생관적인 문제를 반영하는것으로 하여 그에 철학적인 요소가 필연적으로 담겨지게된다. 문학에 심오한 철학이 담겨질수록 그 사상적내용이 깊어지고 사람의 세계관과 인생관에 주는 영향력도 그만큼 커진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문학작품에서 철학적깊이를 보장하는 문제를 우리 문학의 사상예술적수준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보시고 철학적깊이에 대한 독창적인 해명을 주시였고 작품창작에서 철학적인것과 생활적인것의 통일을 이룩하도록 작가들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문학에서 철학적인것은 생활적인것을 떠나서 존재할수 없다. 문학은 논리로써가 아니라 생활의 형상적재현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참된 세계관과 인생관을 확립하도록 이끌어준다. 그러므로 문학에서 철학적인것과 생활적인것은 유기적통일을 가져와야 한다.

문학에서 철학적인것을 담는다고 하여 철학에서처럼 논리적인것만 추구한다면 예술성을 살릴수 없는것은 물론 그 철학성도 옳게 보장할수 없다.

문학작품의 사상예술적수준은 주로 철학이 있는가, 생활이 있는가 하는데 따라 규정된다. 철학이 있고 생활이 있으면 그 작품은 성공한 작품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하고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창작된 가사 《내나라 제일로 좋아》는 생활도 있고 철학도 있는 참으로 훌륭한 명가사이다.

지금까지 우리 작가들은 조국을 노래한 수많은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물론 이 작품들 가운데는 명가사로 된 작품들도 많지만 가사 《내 나라 제일로 좋아》만큼 생활적이면서도 철학성이 깊은 가사는 많지 못하다.

가사에는 그 어떤 요란한 시적표현과 수사학적인 명구도 없다. 여기에는 다만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매일 매 시각 보고 듣고 느낄수 있는 돌과 꽃, 물과 샘, 해와 별과 같은 지극히 평범하고 생활적인 현상에 대한 어휘가 있을뿐이다.

그런데도 이 소박하고 생활적인 시어가 사람들의 심금을 그처럼 뜨겁게 울리는것은 이국의 들가에 피어난 한뼉기 꽃을 보고도 내 나라 꽃보다 곱지 못함을 느끼고 벼들이 부어준 한모금의 물을 마셔도 내 고향의 샘물보다 달지 못함을 느끼며 노래는 아리랑곡조가 좋아 멀리 이국땅에서도 정답게 부르는 서정적주인공의 체험세계가 깊이있게 담겨져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사의 마지막절에서 해와 별이 비치여 밝고 정든 조국땅에 다시 안기어 절을 하는 서정적주인공의 체험세계는 조국에 대한 깊은 철학이 담겨져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민족에게는 제나라 제땅이 있었다. 다시말해 조국이 있었다. 하지만 어찌하여 지난날에는 조국을 떠나 이역땅에서 망국노의 설움을 당해야 했던가. 그것은 민족의 운명을 지니고 조국을

이끌어줄 참된 령도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사회주의를 세워주시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시기에 우리 인민은 자기의 참된 조국을 가지게 되었다.

민족과 운명은 오직 위대한 령도자를 받들어모심으로 하여 그 미래가 더

욱 창창한것이다.

이러한 철학적인것과 생활적인것이 서정적주인공의 독특한 체험세계에 의하여 개방되어있음으로 하여 이 가사에는 정든 고향을 떠나 오래동안 해외에 살고있거나 조국을 떠나 다른 나라를 다녀온 사람만이 느낄수 있는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내 나라가 제일이라는 높은 긍지감이 소박하면서도 생활적인 시어속에 뜨겁게 고동치고있다.

돌아보면 세상은 넓고넓어도 내가 사는 내 나라가 제일로 좋다는 심오한 사상은 비단 해외교포들이나 외국을 다녀온 사람만이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 인민모두가 느끼는 한결같은 감정이다.

그렇기때문에 가요 《내 나라 제일로좋아》는 세상에 나오자마자 그처럼 만사람의 심장을 격동시켰던것이다. 그리고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기본핵으로 되었던것이다.

문학작품은 생활속에서 철학을 이야기하고 철학적인 심원한 사상을 꾸밈없는 생활적형상을 통하여 밝혀내야 뜻깊고 가치있는것으로 될수 있다.

작품에 생활이 있다 없다 하는것은 주로 형상이 생활의 논리, 성격의 논리를 타고 전개되는가, 실지 생활을 개성적으로 실감있게 련상시키는 진실한 세부가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어떤 생활의 흐름, 어떤 인간
간의 활동과정에도 자기의 고유한
생물론리, 성격론리가 있기 마련이며
그것은 작가의 주관에 관계없는 객관적
인 것이다.

작가는 오직 인물의 성격과 생활의
흐름에 고유한 객관적인 논리를
성실하게 따라가야 한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작가

의 주관이 개입되어 억지와 무리가
생겨나면 작품은 생활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된다.

작가는 자기의 의도를 지나치게
로출시키지 말아야 한다. 자그마한
것도 뻔드름하게 드러내고 대사나
주정토로같은데서 철학적인것을
직선적으로 맞추는 식으로 작품을
써서는 형상의 철학성을 생활적으로
담보할 수 없다.

철학적인 것과 생활적인 것의
통일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 문학의
사상예술적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나서는 근본문제이다.

작가들은 철학성이 보장된 훌륭한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과 인생관을 확립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급행열차

김광춘

날에날마다
떠나가고 떠나오누나
하루도 번짐없이
한시각도 어김없이

평양-금골
금골-평양
급행열차!

갈적에 바래주고
울적에 마중해도
평양과 금골을
하나로 이어주신 그 은정에
우리 마음 뜨거움에 젖나니

울적에는
평양서 울적에는
언제나 금골의 광부들을 못잊어
한밤에도 찾으시는
우리 수령님
우리 지도자동지의 그 사랑을
베꾸시는 그 마음처럼
급행으로 안고 들어서는듯
밤새 떠나온 당중앙위원회 그 일군도
열차에서 내리고

갈적에는
평양으로 떠나갈적에는
우리 수령님
우리 지도자동지를
쇠돌로 받드는 그 억척같은
신념과 의리
불같은 마음처럼

급행으로 싣고 떠나가는듯
년간계획 끝낸 영광의 보고안고
갱장도 소대장도
나라의 큰 회의 앞자리에 앉는듯
열차에 오르고...

어찌 먼곳이라
순간도 떨어질 수 있으랴
평양과 금골
금골과 평양
하루낮,
하루밤 오가는 길만 아닌,

우리 수령님과 지도자동지의 사랑이
광부들의 충성이
오르고 내리는 길
두줄기 철길처럼 이어져있는 길

평양-금골
금골-평양
하나로 이어진 혈맥처럼
내 조국의 생명선 지켜가거니

여기서는
주시는 사랑도 급행인가
받드는 마음도 급행인가
따라서는 온 나라 마음도 질풍쳐가노라

내 조국땅에 뜨겁게 굽이치는
믿음과 의리
그 한궤도를 따라
우리 식 사회주의 더욱 빛내는 그 한길로-

조선의 넘과 기상이 내려치는 작품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고전적로작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로대하여 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를 접한 저의 가슴은 지금 벅찬 흥분과 감격에 휩싸여있습니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와 경험, 그것은 곧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로 우리 문학예술사에 이룩해놓으신 빛나는 업적인것이며 주체문학예술건설에서 나서는 제반 문제들을 사상리론적으로, 방법론적으로 뚜렷하게 밝혀주신것은 백과전서적인 의의를 가지는 특기할 사변, 강령적지침으로 되는것입니다.

참으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계심으로 하여 조선을 대표하는 영화, 조선영화의 얼굴이라고 긍지높이 자랑할수 있는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이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7부까지 주체문학예술의 빛나는 총화작으로 완성되어 세상에 나올수 있었으며 우리 작가, 예술인들이 인문문화발전의 금자탑에 올라서서 그 상상봉에 더 높이 치달아올라수 있는 강력한 무

기를 가질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주체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려면 문학부문에서 혁신을 일으키는것이 중요합니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이 말씀속에는 우리 작가들에 대한 그이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믿음이 깃들어있습니다.

친애하는 그이의 품속에서 작가로 자라난 저는 한편의 작품을 써도 이 믿음과 기대에 맞는 글을 써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저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은혜로운 빛발아래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과학기술발전3개년계획수행에 일떠선 과학기술자들을 형상한 장편소설 《소중한 사람들》(가제)을 비롯하여 제가 써내는 모든 소설 작품들을 조선의 넘과 기상이 내려치고 조선의 향취가 풍기는 작품으로 창작완성함으로써 주체문학건설에 이바지할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소설가 김석범

내용과 형식에서 새로운 혁신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로대하여 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를 받아안은 저의 가슴은 더없는 감동과 흥분으로 끓어넘치고있으며 우리 창작가들에게 돌려주시는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어떻게 하면 더 잘 보답하겠는가 하는 충성의 일념으로 충만되어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된 우리나라의 현실은 문학예술부문앞에 종래의 온갖 낡은 관념과 도식을 대담하게 버리고 내용과 형식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력사적문헌에서 지난 시기에 쓰던 창작방법, 창작태도를 구태의연하게 되풀이하지 말고 문학예술의 내용과 형식을 변화된 현실에 맞게 새롭게 혁신할데 대

하여 지적하시였습니다.

내용뿐만아니라 형식에서까지 새로운 혁신!

저는 이 가르치심을 명심하고 청소년학생들을 비롯한 독자들의 연령과 심리적특성에 맞는 교양적이고도 흥미있는 새로운 형식의 동화, 우화를 쓰겠습니다.

또한 수령과 인민사이에 아버지와 자식사이와 같은 혈연적관계가 맺어지고 사람들이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에 기초하여 한가정처럼 굳게 결합된 우리 나라의 참모습을 훌륭히 반영한 실화소설을 창작하겠습니다.

완강한 의지와 지칠줄 모르는 탐구로 낮에 밤을 패워 당에 기쁘드리고 인민의 사랑을 받는 작품, 내용과 형식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킨 특색있는 작품을 완성해나가는데 저의 힘과 지혜를 남김없이 바쳐나가겠습니다.

작가 리성철

문필전사된 영예안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로대하여 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를 접한 저의 심정은 지금 커다란 감격과 기쁨, 환희와 격동으로 견잡을수 없이 마구 끓어오르고있습니다.

복받은 우리 작가들이 나갈 주체문학건설의 휘황찬란한 길을 천리헤안으로 명명백백히 밝혀주

시고 그 실현으로 걸음걸음 따듯이 손잡아이어주고계시는 친애하는 그이께서 이번에 우리 문학사에는 물론 세계문학사에 금자탑으로 영원히 빛을 뿌릴 더없이 위대한 로작을 또다시 안겨주시었으니 저의 심장이 왜 거세차게 고동치지 않겠습니까.

그이께서 내놓으신 로작은 우리 시대 기념비적 작품인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제1~7부의

창작과정에 이룩한 성과를 전면적으로 분석총화하고 그에 토대하여 우리 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강령적지침을 밝혀준 불멸의 로작이며 이 세상 동서고금에 전후무후한 문헌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더욱 빛을 뿌릴 문헌은 자애로운 스승이신 그이께서 우리 작가들에게 돌려주신 크나큰 사랑의 정화이며 한없는 믿음과 배려이며 무한한 은정입니다.

저는 불후의 고전적로작에 담겨진 심오한 사상

과 그 본질, 문학예술부문에 나선 과업을 계속 깊이있게 학습할것이며 창작실천으로 반드시 구현해나가렵니다. 그리하여 당면하게는 조선공들의 생활을 반영한 장편소설 《믿음》(가제)을, 앞으로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영상을 모신 단편소설들을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하게 창작완성함으로써 우리 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는데 미약한 힘이나마 보태려고 합니다.

소설가 김정길

단편소설

아, 푸른 하늘

(1)

윤하민교수는 일종의 허탈상태에서 깨어났다. 밤새 악몽속에 헤맨 그였다. 그는 안정감을 주는 희디흰 창가림천을 더듬어 헤쳤다.

밖은 흰했다. 낮추 드리운 손바닥만한 하늘이 내다보였다. 가슴이 울렁이었다.

아, 하늘!

구구구

창턱에 놓인 새장안에서 산비둘기가 울었다. 태백산근방 농촌마을에 나가 의식화활동을 벌리고있던 그의 제자인 신철규가 병치료에 종다며 잡아들고 온것 이다.

현대사집필에 여념없던 윤하민이 갑자기 병원에 실려들어온것은 달포전의 일이었다. 근래에 와서 도지군하는 어혈증세가 발작한탓이다. 며칠전부터 뜨끔뜨끔 가슴이 걸리더니 숨조차 바로쉬수없었고 끝내는 졸도하고말았었다.

유능한 안박사의 자심한 치료덕에 회복기에 들어서긴 했으나 어쩐지 몸상태가 전갈지 않았다. 그자신도 알수 없는 몽롱한 의식상태에 포로되군하였는데 안수일박사는 심히 우려하며 안정을 권고했다.

가끔 교수의 시선은 출입문쪽으로 향하군했다. 푸 꺼진 눈자위에는 뭔가 기대와 초조감이 엮바뀌었다.

찰딱찰딱 복도를 스치는 실내화소리뿐 소독내며도는 병동은 고요하다. 그는 지그시 눈을 감았다. 오늘도 철규는 오지 않을 모양이다. 무슨 일이 생긴거나 아닌지?...

가운데팔을 란 희승희승한 머리, 후리후리한 몸을 감싼 흰 위생복차림의 안수일박사가 문결에 나타났다.

《교수선생, 좀 어떻습니까?》

안수일박사는 침대결으로 다가와 힘줄이 드러난 그의 팔목을 쥐었다. 좀 나을사한 눈이 윤하민의 안색을 찬찬히 살폈다.

리창록

《괜찮습니다.》 윤하민은 레의 그 어쭙은 미소를 입가에 띄웠다.

《허, 이런 스트레스의 〈수은주〉가 굉장히 상승했는걸요.》

안박사는 고민기 력력한 윤하민의 안색에 혀를 털었다. 요즘 그는 의학용어로 일명 《스트레스》라고 하는 정신적긴장상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집착하였다.

《경험에 의하면 스트레스를 또하나 불치성요인으로 볼수 있을테지요. 요는 긴장, 압박, 초조 등등의 부정적정서의 지속이 분비기능의 항진이라든가 파다, 억제분비같은 기능파탄을 가져오게 되고 면역기능의 파괴, 갑작변이 같은 예측못할 이상현상도 용이케 한다 그겁니다.》 언젠가 안박사는 스트레스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이렇게 설명했었다.

《병이란건 신심이 중요하지요. 오늘은 어제보다 펍 좋아졌다, 기력도 회복돼가고있고... 어떻습니까. 교수선생?》

늘 그런식이다. 모순된 현실에 고민하기보다는 웃음을 찾으라는것이 의사로서 환자에게 내리는 또 하나의 《처방》이다.

따분한 성격의 그였지만 윤하민앞에서는 훨씬 자유로움을 느끼는 모양이다. 실무적관계로 맺어지는 의사와 환자외에 가까운 벗을 곁에 두려하지않는 그였다. 요즘 세상에서 진정한 믿음이나 존경의 대상을 찾을수 없다는것이 그의 지론이고 보면 과히 알만하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병원침대야말로 인간본연의 실체를 발가벗겨볼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그가 비록 장차관급 요인이든 혹은 유한부인이나 완성을 자처하는 수도승이라 할지라도 값비싼 비단옷대신 다람쥐옷으로 갈아입고보면 한갓 보통인간일뿐이다. 더구나 삶과 죽음이라는 첨예한 극단에 서고보면 그 어떤 위선의 너울도 흘랑 벗겨지니 말이다. 과연 죽음의 문어구에선 인간이 무엇을 더 생각할수 있단말인가.

하지만 운하민교수를 대하면서부터 그의 지론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머칠을 두고 계속되는 고열... 그런속에서도 병자는 신음소리 한마디 없었다. 감은 눈이며 꼭 다문 입, 열에 뜬 얼굴에는 고통만이 아닌 그 어떤 평온이 비끼기까지 했었다. 무의식상태에서 흔히 볼수 있는 그런 평온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안박사는 맥박을 재려고 하불을 들치다가 돌덩이처럼 딱 움켜진 주먹을 보고 흠칫 놀랐다. 죽음과 맞서싸우는 완강한 의지력을 본것이다.

과묵한만큼 내적세계가 풍부한 법이다.

말이 적은 운하민은 고통을 하소연해본적이 없다. 의사나 간호원들의 무성의한 치료때에도 의견을 부리거나 하지 않았다.

엄격한 면회질서를 어기고 술한 친지들이 이과묵한 지성인을 찾아오곤했다.

운하민에게는 뭔가 사람의 마음을 끄당기는 인력같은것이 있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노라면 넓은 호수를 헤엄쳐가듯한 자유로움과 쾌감을 느낄수 있다. 력사와 인생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해부학적인 고찰, 지성도, 아니 인간미에 자연 끌리지 않을수 없다. 이렇게 교수는 안수일의 격페된《질서》속에서 차츰 커다란 자리를 차지했다.

《밖의 형편은 어떤가요?》

운하민이 물었다. 그 어떤 갈증을 느끼는 사람의 성급한 물음이다.

《비통신에 의하면...》 안박사는 한결 낮아진 목소리로 운을 뗐다. 《어제밤〈전대협〉에서 선출된 젊은이들이 판문점으로 림대표 마중을 떠났다 나옵니다.》

《그러니 끝내...》

운하민의 침침한 눈길이 생기를 띠었다. 얼굴은 감출수 없는 흥분으로 불그레해졌다.

《심상치가 않아요. 생각만해도 끔찍하군요.》

안박사는 더 말을 잊지 못했다. 선지피 흐르는 끔찍한 광경을 보는듯해서였다. 이어 탄식의 한숨이 흘러나왔다.

두 늙은이는 덩덤히 앉아있었다. 길고 숨막히는 침묵... 그 이상은 더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다. 경계심에서가 아니다. 실상 그런 문제를 건드린다는것은 누구에게나 고통으로 될뿐이다.

운하민은 눈길을 들어 창너머 찌프린 하늘을 점도록 응시했다. 겹겹이 둘러친 전기철조망이며 어마어마한 콩크리트장벽, 시커먼 총구... 류혈전의 란무장이 언뜻언뜻 스치고 지나갔다. 시퍼런 칼이 가슴을 우벼내는듯한 선뜩거림에 오싹 소름이 끼쳤다.

그는 안수일박사가 언제 물러갔는지 알지 못했다. 방에는 그 흔자 남았다. 고독감이 그를 사로잡았다. 하얀 벽, 하얀 침대... 어째서 모든것이 하얗게만 보여지는가. 불현듯 그의 눈앞에는 하

얀 백광이 어룡거리었다. 10여년전의 일이었다. 좌익교수를 했다고 생트집을 걸어 운하민을 《중앙정보부》남산지하실로 끌어갔었다. 측수높은 백열등으로 하여 눈을 뜰수 없고 고열에 피부가 졸아들던 그 밀폐된 독막방, 허약해진 신경이 줄곧 파들거리던 몽롱한 의식속에서 보낸 열흘낮, 열흘밤... 자칫하면 정신이상환자가 될뻔했었다. 그때처럼 불안스럽기만 하다.

구구구 구구...

비둘기의 구슬픈 울음소리는 그치지 않았다.

운하민은 힘이 가지 않는 다리를 절룩거리며 문지방을 넘어 베란다로 나갔다. 촌촌히 둘러친 살창속에 한쌍의 산비둘기가 들어있었다. 어깨죽지속에 대가리를 틀어박은채 낮선 침입자를 경계하는 그 가련한 정상, 여기저기 널려있는 난알찌꺼기들...

아직도 이 작은 새장에 익숙될수가 없는 모양이다. 혹은 영영 익숙못될수도 있다.

안해는 면회울적마다 비둘기가 여원다고 푸념이었다. 마음어진 안해가 그나마 위안을 찾고있는 산비둘기이다.

운하민은 허리를 굽히고 새장안을 들여다보았다. 똑같이 얼룩얼룩한 회색털, 몸집이 큰 저것이 수컷일것이다. 이쪽 양중스러운 회색은 암컷...

어릴적에 그는 몹시도 비둘기한테 애착을 갖고 있었다. 그가 사는 시골에는 아직 비둘기를 키우는 사람이 없었다. 소년은 방학때 부모 몰래 도시로 나갔다. 집에서는 복닥소동이 일어났다. 닷새째되는날 소년은 굶고 초췌한 꼴로 나타났다. 아버지는 아들의 가슴속에 소중히 안겨있는 한쌍의 비둘기를 보고는 쳐들었던 주먹을 내리우고야 말았다. 소년은 밤에도 자지 않고 비둘기를 지켰다. 다음해 비둘기는 알을 낳았다. 초가집이영에서는 비둘이 새들었지만 양철지붕을 얹은 새장안에서 비둘기들은 호사스러운 생활을 했다. 길들인 비둘기들은 소년의 품에 안겨 나는 법을 익혔고 때로는 그의 어깨에 앉아 들관으로 나가기도 했다. 그의 아버지조차 어린 아들의 류다른 취미에 혀를 털지않을수 없었다. 장차 동물학자가 될지도 모른다고 은근한 기대를 품기도 했었다. 비록 쌀독이 축나기는 했지만.

신철규가 산비둘기를 들고 입원실로 달려왔을때 운하민은 야릇한 심경속에 제자를 맞이했다. 한편으로는 불만도 없지 않았다. 자기의 병을 걱정하는 마음은 고맙기 이를데가 없었다. 하지만 철규야말로 오직 학문에만 전념해야 할 학생이 아닌가.

신철규는 스승의 책망을 달게 접수했다. 그런데 가만보니 분명한 생활관에는 달라진것이 별반 없는것 같다. 이 머칠새 꿈쩍 않는걸 보면 필경 판문점으로 달려갔는지도 모른다. 정의감과 의협

심에 몸이 달대로 단 젊은이니까, 아무쪼록 무사해야 할텐데...

흐린 하늘너머를 응시하는 그의 눈동자에는 불안이 비쳤다.

(2)

지긋지긋한 밤이 왔다. 그 무서운 고열이 발작할 때이다. 그런데 오늘따라 별로 늦잡는것이 이상하다. 안박사의 말마따나 병이란 기분여하에도 관계되는것인지... 좀 수그러들려는것은 아닌지? 혹은 더 큰 고통으로 맞서려 할지도 모른다. 그래 어디 올테면 와봐라. 그는 마음을 다잡아본다.

...고추가루물이 들어있는 쇠주전자를 든 우악스레 생긴자가 알곳은 웃음을 지으며 다가온다.

그는 눈을 똑바로 뜨고 그자를 뚫어지게 쏘아보았다.

놈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자신만만하던 눈길이 허둥거린다. 다음순간 세모눈에는 독기가 서렸다.

윤하민의 입과 코구멍으로 매운 고추물이 팔팔 쏟아져들었다. 숨이 떡 막히는 순간 하늘이 핑그르 돌았다. 심한 자극성을 느낀것은 그다음이다. 건달것 같지 못한 고통의 몇순간이 지나갔을 때 그는 일종의 반발심을 느꼈었다. 그래 올테면 와봐라, 너 고통이여! ...

밤은 더디게만 흘러간다. 소식없는 철규네 일이 안심치 않다. 평양축전에 참가했던 《전대협》대표 림수경학우 마중차로 판문점으로 가던 대학생전원이 련행당했다는 보도를 들었다.

윤하민은 일전에 철규가 가져온 지하출판물을 꺼내들었다. 그는 근래에 조간이요, 석간이요 무슨 일보요 하는 그 번다스러운 출판물에서 찾을 수없었던 그 명백하고 소박한 진리를 지하출판물에서 찾아보았고 그에 열독했다. 한생을 력사학자로 살아온 그에게 막연한 공상으로 남아있던 그 세계에 집착했다고 할지 마치 진리의 샘줄기가 그의 주위에서 흐르고있던 어지러운 락류를 밀어내는듯싶었다.

눈이 깔깔해났다. 눈을 감았으나 예민해진 신경은 휴식을 방해했다. 무수한 채색무지개들이 떠도는 가운데 단정함과 정색을 띤 곱살한 얼굴이, 정기도는 검은 눈동자가 육박해온다. 수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있는중에도 각별히 정을 쏟게되는 신철규이다. 그뜨레의 젊은이들속에 세워놓으면 그리 용모가 뛰어나지도 않는 보통 젊은이, 때로는 온화한 성격과 소심성에 실망한다. 그러면서도 애착심을 놓지 못하는것은 그의 소박함과 정직성때문일것이다. 시골에 고향을 둔 철규는 그 누구의 훈시없이 력사학이라는 어려운 학문에

뜻을 두고노력을 쌓고있었다. 윤하민은 뜻이 큰 제자를 위해 많은 시간을 바쳤다. 신철규의 학구욕은 대단했는데 마치 해변이 물을 빨아들이듯했다.

근래에 와서 이 제자는 그에게 한층 더 가까운 존재로 되었다. 그가 가져오군하는 지하출판물들은 타는 갈증을 덜어주었으며 병고를 이기는 힘으로도 되었다. 아직은 다 알수 없으나 뭔가 거대한 힘이 그의 넋을 틀어쥐려 하고있음을 그는 의식한다. 자기의 젊은 시절에는 없었던, 시골청년을 불덩어리로 만든 그 보이지 않는 힘을 두고 생각한다. 확실히 요즘 젊은이들에게서는 한시절의 의기라고만 단정할수 없는 그런것이 느껴진다.

신선한 밤기운이 확 쓸어드는바람에 그는 눈을 떴다.

트렁크를 든 20대의 호협한 젊은이가 성큼성큼 들어섰다. 영채도는 검은 눈동자, 한옆으로 빗어넘긴 술총은 머리칼...

《선생님! -》

철규가 달려와 침대밑에 무릎을 꿇고 그의 손을 붙들었다.

윤하민은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이거나 한듯 놀랍게 쳐다보았다.

《그래 무사했나?》

철규는 고개를 꼭 떨구었다. 실박한 어깨가 떨리었다. 잠시후 피발선 눈길이 들리었다.

《선생님, 분합니다... 혈육의 순수한 만남까지 회롱하는 저 권력층이 증오스러워요. 아-》

가슴을 탕탕 두드리었다. 사랑하는 학우를 구원못한 죄의식과 함께 원한의 불길이 활화산처럼 타오른것이다.

윤하민은 담배를 피워물었다. 병원에서는 엄격히 금지된것이고 그자신 끊기로 했던것이다.

견디기 어려운 침묵의 한순간이 지난후 신철규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새 좀 어떻습니까?》

윤하민은 고개를 돌려 퍼릿퍼릿 멍든 철규의 이마를 한동안 바라보기만 했다. 이렇게 돌아온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많이 나았네. 그런데 한밤중에 웬일인가?》

《선생님, 제가 좋은것 가져왔는데요.》

신철규는 우울한 기분을 가시려고 서둘러 말을 꺼냈다. 뭔가 스승을 기쁘게 해줄수 있는것이 그를 흥분케 한것이다. 출입문걸개를 돌려놓고나서 방 한구석에 놓아두었던 트렁크를 열었다. 소형 텔레비죤록화기가 나왔다. 철규는 그것을 꺼내 원탁우에 올려놓고 스위치를 넣었다. 여유있고 침착한 행동이었다.

잠시후 레시바의 가느다란 선을 타고 밝고 경쾌한 음악이 윤하민의 귀전에 미쳐왔다. 희뿌연 형광막이 금시 밝아지며 하얀 구름 떠가는 7월의

푸른 하늘이 펼쳐졌다. 락하산모양의 둥근 채양에 둘러싸인 5월1일경기장, 나뭇기는 기발과 기발들, 떠나갈듯한 만세의 환호성, 축포가 오른다...

방안은 순식간에 뜨거운 열기에 휩싸였다. 황홀감과 신비로움의 환락세계를 보는것만 같다. 고구려무사들이 울리는 장중한 뿔나팔소리... 입장식이다. 각국의 국기들에 이어 《전대협》의 기발이 따른다. 흰눈처럼 하얀 샤쯔차림의 처녀, 백만학도의 유일한 대표인 그 처녀다.

드디어 《전대협》대표가 주석단앞에 이르렀다, 우주의 인력이 쏠리는듯한 순간 그는 불세출의 걸출한 수령이신 그분을 뵈올수 있었다. 어린 녀대학생이 허리굽혀 정중히 울리는 인사를 받으시는 김일성주석님!

몽클 가슴속으로 불덩이가 치밀었다.

윤하민은 뜨거운 눈길로 주석단에 앉아계시는 또 한분의 영명하신 그분을 우러렸다. 예지와 슬기 빛나는 안광, 정열과 자신심에 넘치신 그분은 첫순간에 벌써 그의 넋을 틀어쥐었다. 지, 인, 용을 겸비하신 지도자이시였다.

그는 높뛰는 숨결을 토포었다. 꽃물결 설레이는 축전장의 일원이 된듯한 벅찬 감흥, 그는 정의의 열화를 감격어린 눈길로 지켜보았다.

록화물은 한동안 계속되었다.

그는 아쉬운 눈길을 불꺼진 화면에서 떼지 못했다. 가슴은 그냥 널뛰듯했다.

《저 당분간은 들리지 못할것 같습니다.》

신철규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전대협》의 결정에 따라 평양축전록화물을 가지고 고향인 평남지방으로 가야 하는 그였다.

《무사히 다녀오게. 그리고...》윤하민은 말을 끊었다. 긴 한순간이 지나갔다.

《철균 아직 학도야. 시간을 아낄줄 알아야 하네.》

《선생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신철규가 돌아간후 윤하민은 스포링침대우에 반듯이 누워있었다. 눈앞에는 방금전에 본 장쾌한 장면들이 생생히 밟혀온다. 푸른 하늘 가득 떠오르는 하얀 비둘기무리, 쏟아지는 빗줄기속에 환히 드러난 어린 녀대생의 우아한 모습, 경탄, 환희...

윤하민은 지금에야 먼목있어보는 이 처녀를 알아보았다. 그게 작년 초여름이었던지, 신록길은 교정길에서 그 처녀를 만났었다. 빨간 여름샤쯔에 외국어대학빠지를 단 처녀는 무척 활달하고 예뻐다. 교수를 향해 납신 목례를 했다. 철규는 웬일인지 낯을 붉혔는데 가만보니 서로 이해하는 사이같았다.

그 처녀가 평양의 하늘가에 《전대협》의 세계 청년학생축전참가를 랑랑한 목소리로 알린다. 온 겨레의 시선을 한몸에 뭉고있는 너 사랑스런 비

둘기야!

싸늘한 정적속의 관문점, 군화발을 땀 버티고 선 엠피... 처녀는 눈물을 삼킨다. 민족의 원한이 응축된 분단계선, 인위적인 장벽을 실감한것이다.

《통일의 그날 다시 만나요!》

《수경이, 다시 만나자!》

부여잡은 손과 손, 쏟아지는 눈물의 바다, 아, 혈육만이 저렇게 울수 있는것이다.

허나 어찌하랴, 점점 질어가던 먹장구름이 철의 장벽을 날아넘던 어린 비둘기를 삼켜버린것을...

윤하민은 심장을 부여잡고 침대우에 나딩굴었다.

구구구

윤하민은 희미한 의식속에서 비둘기의 울음소리를 알아들었다.

안박사의 다심한 권고와 만류를 뿌리치며 병원문을 나선 윤하민은 자기집 서재에 앉아있었다.

《여보...》

안해가 나직이 그를 불렀다. 부채살같은 주름이 잔조롭힌 눈가에는 그늘이 비졌다. 한뼘 그를 위해 살아온 그 녀자다.

《이제라도 저 산비둘기를... 퇴원할 때 안박사 선생도 그러시던데 병이 물려설 때 주의하지 않으면 도질수 있다면서... 그 후덥침이 제일 나쁘다고 하시던데...》

안해는 이번해야말로 꼭 승낙을 받아낼 잡도리인것 같았다.

윤하민은 눈을 감았다. 입가에는 빙긋이 미소가 떠올랐다. 비둘기를 안고있는 소년을 본것이다. 한쌍의 비둘기가 포근한 잠자리이기라도 한듯 소년의 앞자락에 안겨있다.

갑자기 소년의 얼굴이 설음으로 일그러진다. 알미운 고양이와 비둘기장에 뛰어들어 어린 새끼를 덮친것이다.

《저 고양이... 이놈, 이놈...》,

피덩어리로 숨을 할딱거리는 비둘기를 들고 소년은 슬피 울었다. 사흘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음식만 보아도 구토감을 느꼈던것이다. 피, 피땀...

《여보, 웬일이세요?》 안해가 놀라 소리쳐 불렀다.

윤하민은 움쭉 몸을 일으켜 베란다로 나섰다.

비둘기장에는 병원에서 가지고나온 낫익은 한쌍의 비둘기가 들어있었다. 겁먹은 눈이 대륙대륙 군다. 윤하민은 헛손질을 해가며 겨우 비둘기장문고리를 벗겼다. 그러자 놀란 비둘기들은 화드득 깃을 치며 구구구 울었다. 그는 여윈 손으로 비둘기를 잡으려고 했다. 그러다 안해의 도움으로 겨우 부드러운 깃털의 촉감과 온기를 느껴볼수 있었다.

그제야 안해는 그가 무슨 일을 하려는지를 안 것같았다. 그 녀자의 주글주글한 눈귀에 물기가 습배여올랐다.

윤하민은 팔을 펴들었다.

《어서 날으렴, 날개를 활짝 펼치고...》 정갈게 속삭였다.

그러나 비둘기는 몸을 웅송그린채 바둥거리기 만한다. 조롱속에 갇혀있었 탓에 나는 법을 잊었는가

...

푸드득 마침내 그의 손에서 벗어난 비둘기가 날개를 폈다. 잇달아 또 한마리가 깃을 편다. 비로소 한쌍의 아름다운 비둘기들은 자유로운 나래를 펴고 훨훨 날았다. 윤하민의 얼굴에는 한순간 평온한 미소가 어렸다. 안해의 눈굽에 맺혔던 이슬도 그에 주르르 흘러내렸다.

(3)

오늘도 윤하민교수는 장서들이 벽을 채운 서재에 앉아있다. 교단에 설 때처럼 흰머리를 정히 벗어넘기였다. 둥그스름한 턱자우에는 줄친 원고지가 무뚝히 쌓여있었다. 병원생활로 중단되었던 현대사집필을 마무리지어보려는것이다.

윤하민은 이렇게 자기의 체취가 폭 뻗 서재에 앉으니 한결 마음의 안정을 느꼈다. 병에 대한 공포의식이나 피할수 없는 운명에 대한 체념을 잠시나마 잊을수 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록화물에서 뵈운 그분들의 인자하신 영상이 안겨왔다. 뭔가 지구를 휩쓸고있는 새로운 시대적조류를 역사가의 예민한 감각으로 느껴온 그였다. 이제 그것은 미증유의 힘으로 정신적동토시대, 파쑈의 마지막 아성으로 미쳐오는 것이였다. 그러자 어디서 샘솟는지 알수 없는 원기와 생에 대한 의욕이 뿌듯이 감촉됐다.

안해는 서재로 소리없이 들어와 말없이 지켜보곤했다. 그의 신상에서 일어나고있는 변화에 어리둥절해하였고 그것이 공고한것으로 되기를 기원하는것이 었다.

윤하민은 기력을 가다듬으며 줄곧 사색을 모았고 또박또박 적어나가곤했다.

원고지우로 붓을 달려보는것은 큰 위안이였다. 원고지는 서리서리 영킨 피로움과 고뇌... 그 모든것을 거짓없이 받아주는 일종의 정의의 마당이 라고 하면 어떨는지...

그는 너털청한 대강당에서 청강생들에게 강의하기보다는 이렇게 글쓰기를 더 즐겼다. 술한 원고지들이 그의 진정을 고스란히 받아주지 않았던가.

그는 손끝의 힘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원심을 쓰며 일필휘지로 써나갔다. 때로는 종잡을수 없는 현대사의 미궁속을 날카로운 메스로 헤집어보

기도 하고 그 어떤 공통점을 찾으려고 고대사로 소급해보기도 하였다.

5,000여년... 홀려온 역사를 거슬러 자유로이 노를 저어간다. 태고연한 안개속에서 미지의 광활한 대지가 흔들린다.

말잘타고 활잘쏘는 의젓한 사내대장부가 초원을 달린다. 땅을 구르는 요란한 박차소리... 마침내 안개속의 소국들이 눈을 뜨고 화답해나선다. 몽치고몽쳐 하나의 강대한 국가를 형성해간다. 지혜롭고 용맹스런 민족의 슬기와 넋이 부활하던 이 나라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였다.

고구려, 백제, 신라...

윤하민의 얼굴은 그에 고통으로 이그러진다. 그는 분별과 류혈의 그 시대를 타매한다. 민족성을 우위에 놓지 못한 권력의 리기적야욕과 지든... 결국은 외세를 끌어들였고 피는 강물처럼 흘렀었다.

그는 끝내 붓을 놓고말았다. 씩씩한 담배연기가 내굴처럼 떠도는 서재를 나서 어설픈 정원을 어정어정 걸었다, 그새 손이 가지 못한 담장밑에는 잡초들이 무성했다. 예전같으면 손에 호미를 들고 김도 잡고 흙냄새에 취해보았을 그였다. 어릴적 땃별속에서 김매던 엄마등에 업혀 말군하던 그 후덕한 땅김은 아직도 후각속에 남아있다. 역시 인간은 대자연의 산아인것만은 틀림이 없다. 과연 늘 밝아보는 이 땅과 신선한 대기를 떠나서 인간이 어떻게 생존할수 있단말인가.

그는 생각한다.

이 땅은 장장 삼천리... 지맥은 하나로 이어져있건만 인위적인 분단이 웬말인가.

세상을 둘러보면 수천개의 섬들이 모여 국가를 형성하고있는 나라도 있고 여기저기서 이주해온 피부색갈도 언어도 생활풍습마저 각이한 다민족들이 모여사는 나라들도 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한민족의 운명을 서로 다른 궤도로 떠밀어간 분단현실, 아 분계선, 원한의 분단선아...

그는 찌그덕거리는 의자에 등을 쫓히고 뉘푸른 가을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흰구름송이들은 뭉쳐다가는 흩어지고 다시 모이기도 하며 어디론가 흘러가고있었다. 어쩐지 야릇한 심경이다. 대지는 수많은 미지의 문제들로 어지러운데 하늘이 저렇게 푸를수 있다는것이 리해되지 않았다. 먹장구름이 어린 비둘기를 덮치던 악몽이 떠오른것은 그때였다. 뭔가 예리한 아픔이 쿡쿡 심장을 찔렀다. 심한 구속감을 주던 더실터실한 콘크리트벽, 싸늘한 땀기, 신경을 자극하는 악청...

이 시각도 침침한 콘크리트감방에서는 자유를 잃은 비둘기들이 몸부림치고있을것이였다.

아, 림수경 ...

며칠전 《한겨레신문》이 이 녀대생의 사진을 실었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수인복에 수갑을 찬

녀대생은 웃고있었다. 혈육은 멀리 떨어져있다고 해도, 일시적으로 헤어질수 있다해도 결별이란 없는 《마음의 신》이라는 단순한 《교리》조차 이해 못하는 권력층의 진둔성에 대한 고소이고 지탄일것이다.

저 분단선 장벽처럼 둔감한 우리들 기성세대의 민족적량심을 불러일으킨 사랑스러운 세대, 주먹을 들어 압제의 하늘을 탕탕 두드리고 통일의 하늘을 열고저 분연히 나래를 퍼득인 비둘기여!

윤하민은 입속으로 나직이 시구절을 읊어보았다.

하얀 비둘기 날으네
흐린 하늘 안타까이
너 광명을 찾느냐
자유를 부르느냐
푸른 하늘은 너의것

(4)

《교수선생의 해학과 유모아에는 탄복하지 않을 수 없어요. 큰 충격이었습니다.》

안박사는 평시의 경계심많은 그답지 않았다. 흥분한 그는 《썬세이썬》을 일으킨 신문 기사를 펴들고 소리내어 읽었다.

《〈설사 흰비둘기에게 붉은색이나 노란색물을 들여본다 한들 비둘기일뿐이다. 사나운 부리를 원한적없고 그 누구를 위협해본 일 없는 정의와 평화의 사도〉〉 그렇지요. 비둘기야 맹금은 아니지요.》

윤하민은 팔걸이의자에 앉아 듣고만 있다. 그가 쓴 《비둘기의 진리》가 《한겨레신문》에 실린것은 며칠전이다. 목격한 돌덩이가 떨어졌을 때처럼 사회계에 파문이 일었다. 열구리를 찢려온 당국은 황급히 어용문인들을 끌어내었다. 《국가보안법》상의 실정법을 무시했다는, 혈육이 아니라 《적》을 동조했다는 억지화된 론조, 어린 녀대생이 묻혀왔을 《붉은색》이 두려워 철창속으로 끌어간 비렬성에 대한 구차스러운 변명으로 신문들을 어지럽혔다.

과연 그들의 말처럼 《붉은색》에 문제가 있단 말인가. 그래 열화가 되어 타번치고 북녘의 거리들에 맥박친것이 혈육의 순결하고 진한 피가 아니었던 말인가. ...

《〈조롱속에 갇힌 비둘기... 그에게 어서 넓은 하늘을 안겨주라!〉 정말 시사하는바가 커요. 분단선을 넘는 의로운 처녀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다니... 분명히 시대착오이지요.》

안박사는 개탄해마지 않았다. 민중의 의사를 한사코 거역해나선 권력층에 대한 불감이었다. 그의 《정치열》은 그자신이 그은 계선을 넘어서기도 한다. 역시 인간은 침묵만으로는 살수 없는,

뭔가 높은 지향과 우애심을 가진 목적의식적인 존재인가보다. 모순된 현실앞에서의 출로를 외면과 잊음, 스스로 부여한 율타리속의 《유패한 생활방식》에서 찾아야 한다는 종래의 《지론》에는 환멸인것 같다. 눈물을 외면하고서야 무슨 피가 뛰는 인간이라.

《난 요즘 민족화합의 기초라는 제마를 놓고 모색해봅니다만... 주지하건데 같은 민족끼리 서로 거래하고 만나는것은 인간에게 부여된 권리이지요. 또 한겨레의식, 단결의식이 투철해지는 과정이고...》

그래서 민족의 동질성, 한겨레의 더운 피를 재확인하는것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번 립양의 평축참가는 분단장벽에 하나의 돌파구였다고 볼수 있겠지요.》

안박사는 공감이가는지 연신 고개를 끄떡였다.

원탁우에서 담배갑을 당겨 구수한 연기를 깊숙이 마시었다.

《유럽에서도 그렇고 동남아들도 그렇고 지난 시대의 오류를 절감하고 민족들이 서로 합류해가건만 오직 우리 한겨레만은... 이렇게 한 조상의 피를 나눈 혈육들사이에 리해조차 못하고있으니 부끄럽습니다. 한줌밖에 안되는 권력층때문에 민족비극사는 어언 반백년을 지속돼오지요. 그렇게 보면 민중의 힘은 무력하죠. 권력이라는 〈절대적 환경〉에 순응할수밖에 없는 한갓 한난계같은 존재...》

《한난계라...》

윤하민이 침묵을 깨뜨렸다. 침침한 얼굴이 모욕이라도 당했을 때처럼 붉어졌다.

《우리들, 기성세대들에게는 어느 정도 그런 의식이 지배적이였지요. 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다릅니다. 그 처절했던 광주봉기나 립양의 분단선 돌파는 운명의 주인임을 자각한 그네들의 정의의 분출이였지요. 이 세기의 마지막년대를 눈앞에 둔 현상은...》

윤하민은 가쁜 숨결을 가누듯 말을 끊었다. 이어 뜨직뜨직 울리는 저력있는 목소리에는 뼈아픈 회오와 절규가 숨배여있었다.

《더이상 관망자가 되진 말아야 하지요. 요는 그가 누구든 시대를 떠미는 추동력이 못될 때 불치의 인자로 될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

《나는 스트레스성병증에 대한 박사선생의 견해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건 단순히 의학상의 용어이기전에 사회학적인미로 해석돼야 할것입니다. 스트레스야말로 우리 이남민중의 대명사이고 뿌리깊은 〈병원체〉가 아닐가요. 그것을 강요하는 온상이 다름아닌 권력층입니다. 그리고 운명의 주인으로 되지 못하는 우리자신들이고...》

안박사의 나올사한 눈이 쳐들리었다. 가슴이

서서히 달아오르는것이다. 스트레스, 불치의 인자, 사회적병폐... 그는 교수를 놀랍게 쳐다보았다. 명실공히 깨우침이었다. 어찌보면 민중의 스승다운 안목으로 시대를 부둥켜안고 고민하는 교수였다. 불의를 용납않는 정의에 대한 열렬한 옹호... 커다란 불덩이가 향시 그의 가슴속 깊은곳에서 이글이글 타고있을것이었다. 이런 지성인을 아꼈어야 했는데 ...

안수일은 의학이라는 협애한 울타리속에서 타성으로 살아온 자기 한생, 《한난계》의 서글픈 인생이 혐오스러웠다. 본의아니게 권력의 기반을 지탱해주고있는 또하나 불치의 인자에 집착한것이다.

생각해보면 스트레스를 강요하는 부조리한 현실을 외면하려 한 그였다. 그래 마음속에 울타리를 치는 《완전》형식의 피동적인 방법으로 그 무서운 병원체를 이길수 있단 말인가. 인간이 인간에게 강요하는 비인간적악행, 그로 하여 빛어지는 스트레스는 더이상 방임되지 말아야 할것이었다.

그는 림수경학생을 방문할것을 속다짐했다. 뒤늦게나마 기성세대의 의무를 다해보려 함이다.

떠나기전에 안박사는 다시금 병을 악화시키는 스트레스의 지속에 깊은 우려감을 놓지 못했으며 여러가지 섭생을 신신당부했다.

(5)

윤하민교수는 카텐이 묵직히 드리운 서재에 앉아있었다. 그사이 그의 신상에서는 일정한 변화가 일어났다. 안박사의 권고대로 치료섭생과 민간요법을 꾸준히 해온 덕일지도 모른다. 그는 대학측의 요청에 따라 초빙강의를 나가는 외에는 이렇게 집에서 쉬고있다.

창밖에서는 한겨울의 지독스런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있었다.

그는 벽에 걸린 달력장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봄이 그림다. 아지랑이를 불러내는 따스한 별이며 생명이 움트는 숨결과 해토무렵의 구수한 흙내에 취하고싶다.

그는 약탕관을 들고 들어온 늙은 안해를 쫓아내다싶이 했다. 어쩐지 혼자 있고싶다. 국경이나 분계선같은 억제력이 없는 사색의 공지, 아마도 사색처럼 인간을 정제시키는 수단은 없을것이다.

그는 마음조이며 귀기울여본다. 금시 다가오는 통일대행진의 그 우람찬 발걸음소리가 들리는것만같다.

《백두에서 한나까지 통일의 노래를 부릅시다!》 피끓는 청년들의 그 절절한 웨침... 그래 이젠 피할수 없는 현실이요, 력사발전의 필연적요구이다. 북행길을 걸행했던 고려의 문목사도 그렇게 말했었다. 이제 통일은 《미완》이 아니라 《완》이라

고.

욕망은 그의 가슴속에서 세차게 끓어오른다.

(과연 바라마지 않는 그날은 언제일것인가...)

그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창가로 다가섰다. 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리는 감나무가 직바로 내다보였다. 튼튼한 원줄기는 중도에서 서로 갈라지고 말았는데 바람이 불어칠 때마다 서로 부둥켜안으려듯 한쪽으로 쏠리곤했다.

윤하민은 방향각을 달리한 멋대로 뻗은 두아지를 무심히 볼수 없었다. 반만년의 유구함이 외세에 의해 란도당한후론 좀처럼 화합못하는 이 민족, 정녕 혈육의 더운 피가 합류되는것이 불가능한것이란 말인가. 향차 분단의 종식이 세계적추세로 되고있는 이 밝은 세기에...

차디찬 철창속에서 옥고를 치르고있을 수경의 강직한 모습이 아프게 안겨온다.

한달전 그는 면회신청을 했었으나 거절당했다. 미결수와의 면회는 허용안되거니와 여러모로 깊이 생각해보라는 가시돌친 《권고》를 받은것이다.

그는 쓴 웃음을 지었다. 마치 내대학생이 붉은색의 전파자라도 되는듯 수다를 떠는 꼴이 역겨웠다.

저편 건넌방에서 철없는 손녀애가 앙- 울음을 터쳤다.

《어서 그쳐. 할아버지 깨어나실라. 우리 영아 용하지, 응.》

울음소리는 이내 그쳤으나 그의 귀전에는 그냥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사라지지 않았다. 그가 남은생을 다해 정을 기울여보는 손녀애다.

그는 안락의자에 비스듬히 젖히고앉아 허공을 응시했다. 자기가 없을 그때 저애들의 세계는 과연 어떠할것인가? 요즘따라 그 생각은 이렇게 때없이 찾아들군한다.

정신적동토지대에서 우리 세대가 겪어야 했던 그 고충들을 저애들은 리해할가. 절망과 좌절, 허위와 기만, 피로 얼룩진 암흑시대를...

생각하기조차 지긋지긋한 악몽은 그의 가슴속에 지울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다.

공포와 절망, 불안과 초조... 그는 눈을 감았다.

...

《네가...》 새파랗게 젊은 녀석이다.

(뉘라구?)

《그래, 네새끼가 <유신체제>를 혈뜰는 좌익선동을 공공연히 했다면서? 너 북의 간첩이지? 점잖게 얘기할 때 솔직히 자백하는게 좋아.》

그는 온몸을 와들와들 떨었다. 백발의 지성인인 자기를 네거리복판에 엮어놓고 불기를 치고있는것 같았다. 아, 초보적인 인권마저 유린당해야만 하는 이것이 이 시대 《지성》이란 말인가. 허위와 날조, 권능이 판을 치는 암담한 풍토여...

그는 너울거리며 떠오르는 환영을 털어버리었다.

문이 방실 열리며 손녀애가 얼굴을 들이밀었

다.

《할아바- 해해》 언제 울었더냐싶게 두팔을 벌리고 품에 덥석 안기였다. 젖살이 올라 오동통한 볼이며 초롱초롱 여문 눈동자가 이쁘기만 하다.

《이젠 아프지 않나요?》

《그래 아프지 않다. 우리 영아 밥먹었냐?》

《응...》 고개를 까딱까딱 한다.

윤하민은 손녀애의 맑은 눈동자를 흘린듯 들여다보았다. 저 맑은 눈동자가 아픔으로 흐려지는 일이 없어야 할텐데... 그 무엇에도 구속받음없이 나래를 활짝 펼쳐야 할 세대, 저들을 위해 무엇을 남겼던가, 무엇을...

생각할수록 가슴이 아프다. 내 한몸의 고통을 덜고저 침묵을 지킬수는 없다. 현실도피... 뭔가 세찬 충격이 그를 사로잡는다. 그는 원고지를 당겨 붓을 달리었다. (진실을 말해주어야 한다. 진실을...) 그의 온 일생이 그것을 위해 존재한 것이다.

력사교육의 참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지나온 과거를 분명히 알고 교훈을 얻는 그것이다, 교훈 없는, 시정없는 력사교육이란 무익하다. 담보요, 뒤로 돌아가라는 강요일뿐...

과거... 이 민족이 겪어야 했고 의연히 자행되는 암흑통치 ...

그는 메스를 든 외과의마냥 구린내 풍기는 종 처갓속이 칼을 박는다.

《반공이데올로기》를 권력유지의 명분으로 삼는 자들, 한민족의 순수한 넋을 말살한 반공 《교리》에 의해 피를 나눈 형제가 《적》으로, 적이 우방으로 둔갑했고 외세가 수호신처럼 틀고앉아 주인 행세를 하고있으며 독재의 지배밑에 국민들은 병어리가 돼야 하는 전후후무한 암흑시대가 창출되었다. 하여 우리 민족의 머리우에는 사상과 제도의 우열을 겨루는 뿌리깊은 대결의식이 먹장구름마냥 무겁게 드리우지 않았는가.

《반공》의 미명하에 위정자들이 자행하고있는 그모든 악행과 파썸적전횡, 그것은 명백히 범죄이다. 그래 력사는 더이상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한다.

병고속에서 한자두자 적어본 저서는 이제 《크라이스막스》(절정)에 이르렀다. 민족사에 대한 폭넓은 분석과 개괄, 이 민족이 직면한 현안문제에로의 대담한 돌입, 겨레에 대한 불같은 애정과 그운명에 대한 고민...그의 온 한생이 그속에 있는 것이다.

윤하민의 사고는 고도에 이른다.

우리 민족이 일구워심 소원하는 통일은 언제까지 미지수로 남아있어야 하는가?

민족분단... 력사발전의 견지에서 볼것 같으면 하나의 침체상태를 의미할것이다. 량심과 리성에 대한 도전... 그렇다. 분단은 우리들 매 한사람한 사람의 생활의 비극, 삶의 파괴를 의미한다. 과연 무엇이 빚어낸 불행이고 비극인가?

신성한 이 나라 강토우에 인위적인 분단선을 그어놓은 미국... 이제 더는 병주고 약주는 식의 《자비로움》과 《은혜》에 속아살수 없는, 대국의 《제물》이 될수 없는 우리 민족이 아닌가.

그럼에도 이남의 위정자들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요, 민족이질화요 하고 이른바 《통일불가능론》을 력설하고있다. 명실공히 궤변이다. 물론 량국을 이른 정치풍토로 하여 차이가 존재하는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

그는 결론을 서두르지 않는다. 그가 진실을 추구하는 지성인이라면 보다 냉철한 리성의 눈으로 자기 시대를 투시해보려 할것이다. 《이북 바로알기운동》이 벌어지고 안개속에 묻혀있던 많은것들이 밝혀진 지금에도 그는 공정성을 잃지 않으려고 원심을 써본다. 하건만 그 어떤 인력이 그를 끄당기고있음에야.

북화물에서 본 평양의 거리들이 떠오른다. 화산인양 분출하던 겨레의 순결한 넋, 눈물, 포옹... 그래 총칼로도 시간의 망각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가를수 없고 식힐수 없는것이 혈육의 피가 아니란말인가. 그렇다. 조국애와 민족자주정신, 그것이 사상이나 리념보다 우위에 놓여져야 한다는것은 지극히 당연한 리치가 아니겠는가.

언젠가 김일성주석의 친필저작에서 본 민족이 있고야 계급이 있으며 민족의 리익이 보장되여야 계급의 리익이 보장될수 있다는 정의가 커다란 의미로 안겨졌다. 옳거니, 온 민족의 화합과 단결, 그것이 곧 우리가 바라는 조국통일이라는 새로운 정식화는 5천년 민족사의 위대한 영결이신 그분께서만이 내놓을수 있는 참으로 고명한 진리이다.

캄캄하고 답답하던 가슴속에 등불이 켜지는 순간 그는 왈각 눈물을 쏟았다.

도저히 풀길없던 민족화합의 출로를 재삼 확인한것이다. 그것은 그의 인생총화이기도 했다. 아니 민족사의 귀결이었다.

그는 사뭇 들뛰는 가슴에 손을 얹고 며칠전 일을 회상했다.

윤하민은 탈고되여가는 저서의 출판을 일임해 줄것을 간청하는 철규에게 선뜻 대답을 주지 못했다. 실무적공정이 용이치 않다는 그에만 있지 않았다. 너무도 많은 부채를 그들의 어깨우에 얹어놓은 기성세대의 죄의식을 느낀탓이다. 자기를 짊그리 바쳐 겨레의 진정한 화합의 길을 열어가는 그들이야. 우리가 저들처럼 속되지 않는 깨끗한 넋을 바쳤더라면...

《부끄럽네 ...》

《선생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전세대 없이 력사는 없습니다. 밀거름이 되여준 고마운분들이 아니었다면 이 땅에 민주의 기틀은 마련되지 못했을겁니다.》

《고맙네. 물론 력사발전의 새로운 양양기는 민중에 의해 마련되지. 하지만 민중의 심장속에 타끓는 충만상태의 이 지향을 분출시키는데는 민족의 령수이네. 난 지금 해일과도 같은 새로운 사변의 도래를 보고있네.》

《그렇습니다. 온 누리를 밝히는 향도의 태양, 그 찬란함이 암흑의 이 땅에도 비쳐오고있는거죠.》

《자네들 젊은 세대를 불덩이로 만든 그 보이지 않는 힘을 이제야 확실히 안것 같네. 아무쪼록

뜻을 굽히지 말게. 해빛을 따르는거야 생명물질의 본성일테지. 태양... 태양의 가장 적극적인 인자가 되어주게.»

《선생님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홍분으로 하여 가슴이 뜨끔뜨끔 아파나기 시작했다. 그는 흐려지는 의식을 가다듬으며 붓을 짚들어쥐었다. 민족앞에 지닌 지성인의 책임을 다하려 함이다.

일찌기 아시아의 황금시대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조선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라고르의 시구절이다. 그래 하나, 단합된 하나가 되는 여기에 민족의 출로가 있다. 자주와 민주, 민족부흥의 길이 있다.

...

몸은 침대에 누워있으나 넓은 어딘가로 달음친다. 사위는 캄캄하다. 칭칭 동여맨 사슬에서 벗어나려고 넓은 분연히 솟구친다. 하여 마침내 자유로이 날아올랐다.

시야가 모자라게 펼쳐진 신비의 세계, 반대편에서만 보아온타에 두렵게만 여겨지던 그 세계를 가까이 느껴본다. 손가득 부근부근한 흙을 떠들고 구수함에 취해본다. 마냥 싱그러운 풀향기, 해별은 또 얼마나 따스하게 미쳐오는것인지 꿈꿨던 꿈이 순식간에 풀린다. 그는 걷는다. 발목이 시도록 밟고싶은 땅, 이게 그 《리상인》들을 키운 토양인것이다. 그네들을 어서 만나고싶다. 그만 발을 헛딛고 주저앉으려는 찰나 누군가 그를 부축여준다. 그는 놀라게 쳐다본다. 상상속의 《리상인》들이 그를 둘러싸고있지 않는가. 선량, 인자, 미소... 풍요한 대지를 활무대로 삼는 탓일까! 다시, 또다시 쳐다본다. 키도 생김새도 자기와 다를바 없는 인간, 아니 친혈육들이다. 그는 외락 부동켜 안는다. 후끈후끈 달아오른 불덩어리를 안고있는듯 사뭇 가슴벅차다. 아, 한겨레 내 마음의 신이여!

구구구

비둘기울음소리가 그를 깨웠다. 날은 흰히 맑았다. 그렇듯 리상하던 그 세계는 이미 사라져버렸다. 뽁뽁 바람소리, 생하니 떠도는 뽁기에 오싹 몸이 떨려났다. 그는 포근한 양털실내옷을 걸치고 방안을 거닐었다. 벽에 건 한난계의 빨간 수은주가 눈에 밝혀온다. 한난계는 언제나 온도에 민감하다. 그것이 그의 실체이다. 인간들은? ... 과연지향을 가진, 넓이 있는 자유로운 인간이 이런 굴욕을 참아낼수 있을까. 무엇이 인간의 넋을 지배해야 하는가?

구구 구구구

비둘기의 울음소리가 다시 들려온것은 그때였다. 윤하민은 자기 귀를 의심했다.

이상한 예감을 느낀 그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먼지가 뿌옇게 오르고 거미줄이

얼기설기한 새장앞에 난데없이 한쌍의 비둘기가 모이를 쫓고있는것이 아닌가. 집비둘기보다는 좀 작을사한 얼룩얼룩한 재빛털이 어딘가 낮이 익다.

(이게 웬일인가?!)

가슴이 후두둑 뛰었다. 그는 서둘러 창문을 열어젖혔고 흑흑 찬물을 끼얹는것 같은 짜릿한 대기속으로 허둥지둥 뛰쳐나갔다.

그러나 비둘기장을 바로 몇걸음 남겨둔채 서버리고말았다. 비둘기들을 놀래울가 저어된것이다.

제동지로 돌아오기라도 한듯 비둘기들은 한가로이 모이를 쫓고있었다.

(허허허. 그러니 옛정을 못잊어서 되돌아왔단말이지. 고맙다, 산비둘기들아!)

윤하민은 두손을 내밀고 한결음한결음 비둘기장으로 다가갔다. 그제서야 인기척을 느낀 비둘기들은 녹두알 같은 눈으로 말뚱말뚱 쳐다보았다. 이어 부리를 맞비비며 정답게 울어예기 시작했다.

《온참, 세상에... 산비둘기가 령물이라더니...》 뒤늦게 달려나온 안주인이 탄성을 질렀다.

《허허허, 알을 품도록 도와준 당신의 정성을 잊을수가 없었던가보오.》

두 늙은이는 비둘기를 품에 안은채 기꺼이 웃었다.

안주인이 뿌려준 모이로 배를 채운 한쌍의 산비둘기는 마침내 땅을 차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윤하민은 노을피는 상공으로 기운차게 날아오르는 비둘기를 오래도록 배웅했다.

그날밤 그는 잠을 이룰수 없었다. 귀전에는 즐거운 음악이런듯 비둘기 울음소리가 그냥 울려왔다. 구구구, 구구구, 구구구...

어느덧 그의 눈앞에는 하늘가득 떠오르는 비둘기무리가 안겨왔다. 날아오르고 날아오르는 비둘기떼...

윤하민은 길라잡이마냥 활기있게 날개를 젓는 흰비둘기를 알아보았다. 푸르른 대공에 몸을 맡긴 한없이 자유로운 세찬 퍼덕임...

(아, 흰비둘기!)

《너희들은 어디로, 어디로 날으느냐?》

《저기 북녘 해님 별님 빛나는 푸른 하늘이죠. 어서 따라오세요. 구구구.》

윤하민은 머리를 들고 아득한 허공중으로 시선을 보낸다. 순간 세찬 빛광에 눈곱이 시큰했다. 사뭇 눈부신 그 빛발, 이어 비쳐오는 따스함과 상쾌감... 해의 참맛을 느끼는 순간 가슴이 울렁이였다.

비둘기들은 좋아라 더 빨리 날개를 젓는다.

윤하민은 두손을 내민다. 자애로운 태양이 점점 가까와오고있다. 가없이 높이 들린 푸르청청한 하늘이...

아, 푸른 하늘!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보건법의 혜택으로 누구나 다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고있으며 완전하고도 전반적인 무상치료제가 실시되어 모든 근로자들이 병치료에 대한 근심걱정을 모르고있습니다.》

김정일

초인종소리

손영복

현대적인 살림집의 매 집집마다 다 있듯이 우리집 출입문우에도 역시 부드럽고 경쾌한 소리를 내는 초인종이 달려있다.

친척이나 친지, 이웃들이 찾아올적이면 그 초인종이 명쾌한 소리를 내군한다. 퐁당, 퐁당... 어떤날은 한번, 어떤 날은 두번, 그런가 하면 어떤 날은 몇차례씩 울릴 때도 있다. 아마 어느 하루도 울리지 않는적이란 없는것 같다.

나는 초인종소리가 울릴 때면 무슨 일인가, 혹은 누가 왔는가 하는 정도의 호기심을 느끼곤하였지만 그에 대해 별다른 생각을 해본적은 아직 없었다. 우리 집식구들도 아마 내 정도의 호기심은 다 가지고있는것 같았다.

하기에 팔랑거리는 소리만 나면 집안식구들이 경쟁이라도 하듯 저마끔 즐겨 문앞으로 달려나가 군하는것이 아닌가. 나는 식구들의 이런 행동을 두고 일종의 호기심을 남먼저 충족시키려는 친진한 마음에서 오는것이라고 생각했다. 내 생각이 어떻든 식구들의 이런 습관은 없어지지 않았다.

무렵던 8월도 거의 다 기울어가던 어느날 저녁, 그날도 바로 그러했다.

음악소리마냥 초인종소리가 울리자 부엌에서 동자질을 하던 안해가 《예-》하는 긴 대답소리와 함께 젖은 손을 앞치마에 문지르며 뛰쳐나왔다. 동시에 방안에서 손자를 끼고 앉아 텔레비죤 음악을 감상하고있던 어머니가 《누구시유》하며 복도로 나섰다. 그에 뒤질세라 10살난 아들과 7살난 딸애가 덩달아서 승벽을 부리며 앞질러서 달려나갔다. 무슨 큰 경사라도 난듯싶었다.

나역시 호기심이 동하지 않는것은 아니었지만 체면도 있고 하여 그냥 텔레비죤앞에 앉아있었다.

복도에서 두런거리는 말소리가 들리더니 잠시 후에 방안으로 들어오는 가족들속에 파란가방을 멘 낯선 녀인이 함께 들어왔다.

《여보, 진료소에서 나왔어요.》

안해가 이렇게 귀뜸해주었을 때 나는 흠칫 놀랐다, 혹시 누가 앓아서 왕진이라도 청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불쑥 들어서였다.

나의 의문을 알아차리기라도 한듯 중년의 그 녀인은 상냥하게 인사를 건네며

《전 여기 담당의사인데 건강검진을 나왔습시다.》하고 말하는것이였다.

《예...》

나는 어쩡쩡한 태도로 머리를 끄덕이긴 하였지만 속으로는 반신반의하지 않을수 없었다.

건강검진에 대해서 말하면 우리가 여기 이사하기 이전에도 담당의사들이 자주 찾아와서 진행하군하던 《정상적인》 사업이어서 별로 신비하지 않았다. 하지만 담당의사가 찾아온 그 사실자체는 놀라웠다.

왜냐면 우리는 새 살림집에 이사온지 얼마 되지않아 아직 수속도 끝맺지 못한 상태였다. 그런데다가 인민반도 방금 구성되었고 더구나 아직 진료소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네 벌써 우리를 담당한 의사가 먼저 찾아온것이다.

《참 의사선생두... 앓는 사람이 있으면 의례히 병원에 찾아갈터인데 이렇게...》

나는 그의 수고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이렇게 인사를 건네었다.

그러자 녀인은 오히려 놀랍다는듯 쌍꺼풀진 눈을 동그랗게 올리뜨며 상긋이 웃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의학은 예방의학이라고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엔 치료사업도 중요하지만 병이 나지 않도록 미리 예검, 예방하는 사업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답니다, 또 그렇게 하는것이 우리들의 본분이기도 합니다.》

녀인의 목소리는 시내물같이 조용하면서도 사람의 심금을 울려주는 그 무엇이 있는것 같았다.

처음듣는 소리도 아니요 또 사회주의의학의 본질에 대하여 비로소 방금 깨달은바도 아니건만 그의 말을 들으니 이상스레도 가슴이 후터워오는 것이였다.

의사담당제, 건강검진... 치료받아야 할 사람들은 병원도 모르고있는데 치료해줄 사람이 집집을 찾아다닌다. 참 얼마나 고마운 제도인가.

방안에 들어와 앉은 그 녀인은 먼저 투병이 하얀 책 한권을 펼쳐들더니 우리 식구 매 사람들의 나이며 지난시기의 건강상태, 심지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가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적어넣는것이였다. 그리고나서야 그는 어머니부터 차례로 검진을 시작했다. 짹짹스레 진찰을 하고 혈압을 재고 하는 일을 다 끝냈을 때는 시간이 어지간히 흘렀다.

건강상태는 모두가 이상이 없는데 어머니가 혈

압이 정상보다 조금 높았다.

담당의사는 약봉투를 꺼내어 어머니에게 내주면서 자기가 자주 나와서 혈압을 재어보겠으니 절대안정해에 한다고 신신당부하고 자리를 일었다. 어머니가 식사라도 같이 하려고 했으나 너인은 다음집에 또 가봐야 한다면서 처음 인상 그대로 상냥하게 웃으며 문을 나쳤다. 온 식구가 그를 바라왔다.

잠시후에는 옆집에서 딸랑거리는 초인종소리가 울렸다. 저 종소리는 이제 얼마간의 사이를 두면서 그 너인이 찾아가는 매 집집마다에서 울릴것이다.

《참 고마운 일이지. 옛날 같으면 꿈이라두 꾸었을라구.》

방안으로 들어오며 어머니가 생각에 잠겨 하는 말이였다.

나는 마음속으로 어머니의 말을 긍정하며 창가로 다가갔다. 그러자 지금까지 왜 나는 이런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던가 하는 의혹감이 불쑥 머리를 쳐들었다.

목이 말라야 물이 귀증함을 안다고 태어나서 40여년간 오늘까지 무상으로 약을 받고 무상으로 치료받는데 습관되어 너무도 웅당한 일로만 여겨온 내가 아닌가. 늘 공기를 마시고 태양의 빛속에서 살면서도 그 공기와 태양의 귀증함을 느끼지 못하는것과 같다고 할가.

나는 창밖을 통해 불야성을 이룬 거리의 밤풍경을 점도록 내려다보았다. 도로 건너 고층건물들사이로는 불빛이 밝게 어린 산원의 웅장한 자태가 안겨왔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저 불밝은 방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며 그 애들의 캐득거리는 웃음소리에 행복의 미소를 짓고 있을 수백수천의 어머니들은 자기들이 지금 몇천 몇만원어치의 혜택을 무상으로 받고있다는것을 알기나 할가.

아니, 중요한것은 그것이 아니다. 이것은 결코 돈이나 산수적개념으로써는 계산할수 없는것이다.

준엄한 전쟁의 나날에 벌써 세상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무상치료제, 이는 우리 인민을 가장 아끼고 귀중히 여기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인간사랑의 정화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속에서 사는 우리들은 그 은정의 파사로움에 대하여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왕왕 있다.

내 경우를 봐도 그랬다.

이틀전인가 우리 집에 인민학교 녀교원이 다녀

간적이 있다. 올해에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딸애의 교복이며 학용품을 한아름 안고 왔었다. 그때도 나는 그저 범상한 일로만 생각하지 않았던가. 짚아보면 우리가 생활속에서 모르고 받아안은 혜택은 끝이 없을상시다.

그런데 곰곰히 생각해보니 저도 모르게 받아안은 그 혜택들이 초인종소리와 함께 우리 집으로 흘러들었다는데 주의가 갔다.

그 녀교원도 초인종을 앞세우고 출입문을 넘어섰고 담당의사도 그랬다. 그밖에도 얼마나 크고 작은 모든 기쁜 일들이 저 종소리와 함께 찾아들었던가. 또한 불쑥불쑥 나타나군하는 반가운 손님들도... 그와 반면에 종소리의 뒤끝에 불행이 찾아든적은 여직 한번도 없다.

불현듯 나의 머리속에는 어머니가 가끔 눈물을 흘리며 들려주던 얘기가 떠올랐다.

내가 태어나기전인 해방전 여느해였다든지... 그때 어머니의 고향마을에 심한 전염병이 돌았다.

그때 어머니는 그 전염병이 집안으로 침습하는것을 막아보려고 아이들은 방안에 가두어놓고 문을 안으로 꽁꽁 달아놓았다고 했다. 문밖에서 사람의 발자국소리만 나도 두려워 문도 열어주지 않고 돌려보냈다. 그러나 억척같이 단아맨 방문도 아무방지대책이 없는 병마를 막을수 없었고 돈이 없었던 탓에 두 아들을 잃고야말았다. 그들이 바로 나의 형들이라고 했다. 그뿐이 아니다. 늘 모기처럼 달라붙는 빗쟁이들의 성화때문에 문을 단아매고 가슴을 조이며 살았다 한다. 병이 무섭고 사람이 찾아오는것마저 무섭던 시절이였다.

지금은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옛말로 되었다.

얼마나 판이한 대조인가.

나는 오늘에야 비로소 초인종소리가 울릴 때면 호기심과 함께 마음속에 깃들던 이상야릇한 흥분감이 어디서 오는것인지를 깨달았다.

종소리 뒤끝에 찾아올 새로운 향기와 웃음, 바로 그에 대한 예감때문이 아니겠는가.

하기에 집식구들 누구나가 그 종소리를 즐겨마중하는것이 아닌가.

아니 바로 그 초인종소리와 함께 고마운 우리 조국의 혜택이 집집마다 들어갈진데 온 나라의 집들마다에서 그 종소리를 즐겨 마중할것이였다.

이런 생각에 잠겨 가만히 귀기울이느라니 어디 선가에서 딸랑거리는 종소리가 들려오는듯싶었다. 혹시 그 담당의사가 울리는것이 아닐가.

시조

말로 하지 않은 효성

송명근

삶과 빛

...이 춘실이냐 뭐라고 그렇게 세상에 소문을
내주시고
꿈에도 바랄수 없던 그런 사랑을 다
돌려주시는것입니까.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 올린 정춘실
2중영웅의 편지중에서)

태양의 품에서 받은 삶
누구나 불타면 빛이 되리라
불타지 않으면 한갓 돌덩어리!

울감자 다섯말값의 초라한 인생이
어떻게 두개의 금별로
온 나라에 빛을 뿌리게 되었는가?

그 어떤 삶의 《묘술》이 가져다준 금별인가?
그 어떤 운명의 《계기》가 내려준 행운인가?
파헤쳐보라, 파헤쳐보라

진거름에 묻힌 《풍년덕》 《비단덕》의
이랑이랑을
보물인 《우리 가정수첩》의 갈피갈피를
그러면 문득 뿜어나는 빛에 눈이 시그러우리라

불타며, 불타며 건강도 육체도
인민의 심부름군으로 깡그리 태워
인민의 기쁨밑에 묻을 때 삶은 영광의 빛이
되누나!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는곳

마을에서 먼먼 200리
깊은 산중
산열매따던 천막이었습시다
친히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은곳은

엎어질듯
발을 헛짚으며
산열매향기 폭 배인 작업복 그대로였습시다
풀물든 손 그대로였습시다
꿈처럼
수령님 보내주신 차에 오른것은

문득 오시여
문득 불러주신때문입니까
오시면 먼저
보고싶다고
때없이 찾아주신때문입니까

늘 이러했으니...
봄이면 거름내는 원료기지 등판에
여름이면 뿜파는 골짜기에

가을이면 또다시
새 땅을 일구는 개간지, 열매거두는 산마루에
상업관리소일군이여, 그대는 늘 있었으니...

달리는,
달리는 될수 없을것이외다
언제나 수령님의 부르심 받는곳은
호미를 들고...
질통을 메고...
무엇 하나라도 더 차례지게 하려고
인민 위해 아글타글 허리굽히는
심부름군의 그 자리!

그러하오이다
누구나 한평생
가슴들먹이며 그리는 순간이지만
바란다고 차례지는 영광아니고
길목지켜 만나는 행복이 아니어니,

마음깊이 지니시라 간직하고 사시라
누구나 서야 할 이 자리
수령님의 다정한 부르심이 먼저 닿는

제일 가까운 자리...

수령님을 모시는곳

아버이수령님을 모시기엔
너무도 작은 목조건물이었더라
17살 단발머리 판매원으로
수령님곁에
철없이 기쁘기만 하던 그 매대는

철없던 그 마음이
나이들며 송구함을 알아
다시 지은 돌집이었어라
《우리 가정수첩》을 한장한장 펼쳐보시며
그리도 기록해하신
수령님을 다시 모신 상점은

제 식솔처럼 온 군의 주민들을 돌보라고
그날에 주신 사랑 생각할수록
매대가 작았더라
지붕이 낮았더라
그래서 도시백화점 부럽지 않게
번듯이 안아세운 4층집이었어라
수령님 모시고 기념사진 찍은곳은
낮은 목조건물이

아담한 돌집으로
다시 흰한 4층집으로...
넓어지고 높아지는 사이
나의 기도 받드는 마음도 자랐겠지요

자라날수록
이 가슴에 더 무거운것은
우리 두메인들의 생활을 위해
개고개 험한령 넘고 또 넘으시는 사랑뿐,
아, 배움의 천리길...광복의 천리길에 찍으신
자욱이어
오늘도 끝나지 않으신 인민 위한 역만리!

그래서 제손으로 뿔발을 일쿠고
통이 크게, 더 판이 크게
해리서며 은혹색여우를 기르고
그래서 자꾸만 불어난 상품으로
끝없이 밀려드는 사람들의 물결로
또다시 비좁아진 매대여라
아버이수령님 다시 모실곳은

말로 하지 않은 효성

내 역겨워졌노라
말로 하는 효성은
말로 한다면야
품 한자루 안들이고도
《지극한 효자》가 얼마나 많을것이기에

허나 그대는
그대만은 입으로 아니했거니...
10만이 넘는 주민들의 살림살이
우리 당이 맡겨줄 때
선듯 팔소매 걷어붙이고 나선 일군아
어깨 먼저 들이댄 일군아

어디 한번 잡아보자
받아오는 상품으로 성차지 않아
나무뿌리 캐내고 뿔발을 일쿠느라...
늘어나는 해리서도 키우느라...
늘 터갈려있는 그 험한 손을

가슴에 영웅메달이 빛날 때
그대의 어깨에선 질통이 내려질줄 몰랐지
두개의 금별메달이 절렁거릴 때
잔등의 거름무지는 갑절 더 높아졌지

큰 훈장을 다 받고나면
홀가분해지는 어 깨도 있더라만,
믿음이 커갈수록
보답의 짐을 더 무거이 얹은 그대

녀인의 섬약한 손이라기엔
녀인의 좁은 어깨라기엔
가꿔내고 떠메온 인민의 기쁨이
너무 커서
내 무슨 말인가 한마디라도 하고싶구나
인민의 감사가 어린 따뜻한 말을

좀 쉬이라...
귀밑머리 적시는 땀 잠시라도 식히라...
기울이는 그 마음이면 더 바랄것 무엇이랴만
인민을 위해 일을 하다가
일터에서 숨지는것 소원이라니
끝없이... 인민은 아끼고싶은 마음이구나

허나 내 아노라
가벼워질날 없을것을, 효성의 그 어깨는!
날로 높아가는 인민의 요구밑에

언제나 깊숙이 들이대고있기에...
인민의 기쁨으로 가꿔낼수 있다면
이 땅의 온갖 일을 제몫으로 떠메이기에...

아, 말로 아니 하는것 효성이여서
아, 말로 할수 없는것 효성이여서

손으로 어깨로 몸으로 한 일군이여!
내 민노라 이런 효성은
인민의 기쁨속에 길이 남으리
무거운 짐 메고가는 발자국일수록
더 깊숙이 찍혀지는것이기예...

지휘관의 구령소리

없었더라
목에 피줄을 세우는
《앞으로 나가자!》 구령소리는
그저 말없이 삽을 메고
제일 먼저 개간지로 올랐더라, 우리 소장은

없었더라
땀별아래 쇠내가 나도록
김매기를 다그치는 구령소리는
언제나 밭이랑 앞줄을 타고
억척스레 풀을 잡아나갔더라, 우리 소장은

모르더라 웬일인지
판매원도 창고장도 절로 산에 올랐더라
뒤질세라 밭이랑을 탔어라 땀미역을 감으며
가슴들엔 불이 황황 일었어라
구령소리는 없는데도, 없었는데도...

있었어라 분명
가장 힘있는 지휘관의 구령소리
심장을 이끄는 우린 소장의 구령소리는
별빛을 밝으며 앞서가는 발자국소리!
밭이랑을 타고 앞서가는 호미질소리!

딸의 마음에 심어진 눈물은

춘실이아 온다길래
이렇게 기다리고있다고
정원까지 나오시여 반겨주신 수령님
뵈옵던 이야기끝엔 따르는 눈물...

오사리가 모자라는 강냉이이삭을 드시고도
해리서며 은혹색여우를 보시고도
용타고, 등을 두드려주시던
수령님을 생각하면 다시 젖는 이 가슴...

제 한 가슴에 받아안은
사랑에 겨워, 겨워서입니까
누구도 다 모르는 수고를
수령님 헤아려주셔서입니까
참고참던 눈물을 그만에야 쏟친것이

보여드린것은
몇만톤의 알곡더미도 아니고
몇만필의 비단도 아니언만
인민들에게 차례질

한가지 한가지가 대견하시여
대단히 고맙소,
내가 먼저 인사를 해야겠소...하시며
수령님은 환히 웃으시는데

아, 이 딸은 눈앞이 흐렸습니다
제한일 아껴주시는 사랑속에
인민 위해 기울이시는
그 심려의 간곡함이 안기여와서...
딸이라면서, 땀이 된다면서
아버이의 심중에 그리도 크게 자리잡은 인민을
더 환히 내세우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맺혀서...

격동이 지나면
이슬처럼 말라버릴 작은 방울 아닙니다
위대한 사랑이 빚어내린 눈물은
방울방울 딸의 마음에 심어진 눈물은
한생토록 효성으로 의리로
싹트고 무성할 씨앗입니다!
씨앗입니다!

문학예술혁명의 새로운 양양을 추동하는 불멸의 기치

최길상

문학예술혁명은 어제만이 아니라 오늘도 래일도 문학예술의 모든 부문이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게 개조될 때까지 중단없이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한 정도를 받으며 우리 문학예술은 90년대의 새로운 전환의 길에 들어서고있다. 주체문학예술이 이룩한 성과는 류레가 없는 인류문예사적인 사변이며 민족문화사의 새로운 력사적인 장을 펼친 혁명의 전취물이다. 우리는 조금도 자만하지 말고 문학예술혁명을 계속 다그쳐 문학예술의 모든 부문을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1992년 5월 23일에 문학예술부문일군 및 창작가, 예술인들과 한 담화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는 문학예술부문의 계속혁명을 추동하는 강령적지침이며 불멸의 기치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주체문학예술건설에서 기수적인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에는 주체적문예사상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어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일부 창작가, 예술인들속에서 문학예술혁명이 이미 1970년대에 끝난것처럼 생각하면서 문학예술부문에서 새로운 창작적양양을 일으키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있는 실태를 통찰하시고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창작사업을 포치하시고 거기에 힘을 넣으시여 문학예술혁명을 더욱 추동하는 선도적기수로 되게 하여주시였다.

불후의 고전적로작 **《다부작예술영화〈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에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이러한 위대한 사상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어있다.

1

고전적로작에는 먼저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사상에술적성과가 미학실천적으로 총화되어있다.

로작에서 밝혀주고있는바와 같이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주체문학예술의 빛나는 총화작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을 창작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한해가 되였습니다. 그동안 애로와 난관이 많았지만 동무들은 높은 충성심을 가지고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제1~7부를 걸작으로 만들어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에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상과 의도가 구현되어있는 주체문학예술의 정화이다. 여기에 바로 이 영화가 주체문학예술이 빛나는 총화작으로 되는 근거가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종자를 민족의 운명이자 개인의 운명이라는 철학적무게가 있는 종자로 잡아주시고 작품의 사상적대를 세우는 문제, 인물성격을 전형화하는 문제, 인물들의 극적과제를 설정하고 력사적사실을 진실하게 그리는 문제, 생활을 세 부화하여 그리는 문제를 비롯하여 문학의 연출, 연기, 촬영, 미술, 음악형상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였다. 이 작품은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에 기초하여 창작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있다. 이리하여 주체적문예사상, 주체의 인간학을 훌륭히 구현하고있는 대표작으로 될수 있었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이 주체적문예사상, 주체의 인간학을 훌륭히 구현한 대표작으로 될수 있는것은 그 종자에 의하여 담보되고있다.

작품이 안고있는 민족의 운명이자 개인의 운명이라는 종자에는 민족의 존재와 번영을 담보하는 민족의 생명인 자주성에 관한 문제가 체현되어있다. 민족의 운명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민족의 자주성에 관한 문제이다. 자주성을 가지는가, 못가지는가, 그것을 어떻게 옹호하고 실현해나가는가 하는데 따라 민족의 운명이 좌우된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민족의 자주성문제를 주체의 인간학에 기초하여 예술적화폭으로 깊이있게 그리고있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인물성격창조와 생활묘사에서 자주성을 바탕으로 하여 일반화와 개성화의 통일을 실현하며 주인공들의 내면세계를 보여주는데 초점을 집중할데 대한 주체의 인간학의 기본요구를 깊이있게 구현하고있다. 이 영화의 제1부~7부까지는 《반공》이나 련공이나 하는 운명의 갈림길에서 모대기며 방황하던 주인공들의 꼭절많은 인생행로를 펼쳐보이면서도 그들이 뿌리깊은 사대와 《반공》의식을 버리고 민족자주의식을 체현한 새 인간으로 성장하는 자주적의식발전과정을 일관하게 부각하고있다. 그리

고 오랜 역사적시기에 걸치는 다양한 생활을 폭넓게 펼쳐보고있지만 그 생활을 주인공들의 내면세계와 성격발전과정을 여러모로 깊이있게 보여주는데 부족시키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주체사상화위업수행에 이바지하는 우리 문학의 근본사명에 맞게 작품의 대를 튼튼히 세우는 문제를 문학예술에 대한 지도에서 중요한 문제로 보시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문학예술의 여러 형태에 옮길 때와 총서《불멸의 력사》와 시, 가사 작품들을 지도하시면서 작품의 대를 바로세우도록 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고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다부작예술영화는 당의 령도밑에 문학예술창작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주체의 인간학의 요구에 맞게 작품의 대를 튼튼히 세워나가고있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동백기름을 바른 영화이고 매 장면, 매 화면이 세부에 이르기까지 조금도 흠잡을데 없는 미남이고 영화이다. 이 귀중한 성과는 문학창작에서 인간생활의 세부를 철학적으로 진실하게 파고들는데 대한 당의 문예방침을 훌륭히 구현한데서 이룩할수 있었다.

참으로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당의 령도밑에 지난 기간 문학예술의 모든 부문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훌륭히 받아들였을뿐 아니라 그것을 더욱 높은 경지로 발전시켰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이 주체적문학예술의 빛나는 총화작으로 되는것은 또한 조선의 념과 조선의 기상, 조선의 향취가 집중적으로 체현된 조선을 대표하는 영화, 조선영화의 얼굴로 되기때문이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에 체현되어있는 조선의 념은 다름아닌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가 제일이며 우리 사회주의조국이 제일이라는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이다.

영화에서는 최현덕, 차흥기를 비롯한 곡절많은 인생행로를 헤쳐온 주인공들의 운명을 통하여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지니지 못한 사람은 나라와 겨레를 배반하고 반역의 길을 걷게 되며 비극적인 운명을 면치 못한다는 진리를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우리 수령, 우리 당, 우리 인민, 우리 사회주의조국이 제일이라는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은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에 일관되어있는 기본사상이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에는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고 재더미만 남았던 이 땅우에 가장 우월한 우리 식 사회주의를 일떠세운 조선의 영웅적기상,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책동으로 하여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되는 엄혹한속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

켜나가는 우리인민의 혁명적기상이 내려치고있다. 영화에서는 전투장면을 장황하게 늘어놓지 않으면서도 우리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정치도덕적우월성과 미제놈들을 타승한 영웅적기상을 힘있게 보여주고있으며 조국의 현실을 많이 펼쳐보이지 않고 주인공들의 극적인 생활에 필요한것만 내놓으면서도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잘보여주고있다.

다부작예술영화에서는 또한 우리 인민의 응심깊은 정신세계와 조상전래의 미풍량속이 배여있고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자연에서 우러나오는 리없이 맑고 깨끗한 조선의 민족적향취가 풍기고있다. 영화의 매 부들의 서경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있는 수난당하는 우리 민족의 참상을 보여주는 화폭, 《아리랑》의 선율이 흐느끼듯 울리는 데 뒤이어 조국땅에 드리운 암흑을 헤가르며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 거연히 솟아오르고 그우에 장군별이 반짝이며 노래 《내 나라 제일로 좋아》가 울리는 장면은 생활과 정서에 있어서나 그 형상성에 있어서 조금도 흠잡을데 없는 조선적인 화폭이다. 영화의 전체 화폭에 질게 풍기는 조선적인 향취는 거대한 정서적침투력과 감화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심금을세차게 울려주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구체적이고도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세계적인 걸작으로 창작되고있다.

작품은 당의 사상과 의도를 구현하여 세계적으로 의의있는 민족문제를 제기하고 심오한 철학적해명을 주고있다. 민족문제는 비단 우리 나라에서뿐아니라 세계적인의를 가지는 인류공동의 과제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류문예사에는 민족문제를 정면에 제기하고 심오한 해답을 준 작품이 별로 없다고 말할수 있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자주성을 사람의 생명, 나라와 민족의 생명으로 보는 주체철학에 기초하여 민족의 사활적인 문제를 정면에 제기하고 그에 옳바른 해답을 주고있다. 제기한 문제에 있어서 세계적인 의의를 가지며 이에 깊은 예술적해명을 주고있는 바로 여기에 이 영화가 세계적인 걸작으로 되는 주되는 근거가 있다.

돌이켜보면 지난 시기 세계문학예술계에서는 주로 모성애, 남녀간의 사랑, 선과 악, 도덕적량심 등과 같은것을 인류공통적인 관심사로 되는 주체로 여겨왔으며 사회주의사실주의가 나온 다음에야 비로소 계급해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선행한 사회주의사실주의문학에서 제기한 모든 인간문제는 민족문제의 한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계급과 계층도 민족의 한 구성부분이고 개인의 운명이 민족의 운명과 밀접히 련관되어있는것만큼 계급해방문제는 민족해방문제, 민족의 자주성을 이룩하는 문제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유구한 인류문학예술이 옳게 해명할수 없었던 민족문제, 민족의 자주성문제는 주체사실주의문학에 와서 완벽한 해명을 보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친히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안중근 이등 박문을 쏘다》**, **《꽃피는 처녀》**, **《피바다》**, **《한자위단원의 운명》** 등에서는 일제에 의하여 수난당한 우리 민족의 운명에 대한 문제를 전면에서 제기하고 그에 심오한 해답을 주고있다.

주체사실주의문학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본보기로 하여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자주성을 민족의 생명으로 보고 온 겨레가 단결하여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주체적민족관을 빛나게 구현하고있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포괄하고있는 내용과 규모의 방대성, 주제해명의 깊이에서도 세계적인 걸작이다. 세계영화력사에는 수십부에 달하는 다부작예술영화가 적지 않지만 **《민족과 운명》**처럼 웅근 한세기에 걸치는 민족수난의 역사와 민족번영의 역사를 민족의 운명을 안고 몸부림치며 그것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의 길에서 파란곡절을 겪어온 각이한 계급, 각이한 계층의 인물군상을 주인공으로 하여 방대한 규모로 형상한 영화는 일찌기 없었다. 그리고 수십년의 역사적과정을 국내는 물론, 세계의 여러 나라를 무대로 하여 다양하고 폭넓게 펼쳐놓으면서도 그것을 극적으로 집약화하여 형상의 폭과 깊이를 다같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한 영화는 없다고 볼수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비범한 예지와 예술적 천품, 현명한 정도와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그 사상적내용과 예술적형상에서 주체적문학예술을 빛나게 총화한 나무랄데 없는 세계적인 기념비적걸작이다. 이것은 주체적문학예술의 빛나는 앞길을 전망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이며 그 위력을 과시한 생동한 현실이다. 하기에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90년대 문학예술혁명의 새로운 양양을 위한 불멸의 리정표로, 선도적기수로 된다.

2

고전적로작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는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를 문학, 영화, 가극, 연극, 음악, 무용, 교예를 비롯한 문학예술의 모든 부문에 일반화하여 주체문학예술건설에서 다시한번 일대 양양을 일으키기 위한 과업과 실천적방도들을 심오하게 밝혀주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를 문학, 영화, 가극, 연극, 음악, 무용, 미술, 교예를 비롯한 문학예술의 모든 부문에 일반화하여 주체문학예술건설에서 다시한번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합니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예술의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시대와 력사가 우리앞에 제기하고있는 절박한 과업을 정면에서 제기하고 예술적으로 깊이있게 해명하는것이다. 그것이 바로 민족의 운명문제에 대한 예술적해명이다.

민족문제는 근 반세기에 걸치는 인공적인 민족분단의 비극을 겪고있는 우리 나라에서 더는 미룰수 없는 력사적과제로 나서고있다. 오늘 우리 혁명앞에 하루빨리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여 민족의 운명문제를 해결하는것보다 더 절박한 과업이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주체문학예술에서 민족의 운명문제에 대하여 예술적해명을 주는것보다 더 절박하고 선차적인 인간문제는 없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상과 의도를 반영하여 우리의 문학예술에 민족의 운명문제를 제기하고 깊이있는 예술적해명을 줌으로써 온 민족을 통일성업에 힘있게 불러일으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신 우리 대에 조국통일을 이룩하도록 이바지하는 여기에 바로 우리 작가, 예술인들이 당과 수령께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 참된 길이 있다.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것이다.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을 하나로 굳게 묶어세우는 사업은 정치적공세, 정치선전만 하여가지고서는 안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사람들의 심장을 틀어잡고 마음을 움직이는데서 문학예술이 큰 역할을 한다고 하시면서 정치가 뚫고 들어가기 힘든곳도 문학예술은 뚫고 들어갈수 있으며 총포를 가지고 쟁취할수 없는것도 문학예술을 가지고 쟁취할수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우리 문학예술의 총적사명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며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인 것만큼 마땅히 문학예술작품에 주체의 혁명관과 민족관이 짙게 들어차야 한다.

문학예술작품에 주체의 혁명관과 민족관을 구현하는데서 근본문제는 혁명적수령관을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그리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예술작품에 혁명적수령관을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구현하는것이 중요합니다. 혁명적수령

관은 우리 인민의 모든 사색과 활동의 출발점이며 우리인민의 사상과 리념에 관통되어있는 근본 책임입니다.》

세계의 그 어느 나라에도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한평생을 오로지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우리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같은 위대한분은 없으며 우리수령님과 우리 당이 제일이라는것이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철석같이 간직된 신념이며 당과 수령을 천만년 높이 우러러모시고 따르는것이 우리 인민의 변함없는 신조이고 의지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도 수령님의 높은 권위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문제도 위대한 령도자의 높은 권위와 령도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오늘의 현실이 실증해주며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예술적해명에서 보느바와 같이 지난날 공산주의라고 하면 덮어놓고 등을 돌려대고 지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어버이품에 안기여 조국통일위업에 한생을 바치리라 결심하고 나서는것도 다 우리수령님과 지도자동지의 절대적인 권위와 위대성에 매혹되었기때문이다. 이 절대적인 권위와 위대성에 의하여 오늘 우리 나라가 세계에 존엄을 떨치게 되었고 우리 혁명에 대한 지지자, 동정자 대렬이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문학예술작품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위대한 사상가, 탁월한 정치가, 천재적인 전략가로서의 우리 수령님과 지도자동지의 높은 권위를 깊이 인식시키며 수령님과 지도자동지에 대한 끝없는 존경심과 흠모의 정을 키워주는 데 힘을 넣어야 한다. 이리하여 어떤 생활경위를 가진 인물이건 우리 수령님과 지도자동지같은분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으며 오직 수령님과 지도자동지의 품에서 탁월한 령도를 받으며 한생을 충실히 살아갈 때에만이 민족의 운명도 구원되고 자신의 삶도 빛내일수 있다는 진리를 깊이 있게 보여주어야 한다.

고전적로작은 문학예술작품에서 혁명적수령관을 훌륭게 구현하기 위한 방도에 대하여 명철하게 밝혀주고 있다. 문학예술작품에 혁명적수령관을 훌륭게 구현하기위하여서는 수령은 혁명과 건설에서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상을 깊이있게 밝히는것이다. 력사발전에서 수령의 지위와 역할은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다. 수령은 개인이 아니라 혁명과 건설의 최고 뇌수이며 통일단결의 중심이다. 수령을 개인으로 보고 그리면 혁명투쟁과 력사발전에서 수령이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줄수 없으며 수령의 형상이 개인의 형상과 다름이없이 되고만다. 우리의 주체

적문학예술에서는 수령형상에 관한 당의 문예 사상과 리론에 철저히 기초하여 수령형상작품을 창작하여야 한다. 특히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심오히 밝혀준 수령형상작품의 고유한 생리에 맞게 사회정치적생명체

의 뇌수이며 중심으로서의 수령의 형상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창조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수령을 혁명과 건설의 최고뇌수로,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우러러모시도록 적극 이끌어주어야 한다.

혁명적수령관을 문학예술작품에 훌륭게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이 문제를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형상하는 몇몇 작품에만 국한시킬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학예술작품에서 전면적으로 심오하게 구현하는것이 중요하다. 비록 수령님과 지도자동지를 직접 형상하지 않는 작품인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다 당과 수령의 혁명사상과 현명한 령도, 고매한 덕성과 관련되어있다는것이 뚜렷이 강조되어야 하며 당과 수령을 떠나서 우리가 수행하는 그 어떤 위업도 인민의 행복도 있을수 없다는 사상이 힘있게 울려나오게 되어야 한다.

고전적로작은 문학예술작품에 주체의 철학적세계관과 인생관을 훌륭게 구현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에 대하여 독창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인민대중을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보느것이 우리의 철학적세계관이며 인민을 위해 복부하며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것이 자신의 인생관이라고 하시였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좌우명으로 삼아오신 《이민위천》, 《이신위민》의 리념이 자신의 확고부동한 생활신조라고 하시였다. 문학예술작품에서는 인민을 하늘같이 여기고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오신 수령님의 《이민위천》, 《이신위민》의 뜻을 이어받아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고계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주체의 철학적세계관, 인생관을 깊이있게 보여주어야 한다.

문학예술작품에 주체의 철학적세계관과 인생관을 훌륭게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인간생활의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중심의 관점과 립장에서 분석하고 평가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하는것은 작품평가의 기본척도이다. 인민대중이 좋아하고 잘된 작품으로 평가하는 작품이라야 주체의 철학적세계관과 인생관이 훌륭게 구현된 작품이라고 말할수 있다.

오늘 우리 문학예술작품에 혁명적라관주의를 깊이있게 구현하는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고전적로작은 정세가 긴장하고 복잡한 문제가

제기되어도 우리 인민들이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그 승리에 대한 굳은 확신을 가지고 그 어떤 세 상풍파에도 추호의 동요없이 우리 식 사회주의의 길을 개척하고 지켜가고있는 혁명적락관주의를 깊이있게 구현할데 대하여 밝혀주고있다.

혁명적락관주의는 노동계급의 력사적사명과 혁명위업의 정당성, 승리의 필연성을 굳게 믿고 그 어떤 간고한 조건에서도 절개를 굽히지 않은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이며 휘황한 앞날을 내다보면서 언제나 락관적으로 생활하고 투쟁하는 고상한 사상감정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의 령도따라 자신이 선택하고 개척하여온 우리 식 사회주의를 끝까지 옹호고수해내는 확고부동한 신념에 가득차 있다. 그 어떤 원쑤도 우리 인민을 놀래울수 없으며 굴복시킬수 없다. 문학예술작품에 우리 인민의 이러한 락관적인 의지를 깊이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문학예술작품에서는 자주성의 시대인 우리 시대에는 오직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만이 백전백승의 길이며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된 우리의 위력을 당해낼자는 이 세상에 없다는 철의 진리를 깊이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 인민이 용기백배하여 사회주의의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여 힘차게 전진할수 있게 고무하여주어야 한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주체의 미학과 문예관을 작품에 잘 구현하여야 한다.

로작에서 밝혀주고있는바와 같이 인민대중이 좋아하고 우리 민족의 감정에 맞는것을 가장 아름다운것으로 보는것이 주체의 미학과이다. 주체의 미학과는 력사상 처음으로 아름다운것의 본질과 그기준에 대한 완벽한 해명을 주었다.

아름다운것이란 사람의 자주적인 요구와 지향에 맞으며 사람에 의하여 정서적으로 파악하는 사물현상을 말하며 그 기준은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이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주체의 미학과를 창작실천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우리 인민과 우리 민족의 향과 요구에 맞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여야 한다.

주체의 문예관은 인간중심의 문예관이다. 주체의 문예관에서는 우리 식의 참다운 문학예술을 주체의 인간학으로 본다. 주체의 인간학은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심오한 해명을 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생활의 본질을 깨우쳐주고 참된 삶의 진리를 가르쳐준다.

주체의 인간학의 요구를 창작실천에 옹기종기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새롭고 의의있는 종자를 내세워야 하며 사건보다 성격을 중시하여야 한다.

창작에서 종자문제를 주체의 인간학의 요구대

로 옹기종기 해결하여야 작품의 사상미학적인도가 명백해지고 형상의 철학적심도를 보장할수 있다. 종자는 바로 사람들이 받아안게 될 사상정서적량식의 핵이다. 그리고 작품에 그려지는 모든 사건이 인물성격형상을 중심에 놓고 펼쳐져야 하며 사건이 성격과 성격의 호상관계에 의하여 생기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

고전적로작은 문학예술작품에 주체의 혁명적수령관, 철학적세계관, 혁명적락관주의, 미학과, 문예관을 밀접한 통일속에 구현함으로써 문학예술작품이 우리 당의 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되게 할데 대하여 밝혀주고있으며 이렇게 될 때 문학예술분야에서는 일대혁명이 일어나게 될것이라고 힘있게 강조하고있다.

고전적로작 《다부작예술영화〈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는 현실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문학예술의 내용과 형식을 탐구할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밝혀주고있다.

문학예술의 내용과 형식을 새롭게 탐구하는것은 문학예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문학예술의 내용과 형식은 현실발전과 시대의 미학적리상에 상응하게 발전하고 새롭게 탐구되어야 한다.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정치적생명체를 이루고있는 우리 나라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을 위한 투쟁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였다. 우리의 현실은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수많은 변혁과 기적으로 가득차있다.

우리 인민이 준엄한 시련을 이겨내면서 사회주의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가게 된것은 바로 일심단결의 위력에 근본요인이 있다.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은 원자탄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무한대의 힘을 낳는 원천이다.

우리 나라의 이 위대한 새로운 현실은 문학예술부문앞에 종래의 온갖 관점과 도식을 대담하게 버리고 내용과 형식을 새롭게 혁신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주체문학예술은 수령과 인민사이에 아버지와 자식사이와 같은 혈연적관계가 맺어지고 사람들이 혁명적의리와 동지애에 기초하여 한가정처럼 굳게 결합된 우리 나라의 참모습을 옹기종기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에 관한 사상에 기초하여 현실을 보고 그려야 한다. 바로 이러한 립장에서 수령과 당을 형상하고 인민대중을 형상하여야 한다. 수령, 당, 대중의 3위1체의 원칙에서 인간과 생활을 보고 그리는것이 내용을 새롭게 혁신하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이 요구는 당과 수령을 직접 형상하지 않는 작품인 경우에도 주인공의 생활과 투쟁이 당과 수령의 손길과 땀수 없

는 혈연적뉴대속에서 펼쳐지게 함으로써 사회정치적생명체를 반영하는것으로 되게 할것을 제기하고있다.

주체문학예술의 내용을 우리 나라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혁신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사상정신적풍모를 더 생동하고 깊이있게 그려야한다. 여기에서 특히 우리 시대 인간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면서 그들속에서 높이 발양되고있는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진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고전적로작은 문학예술의 내용이 새로와지는데 맞게 형식을 끊임없이 혁신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인민대중의 자주의식과 창조성이 더욱 높아지고 사람들의 미학적요구가 시대의 전진과 함께 발전함에 따라 문학예술의 형식을 혁신적으로 개척해나가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미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소설, 시, 아동문학, 극문학, 평론, 텔레비죤문학 등 문학의 모든 형태에서 형식을 새롭게 혁신할데 대한 명확한 방향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었다.

주체문학예술은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주체적 문예사상의 요구대로 내용과 형식을 부단히 개척해나가야 한다.

당의 의도대로 문학예술의 내용과 형식을 혁신하려면 창작가, 예술인들이 옳은 창작방법, 창작태도를 가지는것이 중요하다.

지난 시기에 쓰던 창작방법, 창작태도를 구태의연하게 되풀이해가지고서는 주체문학예술의 내용과 형식을 혁신해나갈수 없다. 특히 인물들의 전형화에서 낡은 창작 방법과 태도를 버려야 한다. 아직도 적지 않은 작가들이 같은 시대, 같은 계급의 인물들 가운데서 이사람한테서 한가지 특성, 저사람한테서 한가지 특성씩 따다가 한 인물에다 집중시키는 낡은 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그러다나니 긍정인물은 리상화되고 부정인물은 회화화되는 결과를 빚어내고있다. 이러한 낡은 창작방법, 창작태도를 가지고서는 우리 현실속에서 탄생되는 시대의 전형들을 옳게 그려낼수 없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당의 방침대로 현실속에 들어가 우리 시대 인간들을 깊이 체험하여야 한다. 인물을 꾸며내는것은 우리 식이 아니다. 조금만 현실속에 들어가도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심장을 울려주는 아름답고 영웅적인 소행들을 얼마든지 찾아낼수 있다. 우리 시대 인간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그대로 진실하게 반영할 생각은 하지 않고 무엇인가 꾸며내야 전형을 창조할수 있는것처럼 생각하는것은 낡은 창작태도이다. 그리고 어떤 매혹적인 인간, 매혹적인 생활에 끌려 작품을 쓰려하지 말며 어떤 문제를 미리 정해놓거나 어떤 사상부터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 인물 성격과 생활을 기계적으로 틀어맞추는 낡은 창작

태도를 가지고서는 도식주의적경향밖에 나올것이 없다. 이렇게 되면 작가의 주관이 앞서고 형상이 뒤따르게되며 딱딱하고 무미건조하여 예술적감화력을 담보할수 없게 된다. 문학예술작품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자면 독특한 성격과 생동한 생활을 발견한 토대우에서 형상이 창조되어야 하며 인간과 생활을 현실에 있는것과 같이 진실하게 펼쳐보여야 하며 그 과정에 창작가가 주장하는 사상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한다.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낡은 창작방법과 창작태도는 문학예술의 형태적특성을 잘 살리지 못하고 있는데서도 나타나고있다. 그러므로 지금 묘사의 문학이라고 하는 소설에서도 대사가 범람하고 묘사가 거의나 메마르고 정서가 없어 읽기가 따분하며 영화에서는 인물의 심리와 활동세계를 깊이 파고들대신 계속 말만 주고받기때문에 마치 연극을 보는 감을 주는 폐단도 있다. 대사를 기본 형상수단으로 하는 예술은 오직 연극뿐이다. 소설은 묘사와 같은 좋은 수단이 있고 영화는 행동과 같은 고유한 표현수단이 있다. 자기 고유의 형태적특성을 살리지 않고 대사를 많이 쓰는것은 사상과 인물의 성격을 뚜렷이 하겠다는 창작가의 주관적욕망에서부터 오는 낡은 창작태도이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온갖 낡은 창작방법, 창작태도를 버리고 우리 식 창작방법인 주체사실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주체사실주의는 우리시대의 문학예술의 가장 옳은 창작방법이다. 주체사실주의에 철저히 의거할 때에만 문학예술을 우리식으로 발전시킬수 있으며 시대의 요구에 맞게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올수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로작에서 문학예술의 내용과 형식을 새롭게 혁신하자면 창작가, 예술인들이 우리 인민들의 문화정서적요구를 잘 알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인간들의 미학적안목이 높아진데 맞게 철학성있고 지성도가 높은 작품을 창작하며 성격형상을 깊이있게 하는데 주의를 돌릴데 대하여 밝혀주시었다.

사람들이 인간의 운명문제에 관심이 높은것만큼 문학예술작품에서는 웅당 운명이 판가리되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간의 외적행동보다 내면세계에 더 관심이 높으며 창작가가 꾸며낸것보다 사실을 더 알고싶어하는 현대인들의 정서에 맞게 내용과 형식을 혁신해야 한다. 시대의 미학적리상에 맞게 문학예술의 내용과 형식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고 개척하고 탐구하는것은 주체문학예술의 위력과 그 생활력을 강화하기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주체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또한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켜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로작에서 1960년대, 1970년대에 문학예술혁명을 할 때에 먼저 영화예술부문을 추켜세우고 그것을 본보기로 삼았던것

처럼 1990년대에 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는데서도 영화예술부문을 앞세우고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영화는 문학예술의 여러분야를 다 망라하는 종합적인 예술이다. 그러므로 영화예술을 앞세우고 본보기로 내세우면 문학예술의 다른 분야도 그 본을 따서 새롭게 발전할 수 있다. 특히 우리 당의 사상과 의도에 의하여 시대의 걸작으로 창작되는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에서 주체사실주의가 어떻게 구현되고 새것을 어떻게 대담하게 개척하였는가 하는것을 깊이 새겨보고 적극 따라배워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켜야 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영화예술부문에서 당면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에 기초하여 새로운 혁명영화를 만드는것으로 새 출발을 할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문학부문에서도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체계적으로 형상한 총서 《불멸의 력사》의 창작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위대성을 형상하기 위한 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여야 한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지금 우리 인민은 물론, 세계인민들속에서도 폭풍같은 반향을 일으키고있는 조건에서 수령형상문학을 어떻게 새롭게 혁신하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더 깊이 탐구에 탐구를 거듭하고 모든 작가들의 지혜를 모아 새 출발을 하여야 할것이다.

이와 함께 문학의 모든 형태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로작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자면 문학부문에서 혁신을 일으키는것이 중요합니다. 문학은 예술의 선행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모든 예술의 사상 예술적기초이며 선결조건인 문학을 앞세워 발전시킬데 대한 일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를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늘 간곡하게 가르치시고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작가들이 당의 뜻을 옳게 받들지 못한것으로 하여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학예술작품을 활발히 창작해내지 못하고있으며 전반적문학예술발전에서 자기의 웅대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있다. 모든 작가들은 당의 의도를 깊이 새기고 높은 자각과 량심을 가지고 문학부문을 비약시키기 위하여 분발하여야 한다.

문학부문에 풍년이 들어야 예술전반에 풍년이 들수 있다. 주체적문예사상이 밝혀주는 휘황한 등대가 있고 당과 수령께 충성과 효성을 다하려는 작가들의 충성의 열도가 높은 한 우리에게 점령못할 령마루란 있을수 없다. 모든 작가들은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밝혀준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주체의 문예관을 더욱 철저히 확정하고 주체사실주의의 요구

대로 창작함으로써 우리 문학의 모든 부문을 새롭게 혁신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당의 뜻대로 예술의 선행관으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여야 하며 주체의 인간학의 높은 령마루를 점령하여야한다.

고전적로작은 당의 령도밑에 지난날 5대혁명가극을 창조하던 그런 기백과 정신을 가지고 1990년대에도 새로운 5대가극을 창조할데 대하여서와 연극예술부문에서도 새로운 5대연극을 창조하여 우리의 극장무대들이 1970년대처럼 다시 흥성거리게할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민족적이며 현대적인 우리 식의 새로운 가요를 창작하며 교향곡을 비롯한 다양한 형식의 기악곡을 많이 내놓을데 대하여서와 무용극을 창조하며 민속무용을 현대적미감에 맞게 잘 형상할데 대한 문제, 미술부문에서 여러가지 종류와 형태의 미술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 주체적인 교예예술을 더욱 높은 단계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 등 문학예술의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창작적양양을 일으킬데 대한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고있다.

고전적로작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는 우리 식 창작지도체계와 창조체계를 철저히 구현하며 창작가, 예술인들의 높은 정치적자질과 창작적기량을 높이는 문제, 문학예술에 대한 당의 령도를 더욱 강화하는것을 주체문학예술건설의 새로운 전환을 위한 근본문제로 제기하고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로작에서 특히 일부작가들이 문학에 대한 지식과 자매예술에 대한 조예도 깊지 못하며 생활철학이 받는데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예술적자질을 높이는데서 작가들이 앞장설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작가는 생활을 파고드는 철학가가 되여야 하고 박식가가 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 작가들의 형편은 그렇지 못하다. 모든 작가들은 시간을 쪼개가며 부단히 학습하고 탐구하고 사색하는 독학가, 정열가가 되여야 하며 해박한 지식과 함께 자매예술에 대하여서도 깊은 조예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지성인의 대표자로서 작가적사명을 다할수 있다.

오늘 우리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있어서 절실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모든 실력과 함께 깨끗한 창작적량심을 가지는것이다.

고전적로작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는 문학예술혁명을 계속 힘있게 벌려 문학예술의 모든 부문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해나가기 위한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이며 불멸의 기치이다.

위대한 사상의 빛발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문학예술은 주체의 향도를 드림없이 이어가며 1990년대에도 문학예술혁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갈것이다.

평론과 서사시에 대한 견해

-서사시 《땅의 노래》(강립석)를 읽고-

김상오

1. 평론에 대한 견해

《평론》이라는, 나에게서는 생소한 글을 쓰고 작품에 대한 론평까지 하게 되었으니 아무래도 그러한 글에 대한 나 자신의 견해를 미리 말해둘 필요가 있을것 같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가사가 좋아야 곡이 잘된다. 명가사에서만 명곡이 나올수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음악창작에서 가사가 좋아야 곡이 잘되고 오직 명가사에서만 명곡이 나온다는 명백한 말씀을 하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독자들과 일군들 속에서는 실지 창작에서는 가사보다 작곡이 어렵고 힘든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은것 같은데 그것은 그들의 인식부족에 인한것으로 생각된다.

가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어머니의 품에서 젖꼭지를 쥐고 배운 보통말로 쓰는것이다. 거기에 알지 못할 말마디는 하나도 없다. 쓰자고 마음만먹으면 누구든지 당장이라도 쓸수 있는것이다. 신비스러운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젊었을 때 시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있는가? 그러나 작곡은 다르다. 누구나가 알수 있는 보통말로 쓰는것이 아니라 5줄의 선우에 여느 사람은 죄통 알수 없는, 속칭 《콩나물대加里》라고 하는 《음부》를 그려넣는것인데 보통사람은 그것을 이해할수도, 해독할수도 없다. 그러나 그것은 가사와는 달리 특수한것이고 누구나 다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두가지 측면에서 잘못 생각했다. 첫째로 얼마간의 전문교육을 받은 음악인에게 있어서는 5선지우에 그려넣은 음부가 바로 그의 글자이며 음부의 련결과 여러가지 음악적 부호들로 구성된 악보가 곧 그의 언어이며 문장이라는 사실과 둘째로는 시나 가사에 쓰여진 글이 외형의 류사성에도 불구하고 어휘의 독특한 결합과 비유, 은유, 상징, 운률의 조성 등의 문학적수단, 소위 《언어의 련금술》로 시인에 의해 창조된,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언어와는 전혀 다른 언어라는 사실이다. 그들은 그 두가지 사실을 몰랐거나 그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것이다. 젊었을 때 시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없다는것이 사실일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중 후일까지 시인으로 남는 사람은 몇명 안된다는것 또한 사실이다.

내용과 양상은 좀 다르나 우와 류사한 관계가 작품과 평론사이에도 존재하는것 같다. 많은 독

자들과 적지 않은 문학관계일군들, 지어 일부 평론가들 자신에게조차 조성되어있는상식은 평론을 작품의 우에 있는 심판관 내지 교사로 치부하는 인식을 나는 념두에 두고 말한다. 그 까닭도 우에서 언급한바와 비슷한것으로 생각된다. 즉 작품은 시나 소설이나 다 누구나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생활용어로 쓰는데 반해 평론은 임이의것을 잠깐 들여다보아도 《주체》나 《형상》이니 《허구》, 《서정적주인공》과 같은 문학용어는 물론 론리학이나 철학부문에서 쓰는 학술용어까지 사용하며 서술방식도 묘사와 표상, 설명을 위주로 하는 작품에서와 달리 분석과 추리, 논리적증명, 귀결 등의 방식을 취한다. 그러므로 지적수준이 높지 못한 일부 독자들에게는 보다 고급의 글로 보이기 쉽다. 게다가 피고석에 앉는것은 언제나 작품이고 비평하고 평가를 내리는것은 평론이다. 이러한 리유들로 해서 일부 독자들속에서는 평론이 한단 높은곳에 앉아서 작품을 평가하는 심판자 내지 교사와 같은 인상을 조성한다. 이것은 어떠한 불가피한 현상일지도 모른다. 내가 말하는것은 평론가 자신이 그러한 인식에 빠지는 경우. 그리고 특히 그가 작품 평가에서 부정확하거나 착오를 범하게 될 때 그것이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작가에게 끼치는 피해는 물론 전반적문학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영향이 매우 크다는것이다.

나는 언젠가 어느 출판물에서 한 문학평론가가 서로 사랑하면서도 수집어서 마음을 터놓지 못하는 총각과 처녀의 사랑을 취급한 소묘적인 소품시를 《련애유희시》로 락인찍은 평론을 읽은적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평가라는것은 명백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순진한 총각과 처녀는 《련애유희》라는것을 할줄도 모르며 하지도 않는다는것은 누구나 알수 있는 단순명백한 리치이기때문이다. 물론 좋게 해석해서 작품의 사상성옹호에 열중한 나머지저질러진 실수로 간주할수도 있을테지만 어쨌든 작품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평가가 초래하는 후과는 예상외로 크다. 그 작품을 읽지 못한 독자는 물론 일부 읽은 독자들도 그 시를 추잡한 《련애유희시》로, 그 시의 필자를 그러한 《련애유희시》를 쓰는 시인으로 치부할것이다. 이것은 시인에게 참기 어려운 타격으로 될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우려되는것은 평론가가 높히 추켜든 사상성옹호의 대명분으로 오히려 작품의 사상성문제의 비속화가 초래될수 있으며 그러한 란폭한 독단이 일부 작가들을 극히 협애한 단일 통로로 몰아넣음으로써 우리 문학의 폭넓고 다양한 발전에 저해를 가져올수도 있을것이라는 점이다. 만약 그렇게 되면 그것은 매우 위험하고 유해로운 일이 아닐수 없다. 그런데 말하고싶은것

은 그러한 현상이 결코 희귀하지 않으며 그 반대의 경우 즉 작품을 잘못보고 근거없이 높이 평가하는 실례도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시평에서 어떤 작품을 시상이 참신하고 감정이 진실하며 형상이 잘됐다고 감탄부호까지 찍어서 찬양한 대목을 반가움과 기대를 가지고 읽다가 정작 그가 인용한 시에 그러한 좋은 요소들이 거의 보이지 않아 실망과 의혹을 느끼는 경우말이다. 이럴 때는 그 잘못된 평가가 초래하는 후과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성격과 정도에서 차이가 있을것이지만 문학발전에 유해롭다는 점에서는 다를바없다.

우에서 나는 작품에 대한 평론의 잘못된 평가가 초래할수 있는 후과에 대하여 말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말하자는 기본문제가 아니다. 내가 말하자는것은 평론이 작품의 심판관도, 작가의 교사도 아니라는것이다. 물론 평론에서 작품 평가의 기능을 부정할수 없다. 말자체가 평론이니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한된 의미에서이다. 왜냐하면 작품의 진정한 평가자는 독자대중이기때문이다. 평론은 서둘러 주관적인 판단으로 작품에 대한 심판을 내릴것이 아니라 독자들이 작품을 사상에술적으로 정확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그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감상할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자면 우선 평론가 자신이 작품을 주도세밀히 연구하여야 하며 작가가 작품에 구현하였거나 구현하고자 한 사상과 감정, 정서와 미학적지향 등을 밝혀내야 한다. 때로는 작가가 의도하고서도 작품속에 충분히 구현하지 못한것, 또 지어는 작가가 느끼기는 하면서도 미처 찾아내지 못한것까지 찾아내어 자기의 평론에 담을수있다. 평론가는 그렇게함으로써 독자들과 때로는 작가들까지 계발할수있을것이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로는 적어도 작가와 동등한 수준의 또는 그것을 통과하는 작품감상능력이다. 그러한 감상능력을 소유하지 못한 평론가의 평론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줄수 없으며 오히려 문학발전에 저해를 가져올수도 있을것이다. 둘째로는 작품에 대한 애정이다. 그런데 작품에 대한 애정은 작품에 대한 감상능력과 밀접한 호상연관관계를 이루고있다. 작품에 대한 애정은 작품에 대한 감상능력에서 흘러나오는것이며 감상능력 역시 애정 없이는 생겨날수 없는것이다. 어떻게 훌륭한 평론을 위해서 작품에 대한 애정은 필수불가결한 조건일뿐 아니라 그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외국의 이야기이지만 당대의 유명한 한 문학평론가가 쓴 책에서 그가 자기의 전 생애에 어떤 한 작품(장편소설)을 60회이상 읽었다는 이야기를 읽은적이 있다. 그는 60여세를 살았는데 그렇게 놓고 추산하면 매해 그 작품을 적어도 1회내지 2회씩읽었다는것으로 된다. 그 평론가가 시간이 남아서 소일거리로 그렇게 수십여차례 그 작품을 읽어졌는가? 아니다. 그는 술취하고있다. 자기는 그 작품을 읽을 때마다 그 작품이 가지고있는 새로운 의미,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고, 물론 이것은 특수한 사례다. 누구나가 그렇게 할수도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을것이다. 그러나

거기서 무엇인가 시사를 받을만한것이 있다고 본다.

나는 앞에서 평론가는 독자들이 작품을 옹게 감상하고 정확하게 평가할수 있도록 도와줄 의무가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은 평론가를 작품의 해설자로 규정하는것이 아니다. 나는 평론가는 작가의 우에 서서 작품에 평가를 내리는 심판관도, 작가의 교사도 아닌 동시에 작가에게 종속되어 그의 작품을 독자에게 해설해주는 해설자도 아니라고 생각할뿐이다. 평론가는 작가의 우도 아래도아닌 동렬에 선 동행자이며 같은 창조자라고 나는 간주한다. 작가가 현실을 토대로 하여 생활적인 언어로 그것을 재구성하고 자기주장을 내세우듯이 평론가는 작품을 토대로 하여 평론이라는 수단으로 무엇인가를 창조하고 주장해야 한다. 그런 점으로 볼 때 작가와 평론가와의 관계는 가사작가와 가요작곡가와와 관계와 유사하다고 해야 할것이다. 시인이 현실에서 시상을 얻어 언어라는 수단으로 가사를 창작하는 반면에 작곡가는 가사에서 악상을 얻어 음악이라는 수단으로 곡을 창작한다. 마찬가지로 작가나 시인이 현실을 토대로 하여 작품을 창작하듯이 평론가는 작품을 토대로 하여 평론을 창작한다. 평론 역시 창작이며 평론가 역시 재판관도, 해설원도 아닌 창작가다. 작곡가는 가사가지닌 사상과 정서와 감정을 정확히 선물로 재현하는데 그치지 않고 음악적수단으로 그것을 더욱 선명하고 아름답게 부각시킨다. 마찬가지로 평론가는 작가가 작품에 담은 사상에술적내용을 평론이라는 수단으로 정확히 재현할뿐아니라 작가가 의도하면서도 충분히 작품에 구현하지 못한것, 지어 미처 의도하지 못한것까지 찾아내어 작품의 내용을 더 두드러지게 부각시킬수 있는것이다. 그렇다. 그러한 평론이 훌륭한 평론이며 그러한 평론가가 역시 훌륭한 평론가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그러한 평론과 평론가들만이 문단에 필요하며 문학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다고 나는 간주한다.

이상 좀 장황하다 하리만큼 《평론》에 대한 나의 견해를 피력한것은 설사 그것이 졸렬한것일지도 모르지만 어떻게 아래에서 진행할 개별적작품에 대한 론평에서 철저하게 나 자신의 견해에 립각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리라는 마음다짐을 위해서다. 말하자면 스스로의 계로로 삼자는것이 다.

그렇다고 그 어떤 본보기를 만들려는 건방진 생각은 결코 아니다. 다만 시도해보자고 한것뿐이다.

2. 서사시의 주소

서사시에 관해서는 내가 언젠가 한번 《조선문학》에 쓴 잡문에서 간단히 언급한적이 있었던것으로 기억한다. 그때 나는 최근년간에 우리 시인들속에 서사시에 대한 관심이 비상이 높아져서 《서사시시대》라고 하리만큼 장편서사시들이 립이

어 출판되어나오는데 이것은 낭만적기상이 나래치는 혁명적대고조시기에 응당 있을수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서사시를 즐겨 쓰지 않는 시인들도 있는데 그것은 주로 기질과 기호의 차이에 인한 것 같다고 썼다. 이 말을 쓸 때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의 생각의 절반만을 말했다는 점에서 나는 그때 진실치 못했다는것을 인정해야 할것 같다.

수천년전 인류문명발전의 초시기에 발생하여 국과 함께 오래동안 문학의 왕좌를 차지하고있던 서사시는 근세에 와서 그자리를 산문, 그중에서도 소설에 내어주게 되었다. 산업혁명이후 서민사회와 거기서 영위되는 인간들의 생활과 그들의 호상관계는 복잡다양해졌고 그러한 현실은 새로운 문학형식, 보다 폭넓게 생활을 포괄할수 있는 이러저러한 구속을 받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인간과 그들의 관계를 그릴수 있고 복잡한 인간성격과 심리를 깊이있게 묘사할수 있는 문학형식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 요구에 의하여 등장한것이 일명 《묘사문학》이라고도 부르는 소설문학이다. 그러나 근세이후 소설문학이 문학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고 하여 서사시문학이 아주 소멸한것은 아니다. 그것은 여러가지 문학형식과 함께 존재하여왔으며 오늘도 존재하고있다. 특히 변혁과 혁명이 진행되고있는 사회에서 서사시는 왕성하게 창작되고있다. 그 가장 가깝고 전형적인 실례가 우리 나라다. 걸출한 인물의 영웅적인 행동, 특이한 사건 등이 기본조건으로 되고있는 서사시의 요구에 혁명적대고조의 열정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 영웅적인 소행이 매일매시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우리 사회의 격동적인 현실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 자본주의사회에서(혁명적항쟁이 치열히 진행되지않는) 서사시문학이 거의 자취를 감춘 사실과 대비해보면 더욱 명백해진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하더라도 문학의 주류를 이루고있는것이 소설문학이라는 사실은 우리 나라에서조차도 부인할수 없다.

물론 서사시문학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자기의 고전적인 형식과 형태를 벗어나 여러모로 변신을 거듭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서사시의 내용과 성격도 변했고 여러가지 새 형식의 서사시들이 출현했다. 일정한 이야기줄거리가 없는 권력기식, 기행문식 서사시, 매편 독립적인 이야기가 담겨진 단시들을 편결한 서사시 등등...

그런데도 소설적인 줄거리를 시적인 언어로 엮은 서사시는 다른 형식의 서사시와 함께 적지 않게 씌여지고있다.

이렇게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를 새삼스럽게 하는것은 서사시에 관해서 내가 그때 말하지 않은 나의 견해의 나머지 절반을 마저 이야기하기 위해서이다.

나는 우리 문단에서 서사시가 왕성하게 창작되

는것은 응당한 일이라고 이미 말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작되는 그 모든 서사시들이 꼭 서사시로 씌여져야 했을것인가. 그중의 어떤 것들은 다른 문학형식으로도 쓸수 있었을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가지고있다. 발표되는 모든 서사시를 빠짐없이 다 읽어보지 못하는 조건에서 나의 그러한 의문은 어디까지나 제한된 타당성을 가질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나는 내가 읽어본 많지 않은 몇몇 서사시작품들을 두고서도 그러한 의문을 품는것은 과히 무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건과 이야기줄거리는 소설적으로 엮여져있다. 인물도 여러명 등장하고 그들의 호상관계도 상당히 복잡하게 설정되어있으며 긍정인물과 부정인물사이에 벌어지는 갈등도 있다. 그러나 정황설정이 상세하지도 명백하지도 못하고(그럴수밖에 없다)인물들과 그들의 행동 즉 생활에 대한 세부묘사가 부족하며 복잡한 심리의 깊이있는 추구 역시 부족하므로 우선 시각적표상이 선명하게 떠오르지않으며 인간들과 그들의 생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이 오지 않는다. 따라서 사건과 이야기의 전개와 인간들의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작품을 읽는측면에서 볼 때는 소설을 읽는것보다 재미가 없다. 한편 서사시이니만큼 시적측면에서도 고찰해야 할것이지만 그 점에서도 사정은 류사하다. 물론 시인의 욕심은 전편을 시로 판통시키자는것이겠지만 서사적인 사건과 이야기의 매 줄을 시적인 표현과 시적인 언어 다시 말해서 《시》로 일관시킨다는것은 그 어떤 천재로서도 불가능할것이다. 서술과 설명, 직선적표현, 적지 않은 대화의 처리 등 산문적인 요소들이 끼여드는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니 《시》로서는 서정시보다도 감명이 덜할수밖에 없다.

이렇게 따지고보면 하나의 의문이 생긴다. 필자는 무엇때문에 왜 서사시를 썼는가? 왜 소설도 서정시도 아닌 바로 서사시를 썼는가? 의문은 작품의 부피가 크고 길어서 읽기가 지루하면 할수록 더욱커진다. 물론 서사시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소설도 서정시도 가질수 없는 자기 특유의 장점과 매력을 가지고있는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으로써도 우에서 말한 의문을 완전히 해소할수는 없다.

한편 우에서 말한 고전적서사시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출현한것이 적지 않은 우리 시인들에 의해서도 시도되고있는 권력기식, 기행문식 형식의 서사시인데 그것 역시 또다른 약점을 가지고있다. 권력기식 또는 기행문식 서사시는 그것이 비록 《서사시》 또는 《장편서사시》라는 표제를 달았지만 엄격히 따지면 결국 《장편서정시》 또는 《장시》라고 말할수 있다. 그것은 장면과 정황의 변화는 있지만 일정한 이야기줄거리나 복잡하게 엮힌 인간관계가 선정되어있지 않기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독자를 끌어당길 힘은 매우 약

하다. 따라서 독자들이 작품에 매혹되어 흥미를 가지고 끝까지 읽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적으로 양양된 감정과 서정 그리고 시화된 철학적사색이 필요하다. 그런데 양양된 감정과 서정을 처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해나간다는것을 서정시에서조차 원고지 10매를 넘기기가 힘든 법이다. 하물며 백, 수십매 지어 수백매에 달하는 길이의 그러한 서사시작품에서는 더 말할것도 없다. 제아무리 천분을 타고나고 기량이 뛰어난 시인으로서도 그 광활한 시적공간을 고도로 연소되고 승화된 서정과 순수하게 리파되고 다듬어진 시적언어로 세운다는것은 극히 어려운 작업인것이다. 시인자신도 이것을 자각한다. 그래서 어떻게하나 독자들을 끝까지 끌고나갈 방도를 강구한다. 이런 경우 그가 흔히 의거하는 수단은 과장된 감정과 공허하게 큰 목소리와 화려하고 현란한 문장의 수식이다. 그러나 그것은 함정이다. 그러한것들으로써는 시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러한것들으로써는 시가 아니라 웅변과 선동문이 작성되는데 시는 그러한것들과 함께 살려고 하지 않는다. 웅변과 선동문의 무성한 수림속에서 시는 죽어버리거나 빠져나와 어데론가 가버린다. 물론 웅변이나 선동문도 필요한것이며 자기 가치를 가지고있지만 어떻게든 시는 아니므로 시를 기대했던 독자들은 실망하는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전면적으로 서사시를 부인하는것은 아니다. 나는 이미 앞에서 서사시가 문학의 왕좌를 내놓은 근세 이후에 와서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존재한다는것은 존재할만한 리유와 가치가 있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그렇다. 소설 특히 장편소설이 문학의 주류를 이루고있는 현대에 와서도 서사시는 여전히 자기의 존재가치를 가지고있으며 자기가 존재할 문학적장소를 가지고있다. 그것은 어떤곳인가? 서사적인 내용이면서도 소설이 대신할수 없는곳이다. 소설이 현대문학의 주류를 차지하고있다고 해서 만능은 아니다. 게다가 현실은 비상히 복잡하고 다양하다. 설사 소설이 그 어느 다른 문학형식도 따를수 없는 풍부한 표현능력과 가능성을 가지고있다 하더라도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을 모두 자기의 틀안에 거두어넣을수는 없는것이다. 소설은 자기의 우월성에도 불구하고 또한 자기의 제한성과 약점을 가지고있으며 따라서 현실속에는 소설이라는 문학형식이 다룰수 없거나 다루기 어려운 소재와 주제가 있는것이다. 내용과 이야기거리가 서사적인 성격을 띠고있으면서도 소설형식에 담을수 없거나 담기 어려운 소재와 주제, 거꾸로 말하면 소설을 포함한 다른 그 어느 문학형식도 아닌 바로 서사시로, 오직 서사시로만 쓸수 있고 또 써야 할 대상물이 있는것이다. 바로 그러한곳이 서사시가 거주할 문학장소이며 자기 위력을 과시할 영역일것이다. 나는 그러한

영역이 그리 넓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서사시에 대한 모욕으로 된다고도 간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설사 그 영역이 그다 넓지 못하다하더라도 현대문학의 주류인 소설을 포함한 그 어떤 다른 형식의 문학도 감히 침범할수 없는 당당한 자기의 영역이기때문이다. 유감스러운것은 드물지 않게 서사시가 자기의 거주영역을 넘어 남의 영역을 침범하는것인데 이런 경우 독자들은 그 서사시 출현의 당위성에 대하여 응당한 의문을 품게 되는것이다.

여기서 그렇다면 서사적내용이면서 소설형식에 담을수 없고 서사시으로써만 해결할수 있는 문학적소재와 주제는 어떤것들인가? 하는 물음이 제기될수있다. 그러나 나는 그 물음에 대답할수 없다. 그것은 내가 문학리론가가 아니기때문만이 아니다. 그 어떤 지명한 리론가도 그 물음에 정확하고 만족스러운 대답을 줄수는 없으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문학적소재는 현실속에 무진장하게 많지만 그것들이 모두 그 누가 손으로 집어들어 창작자에게 제시하거나 제공할수 있게 《소설용》, 《서사시용》 따위의 표찰을 달고 현실표면에 정렬하여있는것은 아니다. 그것은 작가나 시인자신이 현실을 관찰하고 파헤치는 과정에 그리고 거기서 찾아낸 소재를 가장 효과적으로 원만하게 담을수 있는 문학형식을 탐구하고 모색하는 과정에 얻어지는것이다. 때문에 독자는 지어는 전문적인 평론가나 리론가조차도 많은 경우 창작발표된 작품을 읽고나서야 그것이 소설형식에 적합한것이었던가 아니면 서사시형식에 보다 적합한것이었던가 하는것을 판별하게 되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예술의 묘사방식은 서로 작용하고 의존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문학예술의 묘사방식은 그것이 소설이건 시이건 극문학이건 할것없이 서로 작용하고 의존하는 관계에 있다. 그러면서도 매개 문학형식은 고유한 묘사방식을 가지고있는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것이 소설형식에 적합한것인가, 서사시형식에 적합한것인가를 논의하게 되는것이다.

나는 최근에 시인 강립석이 쓴 서사시 《땅의 노래》를 읽을 기회를 가졌다. 이 작품을 읽고 느낀 첫 소감은 내가 이미 읽은 몇몇 서사시작품들과 함께 서사시라는 문학형식을 옳게 선택한 작품이라는것이였다.

나는 내가 받은 첫 인상을 스스로 검증해보았다. 이 내용을 가지고 장편소설을 쓸수는 없을까? 만약 쓴다면 어떤 물건이 될까? 곰곰히 생각해본끝에 내가 스스로 내린 결론은 장편소설로 쓰는것이 전혀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매우 어려울것이며 또 그리 적합지도 않을것이다. 그리고 설사 쓴다해도 창작된 소설은 별로 신기한 물건이

못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바꾸어 말하면 필자가 서사시의 문학형식을 선택한 것은 서사시의 거주령역을 잘 알고 취한 옳은 처사였다는 것이었다. 나의 이러한 결론을 주어진 사실을 놓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폭넓게 검증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서사시의 내용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를 실시한 후에도 힘든 노동과 빈궁에서 완전히 해방하지 못하고 있는 농민들의 처지를 가슴아파하시어 내놓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높이 받들고 수령님의 령도하에 전인민적으로 진행되는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없애고 농민들을 영원히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운동과 그로 인해 력사적인 전변과 면모를 이룩해가는 농촌현실이다. 서사시는 비록 무대를 크지 않은 《선봉협동농장》에 국한시키고 있지만 그것은 전국 농촌에서 장기간에 걸쳐 수행해야 하는 거창한 사업이며 천지개벽과도 같은 농촌의 일대 혁명이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새 나라》라는 장에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헌시비문을 쓰기 위해 고향에 내려간 시인과 그의 어릴적친구이며 농장관리위원장인 만준이와 나누는 대화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뻘앗겼던 조국을 찾아주신 그이를 두고는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지었다면 사회주의 농촌테제를 내놓고 꽃피워주신 그이의 업적을 두고는 누가 쓰던지 또하나의 그만한 송가를 써야 한단 말일세!》

그렇다. 그것은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내놓고 그 실현을 현명하게 령도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과 농촌테제의 휘황한 해발아래 력사적인 전변을 이룩하고 있는 농촌에 대한 송가이다. 이런것을 소설로 쓴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을지 모르나 매우 어려울 것이다. 실사초대장편으로 쓴다 하더라도 결국은 꼬끼리의 어느 한부분을 그리는 격으로 되고말것이다. 그뿐만 이야 아니다. 그것이 소설형식에 적합치 않은 다른 이유도 있다. 장편소설로 쓰자면 각이한 성격을 지니고 각이한 운명의 길을 걷는 많은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그들 호상간에 이루어지는 복잡한 인간관계와 갈등들을 맺어주어야 할 것이며 그 모든것을 꿰뚫고나가는 이야기줄거리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줄거리와 인간들의 복잡한 호상관계와 갈등 같은것은 이 서사시의 주제와 내용에는 어울리지 않을것 같다. 왜냐하면 농촌테제를 관철하는 사업은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가 수행된 기초우에서 농촌과 도시의 차이를 없애고 농민을 영원히 고된 노동에서 해방하여 허리를 펴게 하자는 것인데 누가 이것을 반대하며 여기에 그 어떤 심각한 갈등이 있을수 있겠는가. 물론 농업의 기계화에 소극적인 농민들이

있을수 있고 서사시에 나오는 《동네아저씨》처럼 첫시기에 습성화된 소시민적생활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인물도 있을수있을것이다. 그러나 그러한것들은 모두 미미하고 지엽적인것이고 일시적인것들이다. 모든 농민들이 농촌테제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감격과 환희를 금치 못해하며 그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는것이다. 여기에는 소극적인 관리위원장이나 기사장, 부정적인 총국장이나 부총국장 또는 부부장 같은 인물들을 등장시킬 현실적조건이 없으며 심각한 갈등설정의 타당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반동분자의 파괴암해책동도 전적으로 배제할수는 없겠지만 별로 진실감을 주지는 못할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그러한 모든, 요새 흔히 쓰이는 소설적인 설정이나 구성은 진실감보다도 인위적인 조작감을 불러일으킬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치렬한 계급투쟁속에 진행한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시기의 정황을 상기하여 비교해보면 더욱 명백해진다. 당시의 치렬한 계급투쟁, 심각한 갈등, 다양한 인물들의 복잡한 호상관계, 반동들의 필사적인 발악 그리고 그러한 모든 요소들을 꿰며 발전하고 종결되는 이야기줄거리 등은 필수적으로 소설문학형식을 요구했으며 실지로도 그 시기를 취급한 장중편소설들이 많이 나왔다. 그러나 농촌테제의 관철시키는 사정이 전혀 다른것이다. 시인은 그러한 조건을 옳게 판단했다고 말할수 있다. 다시말해서 자기가 쓰려는 문학형식의 거주지를 정확히 찾았던것이다.

3. 쓰지 않고는 못견딜것만을 쓰라!

시인은 자기가 쓰려는 문학형식을 옳게 선택하였다. 그러나 시인의 그러한 판단과 선택은 그 어떤 면밀한 계산에 의해서 취해진것이 아니다. 시인으로 하여금 서사시의 거주지역을 직감적으로 찾아내게 하고 그 문학형식을 선택하게 한것은 리지적판단이 아니라 그의 감정 즉 애정이다. 땅에 대한 애정, 농촌과 농민에 대한 애정, 더우기 위대한 수령님의 농촌테제의 해발아래 그리고 그이의 극진한 보살핌과 세심하고 정력적인 령도에 의해 천지개벽과도 같은 일대 전변을 일으키고 있는 농촌에 대한 누를길 없는 환희와 사랑은 그로 하여금 객관적인 묘사가 아니라 열렬한 송가를 쓰고싶을 충동을 느끼게 했으며 또한 그것이 서사시로하여금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작품으로 되게 하였다. 작가는 자기가 꼭 쓰고싶은것, 쓰지 않고는 견딜수 없는것만을 써야 한다.

그 말의 정당성을 장편서사시 《땅의 노래》는 증명하고있다. 작품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을 칭송하는 헌시비문을 쓰려고 오랜만에 고향에 내

러가는 필자자신으로 보이는 시인은 누가 무엇을 가지고 고향에 가느냐고 물으면 잊지 않고 살아 온심장을 안고간다고 대답하겠노라고 쓰고있다.

그는 그 무엇보다도 땅에 애착을 느끼며 땅에서 움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농작물과 그 일을 하는 농민들에게 애착과 친밀감을 느낀다. 땅 그 자체는 생명체가 아니다. 하지만 땅은 생명체를 낳고 그것을 길러낸다. 한알의 씨앗을 땅에 묻으면 푸른싹이 움트고 그것이 자라고 성숙하여 수백수천알의 열매를 맺는다. 사람은 그것을 먹고 생명을 유지한다. 인류는 수천수만년을 그렇게 살아왔다. 땅과 사람은 든든한 뉴대로 직접 연결된 공동체다. 사람들이 땅을 《어머니대지》라고 부르는것은 언어의 장식이 아닌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땅은 말이 없고 거무죽죽한 무기물의 덩어리이지만 태양과 협력해서 푸른(녹색) 유기체를 길러낸다. 그런데 녹색-이것은 생명의 빛(색)인것이다. 그것은 평화와 안정과 희열, 선의와 너그러움 등 인간이 가져야 할 좋은 정서와 감정의 원천을 이루는 색깔이다. 농민들이 때로 논둑에 앉아 점도록 논판을 바라보는것은 단지 벼의 작황을 살피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그는 또한 가없이 펼쳐진 벼바다의 나날이 질어가는 푸른빛에 매혹되고있는것이며 그로 인해 정화되는 자신의 넋에 고요한 희열을 느끼고있는것이다. 일반적으로 도시사람들에 비해 농민들이 순박하고 선량하고 너그럽고 유순하여 인심이 후한것은 그때문이다. 도시사람이 농촌에 나가 푸른 들을 바라보면 기분이 상쾌해진다. 그가 바닥이 두툼한 소가죽 구두와 나일론양말을 벗고 맨발로 땅을 디디면 마음이 더욱 상쾌해지고 자기가 땅과 껴들수 없는 뉴대로 맺어진 한몸이라는것을 느낄것이며 깊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가 대지의 아들이라는것을 깨달을것이다.

땅은 사람들에게 자양분을 공급하는 생명의 어머니일뿐아니라 그들의 감정과 정서를 함양하고 그들의 넋을 정화시키는 정신적원천이기도 한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농업을 그토록 중시하시며 《농사제일주의》구호까지 내놓으시고 몸소 세심한 정도를 하시는것은 물론 사회주의건설에서 농업생산이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과 인민들을 배불리 먹이시려는 념원때문이었지만 또 하나는 농촌이 사람에게 주는 정서적영향의 중요성도 고려하시는것이 아닐가. 수령님께서 세계인민들이 《공원속의 도시》라고 경탄하리만큼 우리 수도의 녹화사업에 힘을 기울이시는것도 바로 그때문일것이라고 나는 감히 생각한다.

세계에는 농경지도 림야도 없는 사막의 나라들이 적지 않다. 농촌이 없는 나라, 푸른 대지를 모르는 나라는 얼마나 삭막하며 사람들의 정서는 얼마나 메마를가 하고 나에게는 생각된다.

농촌에 대한 시인의 애착과 애정은 농민들이 아직 빈궁을 면치 못하고있던 먼 과거에 대한 회상에조차 씩씩한 여운으로 스며있다.

조용히 더듬는 내 마음의 기슭에
설레이며 외닿는 추억의 배 한척...
열여섯살 나던 47년의 그 5월
꿈도 같고 손발도 맞아
지끈했던 송아지동무
우리는 셋이었지...

버리고말자 떠나고말자
고개우에 침뱉고 앉았던 험부리
창호와 만준이 그리고 나
우리는 셋이었지...

《도회지엔 학교도 많고
공장도 많대
여기선 정말 피밥 먹기 싫어 못살겠다!》

살기가 싫어 다른곳 찾아 떠나면서도
그냥은 못넘어 걸쳐앉았던 고개

이것은 제2장 《돌고개》의 한 대목이다. 피밥 먹기 싫어서 떠나면서도 차마 그냥 떠나지 못하고 걸터앉아 되돌아보는 고향... 그것도 열여섯살 철부지 소년들, 고향농촌에 대한 농민들의 애착은 이렇게 강한것이다. 말이 난김에 한마디 더하면 이 《돌고개》는 서사시에서 하나의 공간적중심이라고도 말할수 있는 중요한 거점으로 되어있다. 고향을 버리고 떠나려고 앉아있던 세 소년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접하는 순간 결심을 뒤집고 마을에 남는다. 그리고 수십년이 지난후 그 세 소년들중의 한명이었던 석민이가 시인이 되어 위대한 수령님의 헌시비를 쓰려고 고향에 내려오다가 추억도 깊은 그 《돌고개》에 멎어서서 농촌테제의 빛발아래 몰라보게 전변된, 한때 버리려고했던 고향마을을 깊은 감회와 감격속에 내려다본다. 그리고 그 인연깊은 고개마루에 장차 그가 쓸 헌시비가 서게 되는것이다.

서사시에는 또 하나 아주 작으면서도 뜻깊은 농촌에 고향을 두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는 좀해서 쓰기 어려운 세부가 왔다. 그것은 이전 농촌의 최쪽에 드문드문 서있던 늙은 뽕나무다. 시인은 그뽕나무를 통하여 감회깊은 추억을 불러내고 있다. 뽕나무는 마을에서 누에를 치기 위해 심는 나무다. 전용 뽕밭을 가지고있는 마을에서도 보충적으로 최쪽에 드문드문 뽕나무를 심는것이 관습으로 되어있었다. 그런데 그 뽕나무들이 농촌 아이들에게는 즐거운 놀이터로 되는것이다. 처음 파랗게 달렸던 뽕나무열매인 오디는 차차 붉은빛으로 변했다가 뽕잎을 거의다 딸무렵에는 진한

자주빛으로 익는다. 그러면 마을의 조무래기들이 모여들어 입언저리를 온통 자주빛으로 칠갑을 하면서 오디따먹기 내기다. 마을에는 살구나무도 있고 추리나무, 앵두나무도 있다. 그러나 진자주 빛으로 익은 오디는 그 어느 과일보다도 새콤달콤하고 감칠맛이있는 으뜸가는 과일인것이다. 그런데 그통에 봉변을 당했다. 장난꾸러기조무래기들이 승벽내기로나무에 오르고 휘여잡고 오디를 따먹는통에 나무가지가 부러지고 휘고 꺾질이 벗겨지고 하는 부상을 당하는것이다. 해마다 그 놀음이 반복되는 과정에 뽕나무들은 거의 레외없이 아지가 부러지고 모지라져 우굴구불한 볼품없는 모습으로 변한다. 최쪽에 서있는 그러한 뽕나무는 나이가 들어도 잊지 못하는 그 감미로운 오디의 맛과 함께 지난날의 농촌의 하나의 상징적인 풍경이기도 하다. 그러나 볼품없는 최쪽의 뽕나무들에는 그러한 달콤한 추억이나 상징적인 풍경 외에 다른 또하나의 역할이있다. 농민들은 아침에 일을 나가면 흔히 저고리나 점심밥그릇 보자기를 최쪽의 늙은 뽕나무의 단단하고 오불고불한 아지에 걸어놓는다. 이렇게 걸어놓은 그후 조국해방전쟁때 적을 격멸하는 치열한 전투에서 전사한 창호의 어머니 순녀의 점심보자기를 아버지수령님께서 풀어보시고 그것이 피밥인것을 아시고는 안색을 흐리시더니 《이제 논을 풀어 쌀밥을 먹게 합시다.》라고 말씀하신다. 이로부터 선봉마을의 새 력사가 시작되는것이다. 그러니 그 볼품없는 늙은 최쪽뽕나무가 어떻게 고향을 찾아가는 시인의 그리움을 자아내는 귀중한 추억으로 되지 않을수 있겠는가.

우리는 뽕나무로 달려가
그 밥보자기 어루만졌지...
그러자 가지를 흔들며
오디 따러 찾아오던 뽕나무는
그 무슨 신성한것을 안고 설레이었지
아, 지금도 살아있을가?!
잊지 못할 그 뽕나무, 뽕나무...

고향농촌에 대한 시인의 더 큰 그리움과 사랑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양수기로 물을 퍼올려 논을 풀고 피밥을 먹던 선봉리 농민들이 이밥을 먹게 된 때로부터 더 커지고 그후 농업협동화를 거쳐 농촌테제의 빛발아래 농촌과 농민들의 생활에서 력사적인 대변혁이 일어남으로써 절정에 달한다. 바로 그때문에 시인은 농촌에 그러한 전변을 가져다주신 수령님의 위대한 은덕과 사랑을 칭송하고 길이 후세에 전하기 위한 헌시비문을 쓰려고 고향마을에 내려오는것이다.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위대한 수령님을 늘 몸가까이 모셔온 김부수상조차도 농업협동화가 되었으니 농촌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마음놓

고있었으나 수령님께서서는 그렇지 않으시였다. 선봉마을의 다리목을 지나가시다 우연히 만난 만준이가 끌고가는 소달구지에 타고있는 소녀 송순이가 동복을 못입고 떨고있는것을 보시고 기술혁명에 앞서 생산관계의 개조라는 세계력사상 전례가 없는 정책을 실시했지만 농촌이 여전히 빈궁에서 아주 벗어나지 못하고있음을 간파하신다. 그리고 그 원인이 협동조합들이 국가로부터 진빛때문이라는것을 아시고 그후 여신 당중앙위원회 회의에서 1. 농민들이 진 일체 국가부채를 면제하며, 2. 현물세도 완전히 폐지하며, 3. 조합의 기본건설도 국가에서 해준다는 력사적인 결정을 채택하신다. 이회의실에서 보기 드물게 수령님의 노한 그 통분하신 음성이 찌렁찌렁 장내를 울린다.

무엇을 위해 우리가
혁명투쟁에 나섰는가?

무엇을 위해
고유수의 황토길을 걸었고
백두밀림에서 쪽잠을 잤던가
푸르허의 머슴방에서 무엇을 약속했고
토지개혁의 불길에선 무엇을 설계했던가?

...
빼앗긴 조국을 찾고
로동자, 농민에게 사회주의락원을 안겨주자고,
오늘까지 우리가 싸워오지 않는가...

농촌문제를 중국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어떻게 사회주의를 했다고 할수 있으며
자신을 공산주의혁명가라고 할수 있겠는가?...
...

그것은 농촌테제가 나오기 전해인 1962년 12월에 열린 회의였다. 농촌의 마지막 혁명이며 농업과 농민들의 생활에 일대 전변을 가져온 농촌테제라는 위대한 대강은 이미 그 회의때, 아니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가슴속에서 무르익고있었던것이다.

그리하여 전국은 농촌테제관철에 떨쳐나섰고 공업이 농업을 방조하고 도시가 농촌을 지원하는 사업이 강력히 진행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리화, 전기화, 화학화와 함께 농업의 종합적기체화가 급속히 추진되게 되었다.

농업의 종합적기체화-이것은 테제에서 중심을 이룬다고도 말할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며 또한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농민들을 고된 로동으로부터 해방시킬수 있는 기본방도이며 농민들을 고된 로동에서 영원히 해방시키는 것이야말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렇게도 간절히 바라시는 일이기때문이다.

서사시에는 《허리를 펴라》라는 실로 감동적인 장이 있다. 종래의 기계들이 가지고있던 결합들을 퇴치한 새 모내기기계의 방식상학을 보러 나오신 수령님께서서는 허리를 굽혀 모밀개와 모손의 동작도 살펴보시고 한눈 감으시고 줄맞추는 정형도 보아주시며 줄맞추기가 좀 서툴자 맞은편 두령으로가시여 나를 기준으로 몰아오라고 하시고는 손을 들었다 내리우시며 《출발!》하고 구령을 치신다. 그러시고는 모내는 기계가 곧추 달려오자

《정말 가관이요.

사회주의농촌의 봄풍경이 불만하오

이게 바로 테체가 바라는 현실이요!》

하시며 기뻐하신다. 그러시고는 농민들이 허리를 굽히지 않고 모를 내게 되었으니 자신의 허리도 씨원해진다고 하시며 이전에 조부모님께서 모내기를 한 날은 온밤 앓음소리를 해서 허리를 두드려드렸노라고 말씀하신다.

농민들이 허리를 편다! 이것은 농민들에게 있어서 과장없이 천지개벽과도 같은 사실이다. 농민들은 수천년 대를 이어 농사를 지어오면서도 그러한 사실은커녕 그러한 말조차 생각해본적이 없었으며 그러한 날이 오리라고는 꿈속에서조차 상상해본적이 없었다. 그저 자기들에게 차례진 숙명으로 생각하고 아픈 허리를 두들기며 신음하며 농사를 지어왔다. 농사일은 고된 육체노동이다. 아픈것은 허리만이 아니다. 발길을 댈 때는 다리고꿩이가 아프고 다래끼를 메고 비료를 줄 때에는 어깨가 아프며 삽질이나 가래질, 곡괭이질을 할 때는 팔이 아프다. 겨울철에 나뉘를 엮을 때는 손발이 시리고 아프며 진종일 모를 뜨노라면 손에 자재풍이 인다.

비를 맞으며 논에서 모를 내고 김을 매며 내려쪼이는 피약벌아래서 발길을 맨다. 그래서 농민들은 농사군을 제외하고는 사무원은 물론 공장노동자들까지도 《일하는 사람》으로 치부하지 않는다. 물론 그것은 농민들의 잘못된 인식에서 오는 편견이지만 어쨌든 그만큼 농사일이 고되고 힘들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힘든것이 구부리고 하는 일이다. 때문에 《허리를 편다》는것이 농민들이 모든 고된 노동에서 해방되는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말로 되는것이다. 또한 바로 그렇기때문에 수령님께서서는 농민들도 노동자들처럼 넥타이를 매고 기계의 시중이나 들면서 농사를 짓게 되기를 그렇게도 바라시는것이며 그 소원이 성취되어가는것을 보시고 그렇게도 기뻐하시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어 모뜨는 기계도 연구제작하도록 하여주시고 벼수확기도 만들어쓰도록 해주신다. 하긴 서사시에는 가을걷이와 탈곡의 기계화에 대해서는 써여있지 않다. 물론 시인은 서사시를 구상할

때 그것을 빼놓지 않았을것이다. 절대로 그랬을리가 없다. 벼가을 역시 모내기나 김매기 못지않게 허리가 아픈 고되고 품이 많이 드는 농사일이다. 그리고 그 작업은 이미 기계화되어 널리 쓰이고있다. 육중한 기계가 누렇게 익은 벼이삭을 가지런히 논판에 베어놓으며 달리는것은 얼마나 불만하고 기쁨이 솟는 광경인가? 아예 단으로 묶어서 깔아놓히며 나갈 때는 더 그렇다. 그것은 또한 농민들의 많은 고된 로동을 덜어주는 일이기도 하다. 만약 한결음 더 나아가서 건조한 후에라야 탈곡할수 있는 벼의 특수성을 기술적으로 해결하여 제창 베는 그시로 기계안에서 건조시켜 밀이나 보리처럼 아예 전야에서 탈곡작업까지 한꺼번에 해치우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불가능한일이 아닐것이다.)그때에는 농업의 종합적기계화는 더욱더 완성에 가까운것으로 될것이며 농민들에게 더 큰 복리를 가져다줄것이다. 그렇다면 어쨌서 서사시의 필자는 작품을 구상할 때 예견했던 이 대목을 쓰지 않고말았는가? 짐작컨대 그것은 실로 감동적인 장면과 이야기로 엮어진 19장 《비내리는 밭에서》에서 축적하여온 정서와 감정이 절정에 이르고, 하고싶었던 이야기가 완결되었기때문에 거기에서 다른 무엇을 덧붙이는것은 굳더더기이며 작품의 구조적 아름다움을 파괴하는것이라고 판단했기때문일것이다. 아닌게아니라 《비내리는 밭에서》의 장에서 감동은 절정에 달하고 이야기는 끝난다. 시인은 한껏 양양된 감동을 안은채 극히 자연스럽게 종장 《송가》으로 넘어간다.

관리위원장 만준이가 모시고 사는 어릴적의 송아지동무이며 전쟁때 전사한 전우인 창호(피땀이 먹기 싫어 고향을 버리고 떠나려다가 돌고개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생각을 바꾸는 세 소년중의 하나)의 눈먼 어머니 순녀는 줄당풍의 꽃잎이 시들어 떨어지고 내리쪼이는 폭양에 땅에서도 확확 단김을 뽑는 가문철에 분수비내리는 강녕이밭에 무지개가 섰다는 아이들의 환성을 듣고 반신반의하면서 《정말이나? 나두 함께가자. 데려가다오.》하고는 뒤집손자 순돌이의 손을 잡고 돌부리에 걸쳐여 비틀거리면서 숨가쁜 언덕길을 툭아올라 강녕이밭으로 달려간다. 그리고 이글거리는 해가 폭양을 내리붓는 새파란 하늘에서 (보지는 못하지만)내리는 비가 너무도 희한하고 감격스러워 두팔을 벌리고 서성거리며 비를 맞는다. 분수처럼 내리는 단비에 섞여서 줄줄이 흘러내리는 잔눈물을 흠칠념도 안하고 환성을 울리며 《그 어떤 행복처럼》 비를 맞으며 돌아가던 앞뚝보는 순녀는 때마침 이삭팬 강녕이밭의 장황을 보러 나오신 수령님도 못알아보고 왜 그렇게 비를 맞으시느냐는 그이의 물음속에 좋아서 우정 맞는다고 하면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만단사연을 늘어놓는다.

《손님은 모르시겠지만
토지분여 이듬해 47년 그날에
수령님께서 여기 오셨답니다
그때 저기 어디 뽕나무에 걸어놓은
내 점심보따리를 풀어보셨답니다

그때부터
피앗골이 옥답으로 되었지요
오늘처럼 이렇게 가문때에
하늘도 줄수 없는
이런 비를 주시니
왜 아니 눈물이 나겠습니까!》
...
《글쎄 그때엔 뉘신지 몰라
인사도 한마디 못올렸답니다...
그때의 그 불찰이
아직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순녀는 피앗골을 옥답으로 전변시켜주신 위대한 수령님을 미처 못알아보고 인사도 못드려서 한을 남겼는데 40여년이 지난 지금은 또 미제의 만행으로 눈이 먼 탓으로 바로 자기앞에 가문에 마른하늘에서 단비를 내리게 해주시는 수령님께서 비를 맞으시며 서계시는것도 보지 못하고 녀 두리를 늘어놓는다.

《...
왜 그런지 오늘 이 밭에 들어서니
평생을 두고 하고싶던 소리가
다 쏟아져나오는것 같수다
살아서 못다하면
죽어서라도 해야 할 말이웨다.
...
내 만나면 말씀드릴랍니다.
이제는 백성들이 다 잘산다구요...》

시인은 속으로 웨친다.

삼가하라 잘못보는 늙은이어
그이께서 안색을 흐리신다
뜨거운것을 삼키신다
뜨거운것을 삼키신다!

늙은이가 없어질세라 달리듯 마주나가시며 눈은 왜 못보게 되었는가 물으시는 수령님의 음성을 듣고서야 순녀는 비로소 깨닫고 그이의 품에 와락 얼굴을 묻고 흐느끼며 수령님께서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늙은이 머리위의 비물을 털어주신다. 그리고 달려온 관리위원장 만준의 설명을 듣고 이때까지 말하지 않고있은 그를 나무라시며 노여워하신다. 이 좋은 세상에 앞을 못보

아서 되겠느냐고 하시며 평양에 함께 가자고 하신다. 너인은 자기의 눈은 비록 멀었지만 마음의 눈과 온몸으로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다 본다고 대답올린다. 이 광경을 목격한 시인은 격동된다.

보는가
저 골짜기의 뽕나무도
푸른 잎 흔들며 설레이고
너인의 불우엔
멧을줄 모르는 눈물!
하늘엔 자옥한 사랑의 분수비!
내리여라 비여
흐르라 눈물이여
그대로 온 세상에 전하고싶은
내가 자란곳 이 땅의 노래여!
...
수령님은 농민의 투쟁을 그대로 쓰라 하시고
농민들은 수령님 하신 일 그대로 쓰라누나

아 그것이 아닌가?
내가 써야 할 헌시는!
알았습니다 수령님!
나는 쓸것입니다
내 고향 이 땅이 자기의 년대기로 가르쳐준
그 위대한 진리에 대하여!

그리하여 시인은 자기도 버리고 떠나려 했던 락후하고 빈궁한 고향 농촌이 어떻게 오늘은 천년만년 살고싶어지는 고향으로 되었는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손길을 따라 우리의 농촌이 어떤 변혁과 전변의 로정을 거쳐왔으며 특히 위대한 농촌테제의 빛발아래 얼마나 놀라운 천지개벽이 이루어지고 농민들이 허리를 펴고 일하는 리상적인 새 세상이 펼쳐졌는가 하는데 대해 이 서사시에서 노래하고있다. 노래는 47년도에 뽕나무아지에 걸어놓은 피앗점심보따기를 풀어보시는 수령님을 못알아본 실수를 40여년동안 가슴깊이 한으로 간직해오는 순녀가 정작 한여름 가물철에 무지개까지 띄우며 내리는 분수비를 우정 팔을 벌려 맞으며 감격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눈이 먼 탓으로 이번에도 바로 자기앞에 계시는 수령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농촌을 행복한 리상향으로 전변시켜주신 그이에 대한 감사와 그이의 은덕을 혼자소리처럼 늘어놓는 실로 극적이며 감동적인 장면으로 끝을 맺는다.

이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그리고 달리는 뭍수 없는 종결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더 뒤를 달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가닥 아쉬움이 남는다. 가을이 빠진것이다. 물론 농촌테제의 관철로 전변되는 농촌을 주제로 한 작품이라고 해서 농촌의 4계절과 그 모든 기계화공정을

빼놓지 않고 다 보여주고 다 노래해야 한다는 법은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과 아쉬움이 남는것은 대풍이 든 벼바다 속에서 굽이치는 금빛파도를 대형벼수확기(탈곡까지 겸한것이면 더좋고)들이 한아름 가득가득 안아놓히며 나아가는 가을의 새 농촌풍경은 기계로 모를 내는 봄철의 농촌이나 분수식판개로 마른날 강냉이밭에 7색무지개를 띄우며 비를 내리게 하는 여름철의 농촌풍경못지 않게 볼만한 풍경이며 독자의 심금을 움직일만한 정서일것이기 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풍년든 농촌에 나가시는것을 큰 기쁨으로 락으로 삼으신다. 최쪽에 앉으시여 손수 벼이삭의 알수를 헤아려보시고 만족하여 웃으시는 수령님, 얼마나 자주 우리가 텔레비죤화면에서 보게 되는 모습인가! 서사시의 어느 갈피에서도 그런 장면을 펼쳐보일수는 없었을까 하는것이 나의 욕심이다. 욕심을 부리는김에 한마디 더하면 전변되는 농촌에 대한 서정은 서사시의 장과 줄마다 스며있지만 실지로 농촌의 자연풍경에 대한 서술과 묘사는 비교적 모내기, 모판, 발판개 등 더러 있지만 따라서 표상으로써는 매우 약하게 안겨오는것 역시 유감이다. 이것은 아마 현시비를 쓰려고 고향 농촌에 내려간 시인이 자연으로서의 농촌보다도 테제에 의해 전변된 그 전변의 력사에서 더 큰 인상과 감동을 받았고 지어는 그에 압도된탓으로 생각된다. 이는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서사시를 성공으로 이끌어간 기본 동인이기로 하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만약 시인이 자연으로서의 농촌에 자기의 서정적창문을 좀더 넓게 열어줄 마음의 여유를 가졌더라면 서사시는 더욱 풍만한 것으로 되었을것이다.

4. 노래는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서사시는 끝난다. 그러나 농촌테제에 대한 노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테제 자체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파제가 수행중에 있기 때문이다. 서사시의 제14장 《허리를 펴라!》의 마지막부분에 다음과 같은 수령님의 말씀이 인용되어있다.

《...농민들을 더 험하게 일하도록 할수 있다면 나는 천리만리라도 마다하지 않겠소!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이 있을수 없소!

그래서 내

쌀을 몇만톤 손해보더라도

벼도 수직파를 할수 있으면 하라고 했소.

아직은 확실치 않아

시험적으로 해보지만...》

나는 그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다. 시인도 아마 마찬가지였을것이다. 그러나 어찌선지 시인은 그말씀이 내포하고있는 문제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대했고 더이상 전개하려고 하지 않았다. 아마 위대한 수령님께서 아직 확실치 않아 실험중이라고 말씀하셨기때문일것이다. 그러나 시인은 보다 찬란한 미래에 환상의 날개를 펼치고 날을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있다. 시인은 자기가 받은 충격을 그냥 사그러뜨리지 말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내포하고있는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그이께서 구상하시고 념원하시는 보다 휘황찬란한 미래에 환상의 날개를 활짝 폈더라면 좋았을것이라고 생각된다.

벼의 직파! 이것은 지금 실시하고있는 인력에 의한 모판만들기와 모기르기, 기계에 의한 모뜨기 작업과 모내기작업을 합쳐서 훨씬 더 능률적이고 단순한 하나의 기계화작업으로 전환시키는 일이다. 벼의 직파-이것은 벼농사의 종합적기계화에서 비라볼수 있는 거의 리상적이라고 말할수 있는것이다. 만약 그 성공을 전제로 한다면 지금 실시하고있는 기계에 의한 모뜨기작업과 모내기작업은 그것이 더없이 희한한것이고 농민들에게 크나큰 복리를 가져다준 기계화임이 틀림없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농업의 종합적기계화로서 하나의 중간단계라고도 말할수 있을것이다. 나는 그것이 완성되는 날에야 농촌테제의 파업도, 주체농법도 완성될것이라고 감히 생각한다. 오죽하면 수령님께서 《쌀을 몇만톤 손해보더라도》라고까지 말씀하시겠는가!

내가 알기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벼직파문제를 구상하시고 실험채배를 하도록 배려하고계시는것은 이미 오래전부터다.

수령님께서서는 현재 실시되고있는 기계화된 농사일 즉 모내는기계와 모뜨기기계의 도입으로 농민들이 허리를 펴게 되었다고 그렇게 기뻐하시지만 사실은 한결음 더 나아가서 직파를 하여 농사일을 더 적은 로력으로 더 험하게 하시려는 원대한 구상을 지금도 여전히 품고계시는것이다. 사실 지금 모내는기계와 모뜨기기계가 도입되어 벼농사의 종합적기계화가 실현되었지만 모판을 공구고 벼종자를 뿌리는 일로부터 시작하여 50일간 정성을 다해 길러서 모판리공 송순이의 말대로 논판으로 《시집》보내는 날까지는 아직도 적지 않은 손로동과 기계화되지 않은 공정들이 남아있다. 그 남아있는 인력로동과 기계화되지 않은 공정들을 또 직파로 없애고 말그대로 완전한 종합적기계화가 실현되면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대로 농민들은 넥타이를 매고 술술 기계의 시중이나 들면서 지원로력을 받지 않고 농민들자신의 힘만으로 지금보다도 더 많은 소출을 내면서 풍년농사를 지을수 있을것이다. 그렇게 되면 농민들은 말그대로 완전히 허리를 펴게 될것이며 수령님께서서는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는가! 나는 그러한 날이 멀지 않아 꼭 오리라고 생각한다. 나는 구태여 현재의 로봇트가 한작가의 환상소설에서 시작되었다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를 여기에 끄집어내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농업과학기술자들이 우리 작가들보다도 그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더 클 것이며 앞으로 꼭 그것을 해결하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송가를 소리높이 부르리라 믿는다. 시가 아닌 과학적성파로 그때 시인은 보다 더 아름다운 또 하나의 송가를 쓸것이라고 생각한다.

서사시 《땅의 노래》의 형식은 좀 독특하다. 소설적서사시라고 하기에는 그럴만한 판통된 굵은 이야기줄거리가 없고 그렇다고 이야기가 《선봉협동농장》 한군데에서 벌어지니 편력기식 또는 기행문식 서사시라고 할수도 없다. 또한 얼핏 보면 토막난 여러편의 단시들을 묶어놓은듯한 감도 있으나 가늘기는 하지만 단단한 선으로 유기체처럼 얹혀져있어서 어느 정도의 립체감도 조성되어있으니 단시묶음식 서사시라고 규정할수도 없다. 그러니 그 무슨 서사시라고 이름을 달기가 어렵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것이 이 문학작품으로 하여금 다름아닌 서사시로 씌여지게 한 이유이며 또한 그것으로서 성공할수 있게 한 조건이기도 한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말하지만 나는 모든 서사시를 이러한 경우와 조건에서만 쓸수있다고 주장하는것은 아니다. 이 서사시에 한해서는 그렇다는 말이다.

이 독특한 형식의 서사시의 구성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물은 어릴적 송아지동무인 선봉협동농장 관리위원장 만준의 요청을 받고 농촌테제의 빛발아래 몰라보게 전변된 고향마을에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을 칭송하는 현시비의 비문을 쓰려고 내려오는 시인이다. 그는 현시비의 비문을 쓸 임무를떠고 내려온 인물이기때문에 모든것을 알아야 하며 또 알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모든 세부가 그에게로 집중되게 된다. 서사시구성에서 그는 마치합죽선(접이식 대살부채)의 모든 부채살들이 모여드는 매듭점과 같은 존재이다.

시인이 그러한 위치에 있기때문에 테제로 인한 마을의 전변의 력사와 그 과정, 그 전변의 모습들이 모두 그에게로 투시되어와서 집중된다. 시인은 고향으로 내려오는 길에 그 옛날 송아지동무 셋이서 고향을 버리고 떠나려다가 미련을 못버리고 걸터앉았던 《돌고개》에 서서 몰라보게 전변된 마을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감회속에 추억을 더듬으며(제2장 돌고개) 어릴적친구이며 지금은 관리위원장이 만준의 집에 초빙되어가서 만준이가 모시고사는 전사한 전우의 눈이 먼 어머니 손녀가 새끼를 꼬며 늘어놓는 추억담에 귀기울이고 군농기구공장에 가서 분수식관개용관을 싣고 늦게야 돌아온 만준이와 베개를 나란히 하고 누워서 농장의 전변의 력사를 듣고 현시비 비문을 잘

써달라는 부탁도 받는다.

《석민이 이사람 시인이랴구
농사군의 소리를 흥보지 말게
별게 있나
아버이수령님께서
농촌테제를 어떻게 내놓으시고
여기 선봉땅에서
어떻게 령도해오셨는가를
보래지도 말고
덜지도 말고
그대로 쓰면 되지 않나
그대로 말이야...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라는
평범하고 단순한 말의 조용한 반복이
시처럼 울리는 여운을 안고
나는 문득 일어나앉았다

(제3장 《고향의 밤》)

그리하여 시인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무르익히시던 농촌테제의 탄생과정과 그 관철을 위한 현명하고 세심한 령도의 과정에 대해서 알게 되고 마을의 좌상이며 체험자인 춘보령감에게서 땅의 력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한다. 그는 패한 흥경래 봉기군의 후손으로 지주집 외양간에서 태어나 이름도 상스러운 상정이의 땅에 얹힌 한참고 슬픈 운명으로부터 그의 아들 만준의 오늘에 이르는 땅의 력사를 더듬는다.

시인은 전변된 고향마을에서 보고 듣는 모든것에 마음이 끌리고 감동을 받는다. 10년전에 왔을 때는 대장쟁이 령감한명과 더벅머리 오총각이 맨땅에 퍼터앉아 콩구질을 하던 마을의 허줄한 야장간이던 자리에 오늘은 수리공장처럼 일어난 농장기계화반에 둘러 그간의 변천의 력사와 오늘의 자랑이야기를 듣고 만호의 구령으로 수십대의 트랙토르가 봄밭갈이 전투장인 포전으로 떠나가는 장쾌한 광경도 구경한다.

또한 마을이 수도화되어 지금은 인적이 끊어진 조용한 우물가에 서서 이면에는 그곳이 아침저녁 물동이를 이고나온 마을너인들이 마을소식을 주고받는 유일한 모임장소였으며 때로는 고향을 등지고 북간도로 떠나가는 리향민이 피나리보짐에 물한병 떠가지고 가던 눈물의 리벌터이기도 했고 또 때로는 물길던 처녀가 총각의 휘파람소리에 얼굴을 붉히고 끝내는 짝을 묻군하던 사랑터이기도 하던것을 회상한다. 그리고 그 잊지 못할 추억의 고장이 종일가야 사람 한명 얼씬하지 않는 한적한곳으로 되어버린것을 보면서 그것이 집집마다 부엌에 수도가 들어간 테제의 《동네오촌》의 말대로 하면 《동자군 한명씩 돈것 같은》 해택인

줄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전날의 그 왁작 떠들썩하던 우물터에 대한 야릇한 감회와 추억을 버리지 못한다.

이미 너의 시대 끝났다 해도
우물터, 고향의 옛 우물터야
출렁여다요 속삭여다요

이제 새삼스레
물이야 뭘 마시랴만
듣고싶구나 너의 출렁임소리
...

(제16장 《옛 우물터에서》)

이처럼 시인은 고향에 내려와서 테제의 탄생과 정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관찰과정, 그 결과 전변된 마을의 변모와 행복한 농민들의 생활상 등을 직접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며 전날의 고향과 고향사람들의 생활을 회상하여 추억에 잠기기도 한다.

그리하여 그 모든것이 접이식살부채의 모든 부채살들이 부채의 매듭점으로 모여들듯이 시인에게로 집결된다. 그래서 언뜻 보면 산만하게 라벨된듯한이 모든것들이 시인을 매개로 하여 하나의 견고한선으로 편결되며 립체적인 양상을 띤 하나의 판통된 이야기줄거리, 소설적이 아닌 시적인 이야기를 형성한다.

시인은 현시비의 비문을 쓰는데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자기 손에 모아쥐였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진정한 현시비문을 쓰기 위해서는 꼭 또 한곳엘 가보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것은 선봉농장의, 아니 온 나라의 풍년이 시작된곳이다. 그리하여 오아저씨 딸 송순이, 어렸을 때 달구지우에서 얼어떨고있는것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아 내려주신 달래각시였으며 그후에는 모관리공이던 송순이는 관리위원장과 함께 수령님의 승용차를 타고 그이의 저택으로 가게 된다. 그리고 놀란다. 수령님 저택의 정원에는 각종 시험포전이 꾸려져있고 수령님께서 몸소 거기에 베풀, 강낭이를 비롯한 모든 알곡작물들과 우리 나라의 복단인 회령의 백살구와 남단인 강령의 감나무등 각종 과일 나무까지 심고 가꾸시면서 실험과 연구를 하시며 우량종자를 길러내시고 옹운 재배법, 시비법 등을 농업과학자들과 농장들에 보내주시는것이다. 시인은 위대한 수령님의 그러한 저택정원을 가리켜 정당하게 《이 나라의 풍년이 시작되는곳》이라고 노래부르고있다.

시인은 서사시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창조에 가장 큰 힘을 기울이고있다. 특히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지니신 위대한 인간애, 특히 뜨거운 사랑, 농민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시켜 《허리를 펴게》하시려는 념원과 그 실현을 위해 정력적으로 세심한 령도를 벌리시는 그이의 교매한 품모

를 커다란 존경심과 경모의 정을 안고 그리고있다. 그러나 그 어떤 가식도 불필요한 수식도 과장도 없다. 시인은 아버지수령님께서 농촌테제를 어떻게 내놓으시고 어떻게 령도해오셨는가를 만준이 말대로 《보래지도 않고 덜지도 않고 그대로》 쓰고있다.

《그대로》-이것은 모든 위대한것을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그 어떤 가식도 현란한 수사학적 과장도 위대성에 손상을 가져올뿐이다. 만준은 농민적인 지혜와 자기의 실지체험을 통해 그 진리를 터득하고있다. 시인은 만준이가 《그대로라는 평범하고 단순한 말의 조용한 반복이 시처럼 울리는 여운을 안고》 만준의 권고에 따르는것이다. 서사시의 매듭점인 시인에게로 집중된 마을 전변의 모든 력사는 그 위대한 력사의 창조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선명하고 풍부한 형상에 의하여 강한 조명을 받는다. 그리하여 시인은 비로소 현시비문을 쓸 결심을 내리게 된다.

서사시에 등장하는 인물은 불과 몇명 안된다.

시인외에는 관리위원장 만준이와 그가 모시고 사는 옛전우의 어머니인 순녀, 대장쟁이 오아바이와 그의 딸 송순이 그리고 마을의 첫 프락포르운전수였으며 지금은 작업반장인 송순이의 남편 동국, 원래 호인이면서도 소시민적 리기주의가 가득차있던 《동네오촌》정도다. 그외에 잠깐씩 나오는 인물로 김부수상과 도시에서 농촌지원 나왔다가 뿌리를 내리는 옥희 등이 있을뿐이다. 작품이 서사시이며 그것도 송가적성격을 띤 서사시니 만큼 많은 등장인물이 필요치 않았던것이다.

흥미있는 인물은 본명보다도 《동네오촌》으로 불리우는 사람이다. 원래는 읍에서 이사온 리기주의사상이 농후한 소시민으로 동네의 크고작은 일 다 발벗고나서서 보아주는 호인이면서도 반반한 녀인들을 곧잘 후려내는 난봉군이기도 했다. 그러던 그가 농장생활 30년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개변된다. 그는 지금은 로동당원이면서 농업근로자동맹 초급단체위원장의 직책까지 메고있다. 그것은 테제에 제시된 사상혁명의 덕택인것이다. 필자는 그의 개변과정은 그리지 않았다. 만약 소설이었더라면 그것이 허용되지 않았을것이다. 그러나 서사시에서는 그것이 허용되며 오히려 보다 더 효과적이기까지 하다. 필자는 테제에 제시된 사상혁명을 그렇게 처리했을뿐아니라 문화혁명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것을 빠뜨리지 않고 그려내는것이 능사는 아니다. 생략할줄 아는것-이것이 작가의 중요한 재능의 하나라고 말한다고 해서 궤변으로는 되지 않을것이다.

서사시에서 사용된 언어는 농민처럼 아니 땅 그것처럼 단순소박하다. 어느 장, 어느 줄에서도 번쩍이는 재치도 현란한 표현도 찾아볼수 없으며 멋을 부린 대목도 없다. 그런데 그러한 단순성과

소박성이 이 작품으로 하여금 《땅에 대한 노래》가 아닌 《땅이 부르는 노래》, 작품의 표제 그대로 《땅의 노래》로 되게 하였다. 수천년동안 자기의 아들딸인 농민들을 품어안아 키우면서 그들의 한과 고통에 찬 삶을 영위하며 흘리는 땀과 눈물에 젖었으며 신음소리에 같이 신음하면서 고난에 찬 그들의 불행한 운명을 함께 겪어온 땅은 이제 비로소 입을 열어 태제의 휘황한 빛발아래 일어나고있는 대전변과 희망과 보람과 행복이 넘치는 그들의 새생활, 그들의 밝은 새 운명을 소리높이 노래하고있는것이다. 그렇다. 땅이 노래하고있는것이다. 시인은 그것을 대변했을뿐이다.

형상에서는 부족점이 없지 않다. 어떤것은 전혀 시적으로 승화되지도 다듬어지지도 않은채 생경한 그대로 산문을 토막내서 서술했거나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시화되지 않은 대화를 그대로 옮겨놓은듯한 대목들도 있다. 물론 그것은 찬양할 수 없는 결함이다. 그런데 한가지 류의해야 할

점은 그러한 결함들이 서사시 전체를 읽어나갈 때 크게 거슬리지 않고 넘어간다는 사실이다.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서사시의 매개 장, 매개 편, 지어 매개 시행과 구절마다 진하게 스며배고 시행들사이마다 넘쳐나고있는 시인의 절절한 감정과 정서때문이다. 그러한것들이 결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것들마저 뒤덮어버리고 서사시를 끝까지 지루한감없이 커다란 공감을 안고 읽을수 있는 작품으로 만든것이다. 그러한 절절한 감정과 풍만한 정서는 농촌과 농민에 대한 시인의 뜨거운 애정에서 우리나라온것이다. 그리고 그 애정이 감정의 진실성을 낳았고 그것이 서사시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쓰려는 대상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거기서 우리나라오는 진실한 감정-이것이 문학작품 특히 시문학작품창작에서 기본 문제라는 진리를 이 서사시에서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서사시 《땅의 노래》에서 우리가 찾은 교훈이기도 하다.

내 고향의 밤

전영희

이제는 날 저물어
손잡고 헤어저간
청년분조원처녀들 목소리도 잠잠하고
문여닫는 소리 이속해진 밤

고향마을은
어둠의 나락을 걸어안고
고요히 잠든듯싶네

허나 이밤 귀기울여
나는 듣네, 고향이 숨쉬는 소리
어디나 전하고싶은 자랑인듯
무르익은 낱알향기 한껏 모아실고
보폭이며 실개울을 지나는 선들바람소리

방금 내린 첫이슬이
강냉이이삭을 쓰다듬으며 구르는 소리
소리없이 부풀며 여무는
벼이삭의 속삭임도 들려오네

들려오네 나의 귀전에
동구길 버드나무를 감돌아
과원옆을 정답게 스치는

울봄 새로 켜 물길의 유정한 흐름소리

처녀들 웃음처럼 익어 떨어지는
대추알들이 구르는 소리
등판마다 무르익어 곱게 단장한
사과알이 달빛과 속삭이는 소리

아, 고요를 깨칠가 저어하듯
정열의 종다리인양 서정을 읊조리는
고향의 음악이여, 밤의 노래여
너는 풍요한 내 고향이 터놓는
풍년가의 흥겨운 전주곡 아닌가

여기에 내 미숙한 시
더하면 흐려질가보아
송구해 송구해 내 마음 달래어도
짓고싶어 고향찬가를 보태고싶어

영원히 고향의 딸로 살고싶거들랑
부르고 부르다 목소리 쇠잔해져도
나는 쓰고쓰리라
나무리별 내 고향 이밤의 음악을

사랑의 권리

강선규

그림 김원래

(전호에서 계속)

5. 삶의 근본을 두고

나는 마감장을 넘긴 굴진소대장의 소설원고를 무릎에 놓고 김의자등받이에 몸을 기대었다. 하늘이 안보이게 우거져 설레이는 대학교재림이 한 눈에 안겨든다. 굽고 가는 가지마다에 달려서 햇빛에 반짝이는 푸른 잎사귀들이 마치도 소설속의 산 인간들처럼 생각되었다.

잎은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 존재가치가 없어진다. 인간도 마찬가지이다. 삶의 근본인 사회와 집단에서 떨어진다면 인간으로서 본래의 사명은 끝 나버리고말것이었다.

장설이... 소설속의 장설이는 틀림없이 굴진소대장의 자화상이다. 아마도 10여년전 자기네 가정과 탄광마을의 생활을 소설에 담은것 같았다.

얼마나 아름답고 의로운 사람들인가! 탄부들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것을 응당한 복무로 간주하는 전 탄광당비서 주룡석의 모습이 다시금 우뚝이 떠오르며 머리가 숙어지었다.

나이 많은 장설의 아버지가 먼 출퇴근길에서 힘들어할새라 갱가까이에 있는 자기네 살림집을 바꾸어주는 이야기, 온 탄광사람들이 《우리 당비서》라고 호칭하며 따르는 인간의 지극한 사랑의 세계... 그 매혹적인 성격의 근저에는 어떤 뜨거운 인간애가 웅심깊게 굽어치고있는것일까?

한걸음을 걸어도 백걸음을 걸어도, 꿈속에서까지 탄광사람들을 위한 주룡석당비서의 헌신성, 바로 그 마음속에 우리 당을 받들고 나라를 받드는 진정한 사람이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바로 그러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이 숭고한 희생성으로 승화되어 막장에서 물주머니가 터졌을 때 육탄처럼 제 한몸을 내대어 수십명 탄부들의 목숨을 구원하는 영웅적인 행동을 낳게 하였던것이다.

아름다운 인간이 남긴 삶의 자욱은 사람들의 마음을 영원히 정복한다고 어느 시인은 말하였다.

굴진소대장청년은 자기를 로동계급의 대오속에 떼땀이 내세워준 고마운 인간들이 먼 후날에도 사람들의 뜨거운 기억속에 남게 하고싶어 이 글을 썼을것이었다.

표현과 문장서술에서 약간의 미숙성은 있으나 전반적인 감정조직과 성격들은 얼마나 진실한가! 나의 친구 윤석이가 것처럼 귀애하며 걱정하던

청년이어서 더더욱 호감이 갔고 일요일에는 만사를 잊혀놓고 그가 입원한 병원으로 찾아가 소설을 긍정해주기로 작정하였다. 그리고 시대와 인간에 대하여 그와 열렬한 이야기를 나누리라...

우리 사회의 인간상들이 안겨오는 소설을 본 흥분을 누차하며 소설원고를 소중하게 쓰다듬는데 곁에서 인기척이 났다.

《저... 혹시 선생이 아닌지요?》

고개를 들어보니 짧은 소매로된 밝은 회색양복을 입은 사나이가 사람 좋은 웃음을 짓고 서있었다.

《뉘신지?》

나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다.

《피복연구소의 유천일이라고 합니다. 강좌에 들렀더니 이곳에 가보라고 해서... 며칠전에 선생이 나를 찾아왔다가 만나지 못했다고 하던데... 그때우리 실장동무를 만났었지요?》

《아, 우리 연희선생의 남편직장에서... 세포비서동무죠?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는 서로 손을 잡은채 김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참, 미안합니다. 이미전에 내가 선생을 먼저 찾아왔어야 하는건데 구실을 못하다보니 이제야...》

그는 내가 권하는 담배를 사양없이 붙여물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선생이 연희선생과 남편의 생활에서 너무도 이해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찾아왔었다는 실장동무의 말을 전해듣고 나는 정말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하나의 세포를 당앞에 책임진 내가 일을 쓰게하지 못했습니다.》

유동무는 시름겨운 눈길로 흔들리는 나무잎때문에 그늘모양이 무시로 달라지는 발밑을 내려다보며 다시한번 길게 담배연기를 내뿜었다.

대학뻔 공부를 잘했고 발명권도 받은 연희선생의 남편이 연구소에 처음 왔을 때 그에 대한 부서의 기대는 매우 컸다고 한다.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은 빈틈없이 다 했고 전개력을 가지고 사업할줄도 알았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자기 뒤통에 대한 계산을 지나치게 하면서 조직과 집단의 리익보다도 자기 개인의 리익이 있는 일에는 양보를 할줄 모르는 인간으로 되었다. 다만 그것을 외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을뿐이었다.

연희선생과의 가정불화문제가 로출되기 직전에

연구소에서는 지방의 어느 피복공장에서 일하는 한 재단사로부터 신소를 받았다. 재단사가 수년 동안 고심하며 창안해오던 프로그램식 자동재단기를 연희선생 남편이 도와준다고 하더니만 그 성과를 자기의것으로 만들어 론문을 발표했다는 것이었다.

지성인의 행동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 연구소에서 현지에 나가 확인하기로 했다. 결과 재단사의 말이 사실이었다.

이 일을 계기로 사람들은 연희선생의 남편에 대한 인상을 달리하게 되었다. 좋은 동지들과 화목한 집단속에 이런 후안무치한 행동을 하는 인간이 있다는것은 가슴아픈 일이 아닐수 없었다.

뒤이어 연희선생과의 가정문제며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련달아 생기었다.

유동무는 이러한 행동을 낳게 한 그의 사상적 병집을 미리 가려보지 못한 자신을 안타깝게 힐책하고있었다.

《선생,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당조직이있고 이 좋은 제도가 있고 훌륭한 집단과 동지들이 있는데 그들의 결렬을 보고만 있을수야 없지않습니까?》

유동무의 이 물음은 나 역시 그에게 하고싶었던질문이었다. 물론 나에게도 가책되는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연희선생의 가정이 그 지경으로 되도록 모르고있는것이 무엇보다 큰 나의 과오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세포비서들은 누구나 스스로 찾아와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고싶어할 정도로 심장이 뜨거워야 하고 도량이 넓어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어찌보면 도량이 좁고 심장이 뜨겁지 못한 내정우를 두고 하신 심려의 말씀같았다.

《연희선생 남편의 의향은 어떻습니까?》하고 나는 되물으며 속을 조이며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 동무의 문제가 사상투쟁의 초점이 되었던 그날 우리 동무들은 안해와의 불화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비판을 준다음 앞으로의 결심을 물었지요. 그는 눈물을 흘리며 <사회와 집단 앞에 성실치 못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리기심과 비량심이 안해와의 인간관계에도 작용했기때문에 가정에서 균열이 생겼다>고 솔직히 말합니다. 결국 자기는 사회와 집단 속에서는 물론 가정에서도 사랑의 권리를 잃어버렸다는겁니다.

나는 그에게 참된 인간이 지닐수 있는 사랑의 권리를 동무스스로 되찾기를 바라며 또 빠른 시일내에 가정이 화목해질것을 믿는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유동무의 말은 무겁던 나의 가슴을 어느정도 개운하게 하였다.

지금 현재 그들의 관계를 푸는데서 급선무는 연희선생의 가슴에 들어있는 얼음덩어리를 녹이

는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안해의 마음이 풀리고 유연해지면 가정은 활력에 넘치고 편안해지마련이다. 녀성의 따뜻함을 떠나 가정의 화목이란 있을수 없다. 노래에도 있듯이 녀성은 생활의 꽃이며 가정의 향기라고 말할수 있다.

남자가 안해를 자기에게 복종해야 할 의무만을 지닌 대상으로 간주하고 녀성의 자주성과 개성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구속이며 가정은 병들어 시들어 버린 꽃나무와 다름없이 될것이다. 거기에 무슨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며 향기가 풍길것인가.

바로 연희선생의 남편은 이것을 몰랐었다. 연희선생도 남편의 이러한 병집을 어느정도 알고있을듯싶다. 하기에 그는 참기도 하고 설복도 하고 애원도 하다가 혐오감을 이기지 못해 남편도 시집도 사랑마저 버릴 생각을 했을것이다.

하지만 연희선생이야말로 지성인답게 더 참고 더욱 심장을 불태워 자기들의 사람을 지켜냈어야 하지 않았을까, 전후사연은 어떻게든시간에 인간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비옥한 토양에 뿌리를 둔 인생일진대 남편 하나 옳은 인생길로 이끌어주지못한다면 어떻게 사랑으로 충만된 우리 시대의 교육자라고 감히 말할수 있으랴!

새삼스레 나의 눈길은 굴진소대장이 쓴 소설원고에 가서 멎었다. 소설에 나오는 주룡석당비서나 장설의 부모들 그리고 탄광마을의 생활은 얼마나 시대감이 약동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대조를 이루는 연희선생네 가정인가...

소설은 시대의 반영이며 그것은 곧 우리의 생활이다. 소설과 현실을 별개의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소설의 주인공들이 체험한 그렇듯 고상한 인간의 향기, 사랑의 진미를 한순간이나마 감수하지못한채 일생을 마칠수도 있다.

온 사회가 일심단결하여 창조하는 사랑의 노래가 너무 벅차고 황홀하여 세상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내 나라인데 우리의 매 가정에서 창조되는 사랑의 노래도 마땅히 사소한 불협화음이 없는 아름다운것으로 되여야 할것이였다.

이것은 시대의 요구이며 복받은 땅에서 살고있는 우리 인민의 생활방식이 아니겠는가.

나는 유동무와 무릎을 맞대고 한가정의 화목과 생활의 향기를 부활시킬 문제에 대하여 무척 오랜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로부터 한달이 지난 어느날, 나는 강좌장 선생으로부터 연희선생이 며칠전에 시집으로 돌아갔으며 집안밖을 지난날보다 더 알뜰히 거두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들었다. 부부가 나란히 출근길에 오른것을 제눈으로 보았다는 어느 교원의 이야기도 들었다.

그 순간의 감정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하랴. 대학생들의 창작실습을 방조하러 나갔다 돌아오니

이런 희소식이 기다리고있었다.

물론 연희선생이 남편에 대한 견해를 다 일소해버렸다고는 보지 않았다. 그러나 툭툭하고 리지적인 그가 남편에게서만이 아니라 자기자신에게서도 사랑이 금이 갔던 원인을 찾았다고 믿어짐을 금할수 없었다.

전에 없이 화기애애한 강좌의 분위기를 온몸으로 감수하며 나는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었다.

온갖 사랑의 향기와 열정이 빛나는 결정체로 승화되어 천래만상으로 솟아오른 수도의 거창한 건축물들이 한눈에 안겨왔다.

(사랑의 무한대한 원천이 없다면 저 반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일떠세웠으랴.

만약 그것이 없다면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어떻게 저렇듯 밝고 명랑할수 있으랴!)

나는 가슴속 깊은곳에서 솟구치는 걱정으로 하여 눈부리가 뜨겁게 젖어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이런 사랑의 젖줄기를 심장에 간직하고 한생을 보람있고 긍지롭게 살아갈수 있도록 하여준 고맙고 은혜로운 어머니당의 품에 천번이고 만번이고 큰절을 드리고싶었다. (다음호에 계속)

축복받은 날에 부른 노래

박두천

장가를 가오

시대와 대오의 락오자가 되었다고

스스로 버렸던 이 몸이

만사람의 축복을 받으며 장가를 가

믿어지지 않아라

너무도 상상밖이어서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가

너무도 벅찬 행복에 겨워서

성스러운 군사복무의 나날

뜻하지 않는 정황에서

동지 위해 바친 피가

이렇듯 크나큰 행복을 가져다줄줄은

꿈에도 몰랐어라

꺼져가던 이 숨결

나자신도 오히려 그것이 편안해

조용히 눈을 감을 때

사람의 불사약 보내주시어

이 몸을 소생시켜주신

우리의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

나를 낳은 어머니

내 손목 잡고 눈물을 흘리고있을 때

그이께서는 영예군인이라

사회앞에 떳떳이 내세워주셨어라

미더운 전우를 나의 곁에 보내시어

사랑의 꽃방석에 앉혀주시었어라

눈물이 나오

침상에 누워서 받아안은 사랑 한량없는데

오늘은 또

온 세상 산해진미를 다 합쳐도 비길수 없는

크나큰 잔치상 베풀어주시었으니

목이 메여 들수가 없구나

눈앞이 흐려 보이지 않노라

어머니란 무엇인가

낳아주고 애지중지 키워준 생명의

은인이 어머니라면

나의 어머니는 누구

이 몸을 아껴 새 삶의 길에 내세워주신

우리의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

그 품에서 이 몸은 새 생명 받아안았어라

그 품에서 이 몸은 생의 희열을 노래하노라

삶도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안으신

친애하는 그이 품에선

이 땅에 불구자가 있을수 없노라

누구나 그이품에 안기면

행복한 혁명전사로 한생을 빛내여가노라

아 나도 나의 안해도

나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 세상 모든 인민들을

끝까지 혁명의 한길로 안고가시는

한없이 자애로운 사랑의 품이여!

시조

그립던 땅에서 (2)

(중국) 김동호

태양이 솟은곳

내 어릴적 그 어느날 아침
남먼저 일어나 달려갔겠지
불디붉은 태양을 가까이 가 보고저
동남산마루에 치달아올랐지

산마루에 숨차게 내 올랐을 때
해는 또 동남산의 동남산에서
나를 반겨 웃고있었지
그 웃음이 어찌면 그리도 황홀하던지

세월이 흘러흘러 기억조차 아득한데
내 오늘 반백이 된 어른이 되어
여기 마음의 태양 겨레의 태양 솟은
만경대초가집에 왔어라

만약에 하느님이 정녕 있다면
우리에게 겨레의 태양을 보내주신
그 하느님께 무릎꿇고 엎드려
백번만번 절을 올리리라

열어제끼 저 방 한가운데
바로 저 상앞에
지금도 그이가 앉아계시는듯
저기 집앞 나무그늘아래서

손에 책을 드시고 사색에 잠기신듯
세월이여 물어보자
그날의 그이가 아니었더면
이 나라 강산이 어떻게 되었을지

물어보자 대동강아
그날의 그이가 아니었더면
오늘의 백의민족운명이
어떻게 되었을지

아니 우리 겨레들만이 아니여라
여기 사품치는 인파속엔
산을 넘어 수천리
대양 건너 수만리
검은색피부의 사람들도
황색피부의 사람들도
백색피부의 사람들도
줄에 줄을 이어 찾아오누나

내 여기 고향집뜨락에서
떠나기 아쉬워 아쉬워
평양성 우러러 옷깃 여미노라
-우리 마음속 태양이시여
부디부디 만수무강하소서

조선의 기상

-주체사상탑을 우러러-

20세기 조선의 얼이
여기 장엄히 솟았고나!
온 누리의 풍운을 굽어보며
추켜든 화불!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
우리 식 사회주의를 건설하자!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일심단결된 위대한 인민의 투지
여기 하늘높이 치솟았어라

지구에서 해와 별에
제일 가까이 닿은 겨레의 마음
탑으로 일떠섰어라

이 높이에서

내 보노라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 위대한 인민의
하나로 된 조선의 신념을

이 높이에서
내 읽노라
세상에 부럼없이 살아나가는
동포들의 밝은 웃음을

이 높이에서
내 듣노라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세월의 끝까지
백전백승으로 기탁된
이 나라 동포들의 고동치는 맥박을

이 높이에서

내 느껴라
그 어떤 난관도 뚫고나가는
주체조선의 투지를

오, 온 세상이 우러르는 거인이여
해와 별과 더불어
영원히 영원히 빛발치여라!

하늘아 벼락을 쳐라!

-치욕의 장벽을 바라보고-

누가 알라
죽보책을 펼치면
4촌간이 되는 형님과 아우일는지?
5촌숙질간이 될는지?

형과 동생이
숙부와 조카가
외세가 구어놓은 금을 사이두고
쌓아놓은 장벽을 사이두고
총을 겨누고있다니?

알고나면 얼싸안고
눈물범벅이 될 동기간이
이렇게 차디찬 얼굴로
서슬 푸른 눈길로
서로 마주서서 노려보고있다니?!

말하라 장벽아
입을 열이라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말하라 장벽아
어느놈의 작간이냐?

조선의 혼을 탄 사람들이여
세상에 수치스런 이 현실이
청사에 부끄러운 이 거동이
어서 옛말로 되게 하자

하늘아 벼락을 쳐라 박산내라
입을 다물고 서있는
저 치욕의 장벽을

하늘아 천벌을 안기라
남의 땅에 기여들어 장벽을 세운
저 양키놈들에게!
우뢰야 터져라
양키들을 등에 업고 으시대는
저 앞잡이들이 정신차리게!

기적의 나라

-서해갑문을 보고-

기적이란 어떤것인지
말로만 들어오던 나
기적이란 과연 무엇인지
책에서만 읽어보던 나

오늘 예서 난생처음
기적을 보노라
자자손손 세세대대
이어가면서
높은 산을 옮기여
길을 냈다는
그 전설은 하나의 옛말로 들었건만
여기 옛말 아닌 기적이
현실로 펼쳐졌고나!

과연 전대미문의 구상이로다
사나운 바다물도 여기서는
머리를 숙였고나
대동강도 여기서는
그이의 구렁에 발걸음 맞추누나

진정 위대한 수령 영명한 지도자
영웅적인 강철의 대오로다
아니, 여기서는 모든 수식어가
무색하여라

-후손만대에 복을 마련해주자
-속도전, 전격전, 섬멸전,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한쪽한쪽의 표어
하나하나의 글자
여기서는 입으로만 글발로만 아닌
높뛰는 맥박
고동치는 심장
포성없는 전투장
일떠서는 현실이여라

오, 창조와 기적으로
일떠선 조선이여
자랑스런 고국이여

위대한 동포들이여
그대들이 있어

우리는 이역만리 그 어데 살아도
의젓하여라

벗들이여 안녕히!

-고국을 떠나며-

미더운 벗들이여
고국의 겨레여
오늘 우리는 떠나간다
영광의 땅 여기 고국강산에
술한 감탄사를 심어놓고 간다

조선의 기상-주체사상탑앞에
동방의 거물-서해갑문언제에
조선의 요람-소년궁전뜨락에
국제친선전람관과 평양의 거리거리에
술한 감탄사를 심어놓고 간다

뜨거운 친우들이여
못잊을 동지들이여
이 몸은 가도 마음은 두고 간다

가슴에 머리에 술한 감탄사를
한가득 안고 이고 나는 간다

이 많은 감탄사를
내가 사는고장의 벗들에게
그들 마음의 옥토마다에
알뜰히 심어 가꾸리라

벗들이여
위대한 태양
향도의 별빛아래
만풍년의 가을에
다시 만나자
통일의 광장에서
얼싸안고 춤추자

나무모기르기공의 마음

로창남

잘 가거라 잘 가거라
내 손길에서 삼년 자란
이깎나무 잣나무모야
작별은 언제나 아쉬운것이지만
즐겁구나 오늘 우리의 작별은-

새 산판으로 떠나들 간다고
진주목걸이 걸어주더냐
푸르른 잎사귀마다에
반짝이누나 구슬같은 이슬방울이
아침해빛 안고 금빛처럼 빛나누나

보아라
저희들이 깃들 새숲이 또 생겨난다고
건넌산의 고운 산새들이
포록 포록 날아며
즐거웁다 노래하누나

아, 한여름 뜨거운 해별을 막아
네 머리위에 쓰리발을 얹어 덮어

서늘한 그늘을 불러주고
벌레가 낄세라
약비를 뿌려주던 이 마음이어서

잘 가거라 잘 가거라
정다운 이깎나무 잣나무모야
내 타고갈 자동차 트랙또르도
어서 가자 부릉부릉-너를 부르거니
내 안아 태워주마

어서 가서 지심 깊숙이 뿌리내리고
자라거라 하늘높이
그리고 부르라
문수봉에 펼치신 새숲의 노래
이어 이어 부르려마

아버이수령님의 원대한 구상따라
온 나라를 숲으로 뒤덮고
좌아좌아-설레이라
영원히 조국산천에

어서 오세요

제 1 부

손광수

어디선가 들려오는 재치있는 드람소리와 함께 경쾌한 화고트의 선율.

가까이보면 아름다운 꽃속에 묻히운 대성산 동물원의 전경.

돌금봉어의 입에서 꽃보라인양 터져오르는 분수속에 텔레비죤극자막이 나온다.

홍겨운 장단에 맞추어 호수에서 춤추는 진귀한 새들. 꽃목걸이를 걸고손저어 부르는 성성이, 타조들이 억센날개를 펴고 노닐며 호랑이, 원숭이무리들이 화답한다. 그런가하면 눈같이 하얀 흰공작이 날개를 펴고 앵무새가 지저귄다.

공작새의 날개가 정지되면서 재명.

《어서 오세요》

제1부

끝없이 펼쳐진 꽃밭속에서 우리의 주인공 은아와 명애가 춤을 추며 달려나온다.

《자!》

창공에 뿌려지는 두송이의 꽃.

경쾌한 음악이 터져오른다.

처녀들을 반기는 타조들.

노래부르며 구내로 들어서는 두 처녀.

남모르게 품어온 꿈 여기에서 싹이 트고

푸르른 아지를 펼치여가네

어서 오세요 정답고 유쾌한 동물원으로

그러면 웃음이 넘쳐요 그러면 즐거워져요

무슨 일인가 하여 의아해하는 흰 얼굴원숭이.

동물들과 서로서로 주고받으며 노래하는 두 처녀의 아릿다운 모습.

분수결에서 깔깔거리는 처녀들.

찬봉집

신문을 보던 맥주공장 판매과장 찬봉 처 손복을 가볍게 질책한다.

《웃긴, 세대주가 말하는데 흐지부지하면서...》

그냥 웃기만 하는 손복.

《됐수다. 됐어요. 당신이 아무리 승강기처럼 오르내려두 소득이 있을것갈소?》

《아 우리 은아가 동물원에서 적게 일했소? 말관리공 3년에 기능공학교까지 졸업해. 이제 동물학연구소 조수로만 배치 받으면야...》

《예? 허허, 그래두 은아네 직장장아주버니 말은 다르던데요. 가가 없는동물원은 꽃이 없는 풀밭과 같더군요.》

《뭐? 관상용 그 친구가 그래? 욕심은 곰 발바닥 같다니까.》

우리 은아야 공부 잘해 인물 고와내 딸여섯을 줄줄이 낳아놓구 동네보기 좀 부끄러운감은 있지만 막내딸만은 연구소에 보내서... 보람을 느껴보자는거야.》

《헤이구, 그래두 은아 생각은 다르던데요...》

《두고보라는데 우리 굴레벗은 망아지가 내 손탁에서 툽이 되어 하늘로날아가지 않나...》

일어서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찬봉.

《허허, 령감두...》

어처구니 없어 웃는 손복.

옷방

명상에 사로잡혀 록음기 스위치를 넣는다.

발장단을 치는 찬봉의 얼굴.

이때 손복의 다급한 소리.

《여보, 아니 은아책상우에 동물원사양공 배치장이 있수다래.》

《뭐? 어아쿠... 이 계집애가 끝내...》

안경을 찾아끼는 찬봉.

확대되는 《동물원 사양공》배치장.

《여보, 은아가 어디 갔소?》

《예? 저 졸업기념 야유회를 한다구 새벽부터 짝어바르며 법석이더니 동물원엘...》

《뭐 동물원?...》

급히 어디론가 나가는 찬봉.

동물원 정문

오토바이를 타고 들이닥치는 찬봉.

놀라는 기린들. 불안해하는 호랑이들.

경적을 울리는 찬봉.

《영? 이건 어떤 녀석이야?》

동물사들을 돌아보던 직장장 노한다.

성이 나서 우리안을 돌아치는 호랑이.

구내

여전히 경적을 울리는 찬봉의 심보사나운 얼굴.

달려오던 직장장 친구를 알아본다.

《난 또 누구라구. 맥주공장 판매과장인가?》

쓰거운지 대답을 안하는 찬봉.

직장장방

오토바이 모자를 책상우에 꽂하고 놓는 찬봉.

어리둥절해서 바라보는 직장장.

《임자 이럴수가 있나. 우리 로친네 말을 들으니 은아가 동물원의 꽃이요 벌판이요 하면서 남자 우리 딸을 여기에 불들어왔다지...》

《영? 허허 그래서 혈압이 올랐나?》

은아는 학교에서 톨동사양기라는 굉장한 기계를 구상했는데 그걸 만들어 사람들에게 기쁨과 웃음을 안겨주는데서 보람을 찾겠다는거야.》

《뭐 보람? 짐승이나 기르는 주제에 보람은 무슨 보람? 그거야 돼지관리공하구 갈구 같은거지. 예익!》

배치장을 던지는 찬봉.

직장장의 이마에 가붙은 배치장.

참는것도 한도가 있는 법이다.

성을 내는 직장장.

《여보게 찬봉이, 자네 나를 모욕하는건 참을수

있네만 우리 동물원을 육보이는건 참을수가 없네.

자네 정 곱지 않게 나오면 나두 계산할게 있어.》

《뭐? 계산?》

《영, 스물세해전 우리 만삼이 석돌생일때 체결한 조약을 벌써 까먹었나? 금시 태어난 자네 막내딸과 장차 짝을 무어주자고 했지. 지금은 이 동물원에서 앵무새 관리공을 하고있네만...》

《뭐? 앵무새?》

《허허, 그래 가들사이가 보통사이라고 생각하나?》

어처구니없어 말을 못하는 찬봉.

《...아 아니 그거야 술김에 한 통담이지...》

《호호 자기한테 리로올 땐 진담이구 불리할 땐 통담이라?...》

이마를 찌프리는 찬봉. 그 모양을 보며 통쾌한 듯 웃어넘기는 직장장.

다시 구내

오토바이결에서 한숨짓는 찬봉.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일이다.

(...허 혹을 때려다 오히려 붙이는게아니야. 이거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모자를 쓰고 오토바이를 몰아가는 찬봉.

집안

은아의 어머니 순복 놀란다.

《예? 혹을 붙여 오다니요?》

찬봉의 얼굴을 이윽도록 바라보던 순복 머리를 기웃거린다.

《아니 여보, 허수아비처럼 뻔치고서서 뭘 바라보고있어. 당장 딸 여섯, 사위 다섯 모여놓지 못해? <폭풍>이야. <폭풍>》

《예? 아이구머니나!》

때를 같이하여 창밖에서 구급차의 신호소리.

돌아가는 전화관속에 달려오는 사위들, 딸들.

계속 돌리며 전화하는 순복과 찬봉.

말사

직장장과 청년들이 신바람나게 일하는데 은아와 딸애가 달려와 군대인양 보고한다.

《직장장아바이.》

《직장장아바이, 사양공 진은아 조명애. 대성산 기능공학교를 졸업하고...》

처녀들의 손을 내리우며 애무해주는 직장장.

《오냐, 안다 알아. 최우등한거랑, 굉장한 연구까지 했다는거랑...》

《예? 벌써 아시나요?》

《그걸 왜 몰라! 만삼이랑 이녀석들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

청년들을 둘러보는 직장장.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은아 나직이 말한다.

《직장장아바이, 아직은 생각에 불과합니다.》

《허 그 생각이 기록하거든. 너희들이 동물원에 다시 온걸 축하해서 자승마!》

《야!》

좋아하는 처녀들과 청년들.

경쾌한 선율이 울려온다.

구내

산뜻한 승마복을 입고 말을 타는 처녀들.

구내를 돌아본다.

그들에게 인사를 하며 좋아하는 코끼리들, 원숭이들, 사슴들.

말고삐를 잡고 앞서가던 직장장 고삐를 은아에게 던져주며

《자, 이젠 날려라!》 하고 소리친다.

네발을 안고 달리는 백마들.

마치 전장에 나가는 처녀무사들을 방불케 한다.

대견하여 바라보는 직장장 조각품을 두드리며 중얼거린다.

(이보게 찬봉이, 자네가 아무리 날쳐야 그 든한수 가지고는 안될걸? 은아는 이젠 내 사람이야... 하하, 알겠나?)

응답이 없는 콧조각.

찬봉의 집안

은 가족이 한방 모였다.

《상업부!》

출석을 부르는 찬봉.

《예! 헤헤 아버님 그간 편안하셨습니다.》

《별고 없네.》 건성 대답하는 찬봉.

《등메동!》

《네!》

셋째 딸이 대답한다.

《애아버진 또 출장이냐?》

《호호, 예.》

《언제 한번 가족모임에 제대로 참가한적 없다니...》

《예? 호호 애아버지가 출장갈 때마다 조직하나 그러지요.》

모두 웃는다.

《청년극장!》

《예!》

《그녀석이 4점을 받았다면서...》

할아버지 말에 머리를 숙이는 손자.

《완구공장!》

대답이 없다. 머리를 숙이고 졸고있는 민패. 그의 안해가 팔굽을 건드린다.

《완구!》

소래기를 지르는 찬봉.

그제야 놀라서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민패.

《예! 헤헤 아버님, 우리 집 사람은 일없습니다. 아직 좀 양양거리긴 하지만...》

《영?...》

동문서답하는 민패. 터지는 폭소, 허리건사를 못하고 웃는 딸들. 눈굽까지 찍어낸다.

그의 모습을 바라보던 찬봉 쓰거운듯 입맛을 다시며 혼자 중얼거린다.

《저러니 완구공장이 제자리걸음을 할수밖에...》

《음...》

자못 엄숙한 분위기.

여기에 찬봉의 목소리가 울린다.

《예, 일요일에 이렇게 임차네들을 모이게 한것은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른다구 은아가 이애비의 말을 거역하고 제 마음대로 동물원 관리공이 된 사건때문일세. 연구소에 다 가게 되었는데두 보람이요 뭐요 하면서... 그래 다들 어쨌으면 좋겠나?》

첫째가 걱정스레 말한다.

《아버님, 은아야 남달리 동물들을 사랑하는 애인데 자기가 애착을 가지는 일터에서 보람을 느

끼게 하는것이 어떨가요?》

《엥?...》

여기에 들려오는 소리.

《하필이면 짐승들에게 취미를 붙일게 뭐람!》

《동물관리공이 어째서 그래. 사실 재미있는 일이지 뭐.》

둘째가 제 처를 추궁한다.

《당신은 제 동생이 아니니까 그러지요?》

노하는 찬봉.

《방금 말한 녀석이 누구야?》

그제야 제 정신을 차린 둘째가 난뜩 일어선다.

《헤헤 예. 아버님 생각이 옳지 않구요. 은아야 재능으로 보나 미모로 보나 동물관리공이라니 똥변이나 할일이나요.》

이때 민패가 기세를 돋구며 일어나려 한다.

그를 붙잡아앉히는 은남.

《이거 왜 이래? 저... 아버님, 은아에게 차라리 맹수관리를 시키는것이 어떻습니까? 아 은아의 성격으로 봐두 그렇구 원래 처녀시절이란 공상이 많은 시절이어서 자기를 잘 모르지요.》

이제 맹수들의 스산한 울부짖음소리에 시달리면 아마 기겁을 해서 제발로 걸어나올겁니다.》

우습강스럽게 걸어가는 흥내까지 내는 민패.

또다시 웃는 딸들, 사위들.

머리를 기웃거리는 찬봉.

《그렇가? ... 허허...》

말사

백마에게 물을 먹이며 털을 빗어주는 은아.

어지간히 기분이 좋았다.

부엌

딸 다섯이 모아붙어 동자질을 하며 《입질》들을 한다.

《호호호. 꼭 굴레벗은 망아지라니까.》

《막내라고 어자어자하니까 그러지.》

《호호호...》

방안

찬봉의 주위에 모여앉은 사위들이 한마디씩 한다.

《아버님, 또 이렇게 소동을 피우지말고 은아한테 아버님이 직접 말씀해보시지요.》

얼굴을 찡그리는 찬봉.

《말두 말게... 내 그애가 말관리공을 할 때 동물원에서 나오라구 한번 올려뒀다가 그만 학질을 똥다니까.》

《아버님두요? 하하하...》

다시 말사

은아가 노래를 부르며 백마의 등을 두드려 준다.

바게뜨를 들고 여기로 오는 명애.

《아니, 애 너 말을 시집이라도 보낼셈이니? 무슨 치장이 그렇게 오래?》

《조만간에 이 백마와 헤어진다구 생각하니 앞으로 못해주는 시중까지 다해주고싶어.》

《그럼 너 기어코. 맹수사에 가겠다는거야?》

《그럼. 호랑이와 성성이는 우리의 창조의 대상이거든.》

《은아, 넌 혹시 우리가 처녀라는걸 잊은게 아니야?》

말잔등에 뉘름 올라탄 은아가 까불거리며 말한다.

《우리가 다름아닌 처녀이기때문이지 뭐. 난 맹수를 굴복시켜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주기전에는 절대로 안가겠어! 그 누가 황금마차에 태워 별나라에 보내준대도...》

《뭐? 요 공상가! 이악쟁이! 너 그럼 시집도 안가겠다는거야?》

노래부르는 은아.

《시집은 가 무얼하나요

처녀가 제일이지요.》

귀속말로 《영원히 백발처녀로! 호호호...》

(뭐? 뭐야? 내가 네속을 모를줄 알구!)

말고뻘을 잡아 돌린다.

이리뛰고 저리뛰는 말. 말우에서 어쩔줄 모르는 은아.

꽃밭

깎갈거리며 달아나는 명애를 따라가는 은아.

드디어 꽃속에 자취를 감춘다.

경쾌한 웃음소리.

요란스레 흔들리는 돌국화.

원형사

직장장이 놀란다.

《뭐, 맹수? 처녀들이?》

《네.》

선생앞에 선 학생마냥 똑같이 대답하는 두 처녀.

《허허허... 그게 욕망으로야 돼나? 말그대로 맹순데...》

《야, 직장장아바이! 우린 학교에서 맹수를 전공했습시다. 그렇지?》

명애에게 한눈을 깜빡해보이는 은아.

얼결에 《응》 하고 대답하는 명애.

《애들아, 맹수를 기른다는게 말처럼 쉬운줄 아니?》

《야, 직장장아바이, 하자고 결심해서 못해낼 일이 있습니까?》

《응? 허허허... 좀 생각해보자!》

《야, 꼭 해내겠습니다!》

정문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들어오는 찬봉.

땀사

서로 싸우는 구렁이를 뜯어말리는 직장장.

암구렁이를 번쩍 든다.

날름거리는 구렁이 혀.

《어이싸, 이녀석 저쪽으로 가자...그렇지.》

구석에다 내려놓고 몸뚱이를 쓸어 준다.

(래달이 성성의의 해산달이니까 카로리를 배로 높이고 수의사를 전적으로 붙여야지.)

이때 만삼이 밭박을 가지고 들어온다.

《아버지!》

《오냐, 너 왔냐?》

《식사하십시오!》

《나간다...》

화면에서 빠지는 직장장.

동물사

직장장과 만삼이 나란히 걷는다.

《아버지, 은아랑 맹수를 키우겠다고 했다는게 사실인가요?》

《기특두 하지. 학교를 나오면 뭐 호랑이가 고양이새끼로 보이는 모양이지? 허허, 그렇다고 맹수들을 사내녀석들에게 맡기듯이 척척 맡길수도 없구, 허허허...》

바싹 다가서는 만삼. 아버지를 얼린다.

《아버지, 이젠 은아동무두 왔는데 나두 전번에 하던 동물싸움을 계속해보고싶어요.》

《뭐, 동물싸움? 야 이녀석, 너 아직 정신이 덜 돌아구나.》

아들의 머리를 쥐어박는 직장장.

《예? 아 벌칙으로 앵무새관리를 그만كم 했으면 됐지. 사내라는게 찌찌하게 녀자들짖에 끼워서 더는 일하고싶지 않단말이에요.》

《흥, 그래서 이젠 은아네까지 끌어들여 소동을 피우겠다는거냐?》

《아, 사실 소동이야 내가 피웠나요? 아버지가 피웠지!》

《뭐라구 이녀석! 우리 동물원에서는 싸움이요 재주요 하는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관상동물들을 안전하게 키우는것이 기본이란말이야.》

《아- 아버지진 우리 젊은이들의 심정을 너무도 몰라준단 말이에요.》

《이 동물원에서는 너희들같은 무모한 창조가 필요없어! 순진한 은아네를 들뜨게 할 생각말구 앵무새관리나 잘해!》

《흥!》

아버지를 흘끔 바라보며 달아나는 만삼.

구내길

찬봉이가 어슬렁거리며 다가오다가...

《아니 부자지간에 왜 들 저러나?...》

여보게, <관상용>!》

부르며 달려간다.

범사

서로 신경이질하며 싸우는 호랑이들.

《아니 그게 정말인가?》

《왜 믿어지질 않나?》

《언제는 딸을 내놓으라고 으르렁거리던 사람이 맹수관리를 시켜달라? ...》

《나두 이왕 은아를 여기에서 일시키바엔 좀 큰 직한걸 맡겨주자는거야, 호호호...》

음흉스레 웃는 찬봉.

머리를 끄덕이는 직장장.

《음, 그래- 후회하지 않겠지?!》

《아니, 후회하나니?》

《자네 정 결심이 그렇다면 좋도록 합세! 그러지 않아도 어제 은아가 날찾아와 제기하더군. 맹수관리를 시켜달라구!...》

놀라는 찬봉.

《영? 우리 은아가?》

찬봉을 바라보며 쓴 웃음을 짓는 직장장.

구내길

머리를 기웃거리며 찬봉이가 중얼거린다.

(히, 내가 판 함정으로 은아가 제발로 뛰어들었다? ... 허참!)

꽃눈

권투장갑을 어깨에 메고 흔들거리며 돌아보는

만삼.

《은아, 맹수는 남자들두 다르기 힘든 분야야. 차, 이런. 썬관을 모른다니까...》

《호호호... 우린 맹수를 기를뿐아니라 동물재주까지 하려고 하는데요워.》

《뭐? 아니, 그래서 동물재주를 <물동사양관리기>라는 암호로 불렀었소?》

《예.》

《그런걸 난 또 진짜 기계인줄로 알았됐구만.》

《사양관리를 물동적으로 한다는거예요.》

《영?》

《난 거기에 사양공의 보람이 있다고 봐요! 관상동물들을 춤추는 동물로 만들어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데서...관리공의 보람을 느끼고싶단 말이에요.》

《하하, 생각은 그럴듯한데...》

《만삼동무, 우리 함께 힘을 합쳐 동물재주를 해보지 않겠어요?》

《글썬?... 야, 그러다가 우리 아버지한테 들키는 날에는 벼락이야, 벼락!》

《그리께 성공하기전에는 절대비밀이라지 않아요.》

《피-떡줄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구...》

《예?-》

이때 명애가 소리치며 달려온다.

《은아야-》

《영?》

바라보는 은아와 만삼.

《은아, 직장장아버지가 맹수를 키우라고 승인했어!》

《뭐, 그게 정말이야?》

웃고 떠들며 춤을 추며 달려가는 두 처녀.

닭쫓던 강아지마냥 하늘을 쳐다보는 만삼의 이그러진 얼굴.

(에참, 체네들두 맹수사에 간다는데...)

권투장갑을 맥없이 메고 화면에서 빠진다.

한편 경쾌한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며 돌아가는 두 처녀. 꽃다발을 엮는다.

성성이사

성성이에게 꽃다발을 안겨주는 은아

《자, 대성이. 어서 받아!》

은아의 손을 탁 쳐버리는 성성이.

《아니, 애! 내가 이제부터 네 주인이란다.》

입을 실죽거리며 돌아앉은 성성이.

은아에게 달려들며 소리를 지르는 성성이.

《어마나!》

뒤로 벌렁 나가넘어지는 은아.

《너 왜 성내면서 그러니? 내가 이제부터 네 주인이란다.》

덜치려는 성성을 피해 달아나는 은아.

통쾌해서인지 박수를 치고 발까지 구르며 소레기를 지르는 성성이.

박

실망어린 은아의 얼굴.

《은아-》

명애가 울상이 돼서 달려온다.

《은아, 호랑이가 날 반자고하지 않는구나!》

《뭐, 너두?》

발을 동동 구르는 명애.
《야, 어찌면 좋아.》 두 처녀가 손을 마주잡고 안타까와한다.

《애들아-성성이한테 혼났다면서?》
직장장이 웃으며 들어선다.
울상이 된 처녀들의 얼굴.
《애들아, 그건 동물들이 너희들을 시험쳐보는 거란다. 제 주인이 될수 있겠는가 하고말이다...》

《예?》
《저 왜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냐? 류인원과에 속하는 성성이는 동물계에서도 가장 발전된 뇌수를 가진 영특한 놈이라는걸...》

《저 배우긴 배웠어요!》
똑같이 말하는 두 처녀.
《배웠지, 기운들을 내거라. 난 너희들을 믿고 나라의 귀중한 동물들을 맡겼는데 처음부터 맥을 놔서야 되겠니? 허허허...》

참 은아야, 네가 학교에서 연구했다는 룰동사 양기가 동물들의 수명까지연장한다면서?》
얼굴이 붉어지는 은아.

《예? 어마나 저 그건 사실...》
《음 기특두 하지. 이제 그 기계만 빨리 도입하면야 관상동물보존이 한계단 더 발전할수 있지. 이제 얼마나 보람있는 일이나? 응? 한번 잘 해보자. 알겠냐? 하하...》

생글생글 웃기만하는 은아와 명애.

동물원못가

어린애가 어머니한테 투정질한다.
어린애를 얼리는 녀인.
《동물원에 왜 볼게 없다고 그러니. 성성이, 곰, 원숭이, 앵무새, 없는데 있더냐?》

《싫어... 잉.》
《말도 못하는 병어리앵무새?》
또다시 대답질을 하는 아이.
《아이구, 야, <소년장수>에서 파웅하는 호랑이도 있지 않던?》

《하루종일 잠만 자는거뿔. 전번에 아버지하구 봤는데요뿔. ...빨리 회전그네 타러가자요!》
속상해하는 녀인 할수없이 끌려간다.
그 모양을 바라보는 은아와 명애.
새로운 결심을 다지는 은아의 얼굴.

성성이사

훈련을 시키는 은아.
《일어섯! 대성아 일어서...》
그러나 오히려 은아를 조롱하며 말을 듣지 않는 성성이.
안타까운 처녀의 마음인가 하늘저편에 잔구름이 비꼈다.

은아방

침대우에서 곤하게 잠이 든 은아.
여기로 능청스럽게 들어서는 찬봉.
차던진 모포를 덮어준다.
《호호, 드디어 시작됐군. 맹수관리공동무! 하하...》

귀여운 딸의 코를 킁겨주며 웃는 찬봉.

전실

가방을 쥐여주는 순복 걱정스레 말한다.
《여보, 저애가 얼마나 피곤해하는줄알아요?》

《흥, 맹수 키우기가 그렇게 간단할줄 알았어?》
《허 참, 당신두.》
《됐어, 됐어, 너무 걱정마우. 일이 제대로 되가는데뿔.》
가방을 빼앗듯 들고나가는 찬봉.
《에이구 참.》
귀구멍을 찌시는 순복.
차르릉 자명종소리.

은하방

《아니, 벌써 이렇게 됐나?》 여덟시를 가리키는 자명시계.

와플 놀라 일어서는 은아.
여기로 들어오는 순복. 은아곁에 앉는다.
어린애인양 어리광을 부리는 은아.

《애야, 힘드냐?》
《엄마, 왜 이렇게 피곤할가요?》
《에이구!》
《어머니, 나 동물원 그만둘가?》
《그래, 그만두려무나. 나두 걱정스러워 죽겠다.》

《어머니두요?》
《네가 집에 안들어오니 어디 걱정스러워서 견디겠니?》

은아 안고자던 곰완구를 때려준다.
《에이, 요것들이 어디 말을 들어줘야지요? 그렇게 듣지도 못하는것들을 욕할수도 없고. 어떤 땐 막 때려주고 도망치고싶은 생각이 간절해요!》

《응? 그렇다면 아버지말대로 연구소에 가려무나. 아저씨들까지 좋다던데...》

《예? 아버지 낄 맹수사에서 일하게 해달라구 직장장아바이한테 부탁했다던데요?》

맑은 은아의 눈동자앞에서 얼버무리는 순복.
《오 호호, 너를 더 좋은곳에 보내주려는거겠지...》

《호호호... 그러니까 수를 썼군요. 어머니두 공모하구.》

《허허, 공모는 무슨 공모...》

연방 깔깔거리는 은아.

어처구니없어 웃는 순복.

동물원 출근길

형형색색의 사람들의 물결이 흐른다.
명애를 비롯한 청년들이 보인다.
《은아, 우리가 과연 맹수를 정복할수 있을까?》
명애의 코를 꼭 눌러주는 은아.

《오 겁쟁이, 더위먹은 강아지 달만봐도 짖어댄대. 남들이 할수 없다는걸 현실로 만들어놓는 여기에 바로 창조의 본질이 있는거야. 창조가 없이야 무슨 청춘의 보람이 있니?》

《호호, 애 너 마치 철학자같구나.》
넌 현실을 너무 예술처럼 곱게만 보는게 탈이야.》

《뭐? 그게 어째서. 현실은 언제나 아름다운것 아니까. 어쨌든 인간은 행복의 단조공이거든!》

《아니 뭐? 호호.》
호들갑거리는 처녀들 앞서거니 뒤거니 하면서 달려간다.

범사

한무리의 조무래기들이 말싸움을 하고있다.

《야 저건 호랑이가 아니라 시라소니야.》
 《아니야, 호랑이야. 사람만 보면 막 덮쳐.》
 《체, 알지도 못하면서 맹수도 우리안에 넣으면
 머저리가 된단 말이야. 자 볼래...》
 아이들이 돌맹이를 던지고 나무로 찌른다.
 길게 었던 호랑이가 성이 난듯 어슬렁거리
 며 일어 선다.
 멀리에서 이 광경을 보고 달려온 은아.
 《아니, 저 애들이? 애들아!》
 《관리원이다. 뛰자!》
 달아나는 아이들. 신발이 벗겨지는줄도 모르고
 댈다. 그들을 다정히 불러 타이르는 은아.
 《애들아, 맹수에게 돌을 던지거나 놀래우면 안
 된단다.》

《누나, 잘못했어요...》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든다.
 《애들아, 이 벌은 짐승들중에서도 용맹하고 힘
 이 세고 날랜 조선범이란단다.
 봐요. 얼마나 잘 생겼나요!
 허리가 늘씬한게 꼭 전장의 무사들을 방불케
 하지요?》
 감탄하는 아이들.
 《그래서 옛날부터 용감한 사람들을 호랑이에
 비유했나봐요.》

《야!》
 《내가 오늘 학생들의 선생님이 되줄가요? 이제
 부터 동물원을 돌아보지요.》
 《예!》
 좋아라 박수치는 아이들.
 먼발치에서 은아를 바라보고 흐뭇해하는 직장
 장.

여기에 음악이 흐른다.
 강가머리 풍산개, 공작새사를 돌아보며 무엇인
 가 끝없이 해설해주는 은아.
 한쪽의 그림같은 공원결에서 은아가 다정히 말
 한다.

《...이렇게 우리 동물원은 친애하는 지도자선생
 님께서 너희들이 배운 지식을 톤톤히 다지라고
 몸소 지어주신 배움의 전당이란단다.
 그러니 학생들은 동물원에 와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공부를 해야 합니다.》
 《동물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끝없이 애무하는 은아.
 《웁! 모두가 동물들을 사랑하고 학습에서
 5점을 맞았을 때 너희들에게 재미있는 동물재주
 를 보여주마!》

《야!》
 환성을 지르는 아이들.

야외놀이장

성성이와 친숙훈련을 하는 은아.
 사이다와 맛있는 먹이를 주며 끌어주고 몸도
 닦아준다.
 직장장이 넘겨다보며 흐뭇해한다.
 《호호, 제법 관리를 잘하거던...》
 동물사 내부모 은아의 손길이 닿는곳마다 알뜰
 하게 꾸려진다.

구내길

무성한 꽃숲.
 직장장에게 무엇인가 종이장을 내미는 은아.

종이장을 들여다보는 직장장.
 《영? 이거 동물들의 몸을 닦아주는것도 룰동사
 양내용에 들어가는거냐?》

《예? 호호, 그럼요.》
 《음, 그건 아주 좋구... 쇠바줄 열다섯미터. 영?
 자전거 바퀴두?...》
 《야! 직장장아바이. 언젠는 다해주겠다고 하시
 구선...》

어리광을 부리는 은아.
 《오... 그래그래, 거 정 없으면 내 자전거 바퀴
 라도 떼주겠으니 그 룰동사양기만 빨리 만들어
 라.》
 《직장장아바이, 우리 일이 성공되기전엔 절대
 비밀이예요.》

은아가 엄포를 놓는다.
 《그럼 절대비밀!》
 그 무슨 국가비밀이나 되는듯...

다음날 아침

삼면경대앞에서 화장을 하며 달린옷을 대보는
 은아의 감쪽한 모습.

류행모까지 척 쓰고 해죽 옷는다.
 거울속에 나타나는 순복.
 《어머니, 어때요?》
 《좋구나. 그 색깔이 너한테 어울리는구나.》
 《호호, 하지만 우리 대성이는 진한것을 좋아하
 지 않거든요.》

《아니 뭐, 짐승에게도 이름이 있냐?》
 《이름뿐인줄 아세요. 애기들처럼 건강관리부,
 카로리기준표, 체온표 별게다 있어요.》

《영?》
 《어머니, 내가 이제 아버지가 출장지에서 돌아
 오시면 깜짝 놀라게 하겠어요. <밀림속의 사람>
 이라고 불리우는 오랑우탄에게 승용차도 배워주
 고 오토바이도 배워주겠단 말이에요.》
 《아니 뭐? ... 어이구, 오토바이구 뭐구 아버지
 가 이 새조롱만 보시면 또 소동을 피우지나 않겠
 는지...》

《어머니, 훌륭한 동물원관리공이 되자면 동물
 들을 립체적으로 관찰하고 연구해야 된다는것쯤
 은 아버지도 아실테니까요.》

《에이구, 모르겠다. 난 짬에 끼워서...》

《그렇지, 앵무!》
 앵무새에게 물어보는 은아.

《아니!》
 하고 대답하는 앵무새.

《요건!》
 눈을 깜빡 하며 오토바이 모자를 감추어가지고
 나가는 은아.

《어머니, 나 가요!》
 《에이구... 철두 없지...》

살구꽃 만발한 언덕길

오토바이를 타고 살갈이 달리는 은아와 명애.
 《명애, 직장장아바이가 동물재주하는걸 아시면
 놀라지 않으실가?》

《야! 우리의 동물재주도 이 오토바이길처럼 꽃
 속에 묻혔으면 좋겠다.》

《호호, 부닥치는 난관이 크면 클수록 창조의
 열매는 더 달고 향기로울거야.》

《뭐?》
 기분이 좋았는지 시조로 웨친다.

《난관이 없으면 청춘도 없으리. 자 앞으로!》
오토바이모자창을 내리고 더 세차게 언덕길을
달리는 은아.
뒤이어 두 처녀의 웃음소리.

성성이사
맹혼련을 시키는 은아.
돌기혼련 제자리걸기 도립전회.
책을 펴놓고 무엇인가 연구하며 도안을 그려가
는 은아.
교예극장안에서 비둘기재주며 현란한 색조명들
을 눈여겨보는 은아.

관리원실
재봉기로 성성의 옷을 만드는 은아.
송글송글 내놓는 땀을 훔치는 은아.

성성이사
성성에게 앞치마를 입히는 은아.
《대성이, 어서 일어섯.》
성성을 살살 얼러가며 앞치마와 수건을 씌워
준다.
의자까지 가져다놓는 은아.
《대성이, 좋아요. 어디 앉아보지요. 그렇지. 다
리는 이렇게, 손은 무릎위에...》

성성이가 은아를 흘끔거리며 다리를 뻗뻗 굽는
다. 물을 떠다주는 은아.
《자, 어서 물을 마셔.》
성성이가 병을 쥐고 한손으로 물을 마신다.
그것을 보며 너무 기뻐 손뼉을 치다가 먹을것
을 가지러 조리실로 뛰어가는 은아.
은아를 바라보며 앞치마와 수건을 벗어버리고
바닥에 눕는 성성이.
《아니 야, 대성아.》
돌아눕는 성성이.
안타까와하는 은아.
《야, 너 왜 말을 안듣니. 이 앞치마가 마음에
없냐!
어디 말이라도 좀 하려무나... 흑.》
얼굴을 싸쥐고 우는 은아.
은아를 보고 안됐는지 성성이가 슬금슬금 다
와 머리를 숙인다.
이때 명애가 들어선다.
《아니, 은아, 너 대성이와 친해지는 모양이로구
나.》
《홍, 먹을 때뿐이야.》
《응? 야 대성아, 너 왜 그렇게 말썽이냐?》 명애
를 쏘아보는 성성이. 또다시 돌아앉는 성성이.
(다음호에 계속)

단편소설

생활의 흐름

김동직

(만약 나의 동료들이 지금 이 광경을 본다면
...) 하고 차지현교수는 제자들이 존경심을 안고
바라보곤하는 반백의 머리를 창밖으로 돌리며 쓸
쓸한 고소를 머금었다. 아마 그들은 이 맹랑한
사건을 누구에게나 있을수 있는 일이라는것을 잘
알면서도 단지 이름있는 교수이며 박사인 그가
겪었다는 단 한가지 리유로 해서 거기에 별의별
해학을 덧붙여 이야기할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대학과 연구원에서는 자기에 대한 그 무슨 《현
자》의 패설담비슷한 이야기들을 수없이 엮고있
는것을 모르지않는 차교수였다. 대학에서 무시
못할 발언권을 가진 로장이라고 할수 있는 그에게
는 생활에 대한 무관심과 건망증으로 하여 생겨
난 이러저러한 일화들이 하도 많아 즉석에서도
열손가락이 모자라게 실례를 들수 있다.

연구사업에 전념할 때에는 그 누구도 만나지
않는 그의 굳어진 습관때문에 어쩌다 찾아온 친
구가 여러시간이나 기다리다 말없이 돌아간 일은
그 몇번이었던가?

언제인가 학술과학토론회의에서 출석정형을 장
악하던 교수가 명부에 올라있는 제이름을 불러놓
고 암만해도 대답이 없는 장래를 한참 둘러본후
결석으로 표시하려다 문득 《아참, 이견 나지! ...》

하고 퍽없이 개탄하는바람에 술한 교직원들을 웃
긴 일도 있었다.

허나 정작 자기의 교수사업이나 연구사업에 들
어가서는 차교수만큼 완벽하고 빈틈이 없는 사람
은 찾아보기 힘들것이다. 특히 제자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한 그의 요구성이 얼마나 높았던지 보
통 정열로는 따라가기 힘들었다. 그래 어떤 교원
들은 학생들에게 너무 요구성을 높인다고 말한적
이 있었다. 그러나 그의 요구를 관철한 제자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뛰어나게 실력이 높았다. 이
것은 교수의 요구성이 정당했다는것을 보여준것이
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교수앞에 단정한 자세로 마주앉아있는 이
처녀는 자기앞에서 구답시험을 치고있는 너대학
생이 아니라 반대로 대학교수를 교통질서위반자
로 단속한 교통안전원과 교통질서위반자와의 관
계였다.

(이렇게까진 되지 않을수도 있었는데...)

때늦은 후회를 하며 교수는 부지중 한숨을 쉬
었다. 결국 로속하고 점잖은 반백의 교수가 어린
이와 같은 단순한 생각으로 몇분의 시간을 단속
하려던것이 이런 후과를 가져온것이다.

두달전 차지현교수는 새로 건설되는 화학공장 중요심장부에 대한 기계적연산을 의뢰받았다. 매우 복잡하고 기일을 다루는 과제여서 차교수와 같은 실력자에게 맡겨진것이다. 그리하여 며칠전에 연구사업을 끝내고 최종실험을 할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실험에서 실패하였다. 교수는 수학적연산과정의 어느 한 대목에서 착오가 생긴것을 뒤늦게야 깨달았다. 그의 실력으로써 조금만 더 주의를 돌렸더라면 적어도 두번째 실험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것이였다. 실상 그 연구사업이 진행된 두달동안은 교수의 생활에서 어려운 때였다. 그것은 교수의 생활을 성의껏 뒤받침해오던 안해 순임이가 뜻하지 않은 급병으로 급급차에 실려간 그때부터였다. (이것이 그의 연구사업에서 실수를 가져온 원인이기도 했다.) 차교수는 몹시 당황하여 어쩔바를 몰랐다. 그러나 병원의, 의료집단은 안해의 생명을 위협하던 사태를 제때에 수습하였다. 여기에서 유능한 내과의사인 리운삼의 결단성 있는 치료방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는 내과학준박사였다. 이제는 완쾌되어 남편의 뒤바라지를 다시 할수 있게 되었을 때 순임은 운삼의사의 그 수고를 잊지 못해하며 령감에게 조심히 이런 말을 했다.

《듣자니 그 운삼선생의 아들이 령감네 대학의 졸업반이라고 합디다. 대학에서 령감의 영향력과 발언권이면 그 아들의 장래를 위해 힘써줄수 있겠는데 좀 알아보시구며. 그러면 우리도 면목이 설레인대 ...》

순임의 말에 차교수는 엄하게 말했다.

《교육사업이란 그 어떤 개별적사람들의 면목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회의 부흥과 우리 민족의 장래와 관련된 심중한 사업이요. 그러니 웅당 써야 할 인재란면 어련히 알아서 쓰는것이니 당신이 그런 일에 빠치는게 아니요.》

《그래두 사람의 인정이란 어데 그렇담데까. 령감이 그렇게 나을줄 짐작하면서두 혹시나 해서 한마디 했더니...》

언제 한번 남편에게 지나친 요구를 하거나 그의 의사를 거역해본적이 없는 순임이였다. 교수는 일생 어찌다 처음 하는 안해의 부탁을 덮어놓고 밀박는것이 미안하였다.

《내 알아는 보겠소만 너무 기대를 가지지는 마오. 그래 그 선생의 아들이 어느 학부에 이름은 뭐라고 했소?》

《물리수학부 리영호라구 하더군요.》

《물리수학부의 리영호라구? ... 허참, 그러니 리영호가 당신을 구원한 의사의 아들이었구만...》

리영호는 차지현교수가 총애하는 제자들중의 한 사람이였다.

차지현교수는 어제저녁부터 새로운 기분으로 자기가 작성한 프로그램과 연산구조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진행하였다. 마침내 밤을 밝혀

서 착오를 발견하였고 그 착오를 과학적으로 바로잡아 내놓자면 연구소에 나가 최종실험을 해야 했다. 그는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집을 나섰다. 교수는 서둘렀다. 안해의 병으로 생긴 혼란으로 잃어버린 시간을 다문 얼마라도 회복할수 있다는 한가지 생각으로 연구소로 향했다. 마침 길 건너편 뺑스정류소에 뺑스가 와닿은것이 보이고 차도로는 조용했다.

그는 급히 도로를 가로질러 뛰었다. 이때였다.

다급한 호각소리가 울렸고 어느새 나타났는지 고속으로 달려오던 승용차가 아츠러운 제동소리를 내며 앞에서 급정거하였다.

지금도 교수의 눈앞에는 차를 급정거시킨 그 운전사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잠시 아무 말도 못하던 모습이 눈앞에 섰다. 그는 저으기 난처한 눈길을 들어 교통안전원치너를 보았다.

교통안전원치너는 책상우에 《교통안전규정》책을 내놓았다.

《이 규정들을 알고계셔야겠습니다.》

교수는 눈을 크게 뜨고 치너가 읽으라고 밀어놓은 규정책을 바라보았다. 저절로 입이 찹찹 다서진다.

그는 난색을 짓고 벽시계를 건너다보며 말했다.

《이런 변이라구야. 저... 치너동무! 여기서 이책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소. 그렇지 않아도 난 너무나 바쁜 사람이요.》

《호... 그러니까 선생님은 교통안전규정을 학습하라는 저의 요구를 시간낭비로 생각하시는군요?》

마침내 치너가 따져물었다. 하지만 눈은 웃고 있었다.

《아니 그럴리야 있소...》

《설마 우리 사회에서 직위와 신분에 따르는 그 어떤 2중적인 법규가 허용되어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지요?》

《물론이요.》

《그렇다면 규정공부를 하셔야지요.》

지극히 단순한 삼단론법이었다. 마치 몇가지의 판에 박은 공식을 주입 시킨 파쇼날콤퓨터와도 같이 치너의 사고는 단순하다고 할만치 명백하였고 기계적인 논리로 일관되어있었다. 그 반복할만한 정확성앞에 어떤 인간성도 지성적인 호소도 무익하리라는것을 생각하면서도 시간이 급한 용무가 자기에게 있다는것을 말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 말을 들은 치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하였다.

《그럼 보시던 일을 마저 보십시오. 일을 다 보신 다음 다시 오셔야 하겠습니까.》

뜻밖에도 아주 량호한 태도였으나 다시 와야 한다는 말에는 놀랐다.

《아니, 다시 와야만 하겠소?》

《예. 언제 오실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합시다. 래일 오후에 오겠소.》
더이상 말했etz 소용없음을 느낀 교수는 시간이 귀중한지라 그대로 초소를 나와 급히 연구소로 향했다.

다음날 아침 대학의 강좌와 교원들은 다시 완성한 그의 연구자료와 실험결과를 놓고 교수를 축하하였다. 그러면서 며칠동안 수고가 많았는데 오늘은 좀 쉬라고 권고하였다. 그러나 교수는 허거운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나예겐 아직 계산을 끝내지 못한 과제가 또 하나 남아있소.》

교수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하는 그들의 곁을 떠나 그길로 교통안전초소로 향했다.

초소에는 그 처녀교통안전원이 없었다. 그래서 새롭게 자기를 보는 처녀들에게 그 교통안전원처녀를 만나야 할 리유와 함께 어깨에 줄이 석줄이라는 표식을 대고는 그를 찾아줄것을 부탁했다. 그러자 세명의 교통안전원처녀들은 약속이라듯 모두 웃음을 터뜨리었다.

《그런 표적을 가지곤 찾기 힘듭니다. 우리도 모두 중사들인걸요. 혹시 저희들중에 없습니까?》

《동무들중예?》

교수는 고지식하게 그들의 얼굴을 재삼 확인하고 머리를 저었다. 학자선생의 이러한 고정한 성품에 패환한 처녀들은 진지하여졌다.

《이제 말씀하신것을 보니 누군지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오늘 그 동무는 휴식일인데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그 동무가 오면 우리가 적당히 처리했다고 할터이니 선생님은 돌아가십시오.》

《아니 어제 그 동무와 약속을 한이상 그 동무도 나타날터인데 나는 기다려야 하겠소.》

때는 삼복더위라 오후의 땀별이 어찌나 내려쫓이던지 대기중의 열기와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지열로 숨이 확확 막혔다. 교수는 손수건을 꺼내여 이마와 목덜미의 땀을 연송 찍어내었다. 처음에 이름있는 교수선생의 고지식한 성품에 웃음을 띠었으나 지금은 교통안전원처녀들도 웃지 않았다.

그들도 이런분을 단속하여 다음날까지 곁을 지키는 자기 동무의 처사를 속으로 나무라었다. 그들은 교수선생님을 위해 선봉기도 가까이 가져다놓았고 시원한 사이다를 땡장고에서 꺼내 곁에 따라 대접하였다.

이때였다. 문이 열리며 헝피뿔으로 흰 정복을 뽕뽕히 당겨입고 목단추를 꼭 채운 단정한 차림의 그 교통안전원처녀가 당황한 얼굴로 급히 교수앞에 나타났다.

《안됐습니다. 바쁘신 선생님을 기다리게 해서...》

《아, 왔구만... 이거 도리어 내가 미안하오. 말을 들으니 휴식을 받았단데?》

《뭘 뽕찮습니다.》

《내 동무의 이름을 몰라서 애를 먹었소.》

《전 리미란이라고 한답니다. 선생님, 하시던 연구사업을 다 끝냈습니까?》

《끝냈소.》

《그래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처녀는 방그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어딘가 티없이 깨끗하고 천진한 성품이 느껴졌다.

《뭘 수고랄게 있소. 사실을 말하면 난 벌써 며칠전에 그 일을 끝냈어야 했었소.》

《?!》

처녀는 의혹이 어린 눈빛으로 교수를 바라보았다. 교수는 어설픈 미소를 지었다.

《글쎄 여태까지 없던 실수를 해서 계산상착오를 범했단말이요. 요즈음 전에없이 생각이 산만해진걸 보면 몹시 까다로운 다원방정식처럼 생활도 복잡하구 단순하지 않다고 생각되는구만.》

문득 교수는 자기가 어지간히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다는것을 깨닫고 말을 끊었다. 처녀가 이런 심중한 화제의 상대로는 너무 어리다는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그러나 처녀는 그런것을 조금도 개의치 않는듯 레의 천진한 어조로 응수하였다.

《그건 아마도 사람나름이겠지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전 선생님이 생활에 대하여 이제 얘기하신것과는 정반대로 생각한답니다.》

《?...》

복잡하다는것의 상반되는 개념이란 단순성일것이다. 그런즉 자기는 생활을 지극히 명백하고 단순한 눈으로 본다는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 시절인가.

리미란은 몸가짐을 바로하고 책상서랍에서 《교통안전규정》을 꺼내놓았다.

《이젠 규정공부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처녀는 부드럽게 말하기는 했으나 실무적인 요구에는 변함이 없어 교수는 약간 얼떨떨한 태도로 그를 쳐다보았다. 처녀에게서 무슨 큰 호의를 바라것은 아니였지만 이렇게까지야...

인간적인 리해와 따듯한 신뢰속에서 이야기를 주고받던 방금전의 처녀와는 또 다른 한 처녀가 다시 자기앞에 나타난듯하여 풀어지던 마음의 탕개가 다시 뽕뽕해지었다. ...

처녀가 방금 말한 그 명백성과 단순성을 실제로 증명한것이다. 이렇게 되여 차를 많이 타고다니던 교수는 여태까지 잘 모르던 교통안전규정을 잘 알게 되었다.

《이젠 이 문서에 수표하십시오.》

《!...》

교수는 기이한 탄복과 놀라움이 어린 시선으로 처녀를 얼핏 쳐다보고는 그가 이미 써놓은 문서를 읽었다. 문서에 밝혀진 내용과 이름이며 직장직위가 죄다 화가 나리만큼 정확히 기입되어있었다.

교수는 만년필을 옷주머니에서 뽑아 기계적으로 수표를 하였다. 그 수표로 말한다면 대학을

졸업하는 그의 제자들은 물론 외국의 학자들까지 자기들의 수첩에 교수의 서명을 받는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여기던 그런 수표였다.

《할수 없지. 그래 이젠 또 뭐요?》

교수는 뭐라 말할수 없는 야릇한 반감을 느끼며 물었다. 그런데 그 처녀에게서 새롭게 보게 되는것은 자기에 대한 그 어떤 은근한 경의가 그 눈동자에 어려있는것이였다.

《선생님은 항상 자신의 건강과 생명에 주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국가와 인민 앞에 귀중한 몸이라는것을 항상 잊지 말아주십시오.》

처녀의 목소리에는 교수를 감동시키는 진심이 어려있어 자기가 방금전에 품었던 그 어떤 반감이 스스로 없어지게 하는 힘이 있었다. 그러자 문득 생각난김에 물었다.

《그런데 리해되지 않는건 동무가 신분확인도 하지 않고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있었는가 하는 것이요.》

처녀는 면구한듯 낯을 가볍게 붉혔다.

《이미전에 저는 교수선생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있답니다. 저의 오빠가 대학에서 선생님의 제자로 공부하고있으니까요.》

《동무의 오빠가?!...》

교수는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언제인가 군대에서 제대되어 대학에서 공부하는 오빠를 만나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지나가신적이 있었습시다. 우리 오빠가 선생님께 인사를 하고는 저에게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우리 오빠 선생님을 몹시 존경합니다. 제가 질투가 날 정도로, 호호호...》

지금 자기를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이 처녀의 말속에는 그 어떤 녹거리안면이나 값싼 인정이 아니라 량심적이고 정직한 관계를 생활의 원칙으로 삼는 그렇듯 성실한 사람들에게서만 볼수 있는 밝은 표정을 교수는 알아보았다.

차교수는 바로 이 순간에 이 처녀를 통하여 그것을 느꼈고 그것으로 하여 감동되였다. 역시 그는 교육자였던것이다. 교수는 처녀의 바래움을 받으며 밖으로 나왔다. 처녀는 허물없이 교수에게 말했다.

《선생님, 이 초소를 지나실 때에는 이따금 우리를 생각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이 또 그런 실수를 하실수 있습니다.》

《미란동무, 내 꼭 명심하겠소.》

《제가 너무 버릇없었다면 용서하십시오.》

어느새 그의 동무들이 지나가는 승용차를 부탁하여 대기시키고있었다.

감동된 교수는 집이 가까운데 있다며 그대로 걸어서 떠나갔다.

그 다음날이였다. 차교수는 여전히 바쁜 하루를 보내였다. 오전에 강의를 하고 오후에는 외국과학기술대표단과의 면담을 하였으며 뒤이어 한 연구사의 학위논문심사에 공식심의위원회 성원으로 참가하였다. 퇴근시간이 되어 집에 들어서니 윤삼의사가 안해를 진찰하고있었다. 순임의 퇴원후 건강이 념려되어 방문한것이다.

윤삼은 드디어 검진을 끝내고 이젠 안심해도

되겠다고 하면서 만족한 기분으로 일어섰다. 그러나 교수부부는 기어이 떠나려는 그를 진심으로 눌러앉히였다. 이어 순임이가 성의껏 상을 차렸다. 윤삼의사에 대한 순임의 정성은 정말 극진했다. 거기에는 이미 생명을 구원받은 고마움과 함께 또다른 의미도 있었다.

병원에서 순임의 병세가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회복기에 들어섰을 때였다. 순임은 윤삼의 아들을 볼 기회가 우연히 생겼다. 그래서 윤삼에게 사위를 삼았으면 좋겠다고 통담삼아 빼쳤더니 윤삼이 껄껄 웃으며 반대가 없다고 하였다. 그것도 그럴것이 차교수의 딸이 사경에 처한 어머니를 밤새워 간호할 때 옆침대의 중환자까지 어머니와 똑같이 성의껏 돌보아주어 그 환자는 물론 병원성원들 모두가 인물도 굵지만 품성도 훌륭한 딸을 두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것이다. 그러니 아들이있는 윤삼인들 이 탐나는 며느리감을 왜 욕심내지 않았겠는가. 이러한 처지에 윤삼과 그 아들 영호에게 은근히 원심을 쓰게 되는것은 딸가진 어머니인 순임이로서는 어쩔수 없는 심리였다. 그러나 이런속심을 아직 령감에게 말하지 않았다. 고지식한 령감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기때문이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차교수는 순임이가 령동기에서 금방 꺼내온 룡성맥주를 윤삼의 고뿌에 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의사선생은 아주 훌륭한 아들을 두었습니다.》

《제 아들은 어떻게 아십니까?》

《예. 제가 아들이 공부하는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있습시다.》

《그렇습니까? 이거 반갑습시다.》

리윤삼은 새삼스럽게 차교수를 바라보았다.

말없이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사경에 처한 환자를 굽어보던 반백의 점잖은 사람이 환자의 남편이라는것을 알았지만 자기 아들의 스승이라는것을 그는 그때 알수 없었다.

《저는 아들로부터 유명한 박사이며 교수인 선생님을 스승으로 모시고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여기서 이렇게 만날줄은 미처 몰랐습시다. 저의 아들을 가르치느라 수고가 많았습시다.》

윤삼은 교수의 고뿌에 거품이는 맥주를 새로 부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아니 그건 내가 도리어 할 말입니다. 이렇게 만나고보니 여러모로 정말 반갑습시다.》

서로의 믿음과 신뢰를 가져오게 한 두사람의 만남은 친근하고도 화목한 분위기를 가져왔다.

《지금 대학에서 논의되고있는 영호의 졸업논문은 기발한 착상과 실용가치로 하여 주목하고있습니다. 그대 그의 장래에 대해 관심을 돌리고있는데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교수는 금방 들어온 잉어회접시를 윤삼의 앞으로 놓아주며 은근히 물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아들이가 말하기를 대학에서 권고도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물어본적이 있었습시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어볼것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고 자체로 결심하라고 했습시다.》

병맥주를 더 가져다놓고 새 료리접시를 빈접시

와 바꾸어놓던 순임이도 좀 긴장감을 느끼며 다 음말을 기다렸다.

《머칠째 생각해보느라고 그러는지 아무 말이 없더니 하루는 3대혁명소조에 파견되겠다는것입니다. 거기에 파견되어가서 이미 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을 현실에 실천하므로 3대혁명과업을 관철하는데 이바지하겠다는것이지요. 나도 생각해 보니 앞날의 과학자로서 아주 유익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결심을 지지하였습니다. 교수선생의 의향은 어떠하 신지?》

차지현교수는 목직한것이 가슴을 쿵 울리는듯 한감을 느꼈다.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교수는 저오기 흥분하였다.

제자의 재능을 아끼는 심정에서 그리고 곁에 두고싶은 마음에서도 영호를 박사원에 남도록 이 좌석에서 권고하려고 하였지만 그의 결심이 이렇게 생겨났는가를 알게 되자 자기의 의도를 취소 하였다. 그러나 그는 유감스럽지 않았다. 도리어 윤삼이가 더 돋보이었다.

어느덧 윤삼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교수부부는 윤삼을 바래우려 승강기가 있는데 까지 나왔다.

이때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승강기가 그가 사는 8층에 멈춰서더니 문이 열렸다. 그속에서 정복차림의 한 처녀가 어린애의 손목을 잡고 나오다가 교수를 보더니 깅듯이 거수경례를 하였다.

《안녕하십니까? 교수선생님.》

《아, 리미란동무구만!》

교수도 처녀를 알아보고 반색하였다. 교통안전원처녀는 길을 잃어버린 어린애의 집을 찾아 여기까지 온것이다.

순임과 윤삼은 한옆에 물러서서 그들의 상봉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반백의 교수선생과 생기발랄한 처녀는 쉽사리 헤어질 잡도리가 아니였다.

이야기는 오빠에게서 교수선생님의 일로 몹시 책망을 들었다는것으로 시작해서 어느덧 자기 오빠가 앞으로 준비하여야 할 논문준비때문에 골머리를 앓고있다는것과 교수선생님께 조언을 받자고해도 찾아갈 체면이 없어한다는 말을 허물없이 하였다. 이 말을 듣자 차교수는 껄껄 웃었다.

《원 사람두, 체대군인답지 못하게 제 누이동생보다도 더 웅졸하구만. 래일 오후 첫시간에 나한테 오라구 하오. 내 방조를 주지.》

그들의 이야기가 어찌나 친근하고 다정한지 옆에 서있던 윤삼이는 자기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순임은 윤삼에게 실례가 되는것 같아 령감의 옆구리를 슬그머니 잡아당겼다.

《여보!》

교수는 그제서야 돌아보고 환경을 알아차렸다.

처녀는 자리를 뜨려고 단정한 자세로 교수에게 거수경례를 하였다.

《선생님의 교육사업과 연구사업에서 성과를 바랍니다.》

진실에서 우러나오는 정중한 인사였다. 안전원 처녀가 어린애를 데리고 자리를 뜨자 순임은 교수에게 물었다.

《여보, 누구길래 그렇게 각근하게 대하시우?》

교수는 자못 흡족하여 안해에게 말했다.

《내가 잘 아는 인연이 깊은 처녀요. 얼마전에는 교통질서를 위반하여 저 처녀안전원에게 단속되었었는데 그 기회에 교통안전교양을 잘 받았소. 참 고마운 동무요!》

《뭇라구요?!...》

두사람은 놀랐다. 안해는 기가 막혀 입을 딱벌렸고 윤삼은 믿어지지 않는 눈길로 그를 바라본다. 차교수가 전후사연을 이야기하자 윤삼은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이며 껄껄 웃었다.

《원 교수선생에게 그런 일도 있었습니까?》

윤삼을 바래우고 방에 들어선 차교수는 서재의 소파에 흡족한 기분으로 앉았다.

《여보, 당신이 오늘은 어떻게 된 일이에요? 별스레 신수가 환하구려.》

새삼스러워진 눈빛으로 안해가 이죽거리며 묻자 차교수는 벅글썩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제격 응수했다.

《그럴수밖에... 이젠 다 늙었다고 생각한 나도 저런 훌륭한 사람들속에 살고있다고 생각하니 젊은 시절이 되돌아온것 같소. 일욕심이 부쩍 난단 말이오.》

《원참, 머리허연 령감이 그런 실수를 해가지고 어린 처녀한테 교양을 톡톡히 받구서두 부끄럽지 않수?》

순임은 어이가 없어 하며 혀를 끝끝 찼다.

《글쎄 나라구 어떻게 완성된 사람이겠소. 그래서 내가 실수할세라 수고하는 그 안전원처녀가 있는게고 윤삼의사와 같은 참된 의료일군이 있는것이 아니요. 얼마나 고마운 우리 제도인가!》

난 오늘 내 주위의 생활을 다시금 뜨겁게 감수하고보니 생각되는바가 많소.》

차교수는 소파에서 일어나 활짝 열어놓은 문을 지나 베란다로 나갔다. 고층살림집에서 바라보이는 수도의 밤풍경은 정말 황홀하였다.

하루생활을 행복의 꽃으로 피운 사람들과 승용차, 전차들의 물결이 네거리 교통신호등에 의해 질서정연히 끝없이 굴이치고있었다. 그것은 시대를 안고 굽이치는 생활의 흐름이였다.

교수부부는 이 거창한 생활의 흐름속에 자기들도 있다는 긍지를 안고 수도의 밤풍경을 오래오래 바라보았다.

아물수 없는 상처

조수영 아동문학작가

황령아 아동문학작가

류정옥 소설가

본사기자: 오늘 우리 여성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은혜로운 품속에 안겨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역세게 밀고나가는 당당한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자기의 희망에 따라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보람찬 생활을 누리고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날 우리 여성들은 봉건의 구속에 얽매어 울고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는 인간 아닌 인간의 《대우》를 받으며 죽지 못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천대받고 멸시받던 여성들이 나라의 꽃으로 떠받들리우며 국가 정사를 의논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당일군으로, 과학자로, 작가로, 의사로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온갖 배려를 다 돌려주고있습니다.

이 모든것은 정녕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조국을 찾아주시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된 새 사회를 세워주신 때부터 이루어진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나라 없던 그 세월에 무참하게 죽은 우리 조선녀성의 수는 높은 산악을 이뤘을것이며 그들이 흘린 눈물 또한 큰 바다를 이루고도 남았을것입니다.

요즘 텔레비존과 신문에 널리 소개된 일본군 《위안부》녀성들의 증언이 이것을 실증해주고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습니다.

《조선인민은 악독한 일제놈들의 극심한 민족적 억압과 착취를 받았으며 초보적인 정치적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마저 빼앗기고 피눈물나는 식민지 노예생활을 강요당하여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제원쑤놈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안고 한자리에 모여앉았습니다.

이 자리에는 왜정말기에 태어난 작가로부터 새세대작가에 이르기까지의 여성작가들과 함께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일본군 《위안부》수난자의 한사람이었던 리경생어머니가 함께 참가했습니다. 경생어머니, 정의와 량심의 대변자들인 우리 작가들앞에 하실 말씀이있다면 이야기하여주시시오.

리경생: 여러 작가선생들과 자리를 같이하고보니 무엇보다 어떻게 말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요즈음 신문과 방송을 들으니 일제놈들은 우리나라 국왕의 수표도 없는 문건으로 조선을 강제로 먹어버렸다고하는데 이런 파렴치한놈들이니 세상 무슨 일인들 못하겠나요. 예로부터 정조관념이 가장 강했던 우리의 술한 조선녀성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제놈들의 노리개로 삼고 무참히

리경생 대동군 원천리

동희 소설가

본사기자

학살한 원쑤들이 바로 일제놈들입니다.

나역시 철천지 원쑤인 저 일제놈들에게 정조를 유린당하고 죽지 못해 살아남은 녀성중의 한사람입니다.

함북도 어랑에서 12살나이에 일제놈들에게 끌려가 꽃나이 청춘시절을 다 빼앗기고 이렇게 폐인이 되어 한생을 살아옵니다. 지금 나의 몸에는 일제놈들이 남겨놓은 원한의 상처자리가 질게 남아있습니다. 놈들은 나의 몸에 태기가 있자 야수적으로 달려들어 배를 가르고 피덩어리를 꺼내어 칼탕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뱀이 쏘아져나온 이몸을 죽으라고 팽개쳐버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피흐르는 상처를 불안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류정옥: 듣고보니 정말 치가 떨려 못견디겠군요. 경생어머니에게 감행한놈들의 야만적행위야말로 짐승도 낮을 불힐 천인공노할 만행이군요.

리경생: 그보다 더한 일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끌려간곳은 경상북도장원이라는곳인데 애어린 처녀들은 당하는 일마다 무서워서 도망치려 했습니다. 놈들은 도망치려던 한 처녀를 붙잡아다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의 팔과 다리를 잘라내고 젓가슴을 도려낸다음 강물에 처넣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에서 온 처녀가 제놈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하여 밖에 내다가 옷을 벗겨 사지를 묶어놓고 우리의 눈앞에서 못된 짓을 다했습니다. 삼사십명이나 되는 왜놈들이 그 지랄을 하고나니 그 처녀는 기진하여 한마디 말도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거야 어디 사람의 겁을 쓴 인간이 할 일입니까? 이 복통 터지는 원쑤를 어떻게 하면 갚겠습니까.

황령아: 정말 들을수록 이가 갈리고 온몸이 분노로 이글이글 타오르는 귀축같은 만행이군요.

일제놈들도 인간일진대 자기의 처자와 동생 그리고 사랑하는 누이가 있을것입니다. 그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저런 몸서리치는 행동을 어떻게 차마 감행할수 있겠습니까.

조수영: 다른게 없습니다. 결론은 일제침략자들은 인두겁을 쓴 승냥이라는것입니다. 그놈들이 그런것을 다 생각했다면 10대의 소녀들과 아이까지있는 유부녀들을 략치해다가 그 지랄을 했겠습니까.

일동: 옳습니다.

본사기자: 경생어머니도 12살에 끌려갔다고 했는데 그때 끌려온 녀성들중에 10대의 소녀들이 더 있었습니까?

리경생: 아 있구말구요. 우리 동네에서 같이 끌려간 애들이 모두 내포래였구 끌려온 처녀들중에도 10여명이 넘었습니다.

황령아: 아직은 엄마의 치마꼬리를 잡고 돌아가고 밤이면 엄마의 젖가슴을 팔 그 나이의 어린 것들이 무엇을 안다고 상상도 못할 그런 추악한 짓을 벌린단말입니까. 전 정말 아동작가로서 치솟는 격분을 터뜨리지 않을수 없구만요.

동희: 세계 력사에 여러차례의 전쟁도 있었지만 일제야수놈들처럼 전쟁관에 위안소를 차려놓고 여자들을 끌고다니는 군대는 없지 않습니까.

본사기자: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은 히틀러군대도 상상못했던 추악한 행위들이었입니다. 악독한 왜놈들은 제놈들의 발길이 닿는곳마다 저들의 본토로부터 시작해서 중국 남북만주의 모든곳 그리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여러나라들과 심지어는 남태평양의 작은섬인 파푸아뉴기니아 등 전쟁관이란 전쟁관에 우리 녀성들을 끌고다니며 성노예생활을 강요했습니다.

조상대대로 부드럽고 외유내강하며 절개높기로 소문난 우리 조선녀성들이어서 문학사에도 《춘향전》, 《도미와 그의 안해》를 비롯한 이런 주제의 작품들이 많이 전해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조수영: 예. 그런데 왜놈들은 눈같이 깨끗하고 순결한 정조를 지켜가는 우리 조선녀성들은 가는 곳마다에서 랍치해다가 무참히 짓밟아버렸습니다.

일제놈들은 자국내 녀성들을 위안부로 쓰면 군국주의 씨종자가 말라버리는것이 아까와서, 점령지에서는 솟아나는 반일감정이 두려워서 보다 중요하게는 식민지민족말살정책의 하나로 조선인녀성들을 끌어다가 자기들의 성노리게로 삼았던것입니다.

나의 기억에 지금도 생생한데 그때 나의 나이가 땃살쯤 되었던것 같습니다. 그 시기 내가 살던 마을에서는 찍하면 녀자들을 끌어갔는데 누런 옷을 입은놈들이 마을에 들이닥칠 때면 애기엄마건 처녀이건 할것없이 녀자들은 모두 산으로 올리뛰거나 수수밭속에 들어가 숨군하였습니다. 그때 철모르던 나도 수수밭으로 뛰어들며 (아, 녀자들은 한생 이렇게 숨어다니고 피해살아야 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동희: 철없던 그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것을 보니 그 마을에서 얼마나 녀자 《사냥》이 심하게 벌어졌었는가 하는것을 알겠구만요.

조수영: 예. 그때 한 마을에 나의 친척별 되는 보금이라는 아재가 있었는데 그 아재는 외동딸인데다가 귀엽게 생기어서 집안에서뿐아니라 친척들에게서까지 무척 사랑을 받았었지요. 그런 아재를 왜놈들에게 빼앗기고 땅을 치며 통곡하던 친척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물론 그 나이에 나는 일제놈들이 왜 녀자들을 한사코 끌려가는지는 몰랐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런행이었다고 짐작됩니다.

류정옥: 이것은 노예 《사냥》이라고보아도 과언이 아닐것 같군요. 하기에 당시 일본군에 복무하면서 술한 조선녀성들을 랍치해다가 일본군《위안부》로 섬겨바치던 요시다 세이찌는 그때 안가겠다고 울고불고하던 처녀들을 강제로 차에 올려던져 끌고가군했었다고 자기의 증언에서 토설하지 않았습니까.

세월의 흐름속에서 진리는 더욱 명명백백하여질것이고 그 흑막은 벗겨지는 법이거늘 일본은 늦으나마 자기의 죄과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일본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미 우리 력사학자들과 남조선의 력사학자들에 의하여 력력히 드러난 《울사5조약》과 《정미7조약》의 허위성을 계속 부정하고있지 않습니까.

본사기자: 옳습니다. 또한 일본은 세계평화에 호인민들의 저주와 규탄을 받으면서도 오늘은 또 군국주의야망실현을 위해 가장 위험한 핵물질인 플루토늄수송에 급급하고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실들은 세상만물이 다 변한대도 승냥이의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줍니다.

력사의 흐름과 함께 혁명의 세대도 계속 교체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보니 거듭되는 세대교체속에서 혁명의 2세, 3세들이 우리의 임무가 무겁다는것을 새삼스레 느끼게 되는군요.

조수영: 우에서 말한 정말 이가 갈리는 력사적 사실들은 우리가 제 나라 제 땅을 빼앗긴 식민지 약소민족이었던탓에 당한 수치이고 불행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한 세대에 가장 위대한 두 분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여 이 세상 누구나가 우러르는 나라로 되었으며 그 어떤 바람에도 끄떡없이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 굳건한 사회주의강국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작가인 저는 우선 자기의 글에서 오늘의 이 행복, 우리의 찬란한 미래까지도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노래하는 작품들을 더 많이 쓰렵니다. 또 동화작가로서 청소년들의 계급교양에 이바지하는 동화, 우화 작품들을 많이 창작함으로써 우리 문학의 학원에 아름다운 한송이 꽃이라도 보태여가는 시대의 참된 작가가 되겠습니다.

류정옥: 저역시 같은 결심입니다. 일제식민지통치하의 그 가슴아픈 나날들을 력사의 갈피속에 묻어둘것이 아니라 원쑤가 얼마나 악독하고 교활한가를 보여주는 소설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우리 당 사상전선의 첨단에 선 작가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본사기자: 시대와 인민 앞에서 자기의 의무를 높이 자각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동무들의 결의도 같으리라고 보면서 앞으로의 창작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모두 경생어머니의 원한을 풀어드립니다.

본사기자 리종성

소원

김순향

성스러운 혁명의 산 백두산아
이 내 가슴에 굳은 의지 안겨주려마
그러면 나의 온 녀 그 의지로
강철같은 바늘을 만들고싶어

백두의 빛나는 태양아
금빛 해살로 내 몸을 감싸주려마
그러면 나의 온몸 그 해살이 되어
길고 긴 실을 엮고싶어

이 땅이 갈라져 흘러온 아픈 세월

어머니 조국아 기다려주려마
그러면 내 한몸 바쳐
분렬의 그 아픔 덜어줄테야

백두의 의지로 만든 바늘에
해빛으로 만든 실을 꿰어서
갈라진 내 조국을 이어줄테야
갈라진 내 나라를 이어줄테야

(필자는 총련조선대학교 문학부 학생임)

가사

기다리는 품

허린정

떠나온 포구는 아득한 천리런가
먼바다 어장에 달빛이 흐르네
바래주던 어머니 다심한 그 모습
자랑안고 돌아오라 나를 부르네

헤쳐넘은 격랑은 그 얼마이던가
설레는 파도우에 달빛이 흐르네
꽃다발 안겨주던 처녀의 그 눈빛
위훈안고 돌아오라 나를 부르네

이 아들 기다리는 조국을 생각하며
파도를 헤쳐넘는 내 심장 불타네
만선기 올릴 때면 웃는듯 비쳐주며
먼바다 어디 가나 달빛은 따라서네

아 어머니조국의 품이여
언제나 그 품에 뗏목이 돌아가리

어머니의 웨침 외 1편

-남녘의 한 어머니를 대신하여-

조기천

그렇게도 바라던
졸업을 눈앞에 두고
아들아
창창 구만리로 이어진 청춘을
너무도 일찌기 불태워버렸구나

너에게도 삶이 왜 소중치 않았으랴
이 홀어머니까지 살았는데야
언젠가 방학에 집에 왔을 때

네가 하던 말이 귀에 쟁쟁타
이제 반년후 졸업이라던...

흐르는 세월이 모질어도
래일없는 암담한 생활속에서
네 졸업에 희망걸고 뒤받침하던
단 하나 그 행복도 없어지겠으니
어머니는 어디서 락을 찾으랴만

아 어머니앞에 효성을 못하고 먼저 갔다
 구천에 가서 용서를 빌지 말이라
 꿈많은 청춘 투쟁의 불꽃으로 탈 때
 이 어미에 대한 너의 사랑
 불보다 뜨거웠음을 내 어이 모르랴

이 땅 어머니들의 속절없는 기다림을
 통일된 그날로 이끌어주고

고향집 사랑방에 이 어미 홀로 남겼어도
 통일조국의 한 아들로 뗏뗏이 갔으니

아, 효자중의 효자로
 가슴 짝 그리안고픈
 아들이
 사랑하는 내 아들이!

진리는 어디에 있느냐

생활이 악이고
 삶이 지옥같은 이 땅에선
 배움은 희망으로만 남은
 고통이었다

생활의 고달픈 피자육이 얼룩진
 어머니 보내시는 한푼두푼
 그 가난과 설움의 조각으로
 몇날의 글동양이나 했던가

눈감고 참았던 교학의 서러움
 했어도 바라던것은 진리
 지성의 잡탕속에 환멸은 커만갔고
 파썸의 란무장인 학원마저 숨막히니

내 찾는 진리는 어디에 있느냐
 진리를 외면한 이 교정에서
 향학열에 불붙던 가슴가슴에
 세찬 갈기 일으키는 분노여

아 이룰수 없는 배움을
 나의 책상옆에 남기여두고
 제몫까지 배우라며 내 친구 떠날 때
 대자보에 그대 남긴 진한 혈서가
 오, 오 눈앞에 일어서누나

-우리의 참배움은 주체
 배움의 기쁨은 통일과 함께 오리
 진리의 대문향해
 학우들 앞으로! 앞으로!

오, 진리는 바로 여기에 있다
 틀어진 이 주먹
 높뛰는 이 심장에!
 통일없인 이 남녘에 올수도 없는
 청춘의 꿈과 리상이여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 학생)